

하루만에 읽는 신약개론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1. 신약개론
2. 신구약중간사 : 시대의 개관
3. 신구약중간사 : 유대분파들
4. 신구약중간사 : 회당과 성전
5. 신구약중간사 : 외경
6. 신약성경 형성사
7.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의 사역
8. 복음
9. 복음서를 통해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7일의 여정
10. 마태복음
11. 마가복음
12. 누가복음, 구주론
13. 요한복음
14. 사도행전
15. 로마서, 구원의 서정 8단계
16. 고린도전서
17. 고린도후서, 죽음과 은혜
18. 갈라디아서, 이신득의사상
19. 에베소서
20.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21. 골로새서, 계시, 그리스도의 본성
22. 데살로니가전서, 휴거
23. 데살로니가후서, 그리스도인의 재림
24. 디모데전서,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25. 디모데후서, 자녀교육, 성경
26. 디도서
27. 빌레몬서, 그리스도의 직분
28. 히브리서
29. 야고보서, 행함과 믿음
30. 베드로전서, 계시

31. 베드로후서, 적그리스도
32. 요한일서
33. 요한이서, 장로, 집사, 영지주의
34. 요한삼서, 교회론
35. 유다서, 사단, 귀신
36. 요한계시록, 예수의 상징

1. 신약개론

(1) 성경전서(Bible, τό βιβλίον)

성경(Bible)은 기독교의 최고경전을 통칭하는 것으로 영문명 "Bible"은 고대 파피루스 무역의 본거지인 비블로스지역에서 유래하던 "그 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토비블리온"(βιβλίο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그 책"이란 "THE BOOK"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이것 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인 "타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는 B.C 1500~400년에 이르는 1,100년간의 장구한 세월을 걸쳐 바빌로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 각각 기록된 경전들을 한권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최초에는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D 90년경,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 "요하난벤 자카이"가 "얌니아 회의"(Council of Jamnia)에서 유대교인들이 완결하였다는 전승이 정설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는 달리 15권이 추가된 39권을 정설로 받아 들였으며, 이것이 A.D 382년 로마공의회를 거치는 등 수백년에 걸친 학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정되어 갔습니다 로마카톨릭은 로마공의회에서 구약44권, 신약27권 등 71권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예레미야 애가와 바룩서가 별도 문헌으로 독립됨으로서 구약46권, 신약 27권 등 73권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문헌들은 성경외에 외경(Apocrypho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숨겨진", "감춰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이단적 내용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 거짓된 것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BC. 2세기경에 시작하여 AD. 1세기에 확산되어 있던 문헌 중 경전에서 제외된 모든 서적들을 위경(Apocrypha)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구약위경으로는 12성조의 유크, 에녹서, 유빌레움, 므낫세의 기도, 제3에스라서, 제3마카베오서 등이 있고, 신약위경으로는 에피온인, 히브리인, 이집트인, 니고데모, 야고보, 베드로, 다양한 사도행전, 서간, 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성경 66권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종교의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간의 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특유의 신화가 그리스 신화와 유사점을 가지면서 종교적 행태로 내려왔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창조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였고 하나님이 왜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은혜일 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기록을 읽어본 사람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속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내용들과 비교하여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부터 눈을 떼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그 부모의 부모들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이야기가 500년 세월도 흐르기 전에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바알, 우상, 태양신, 달의 신, 급기야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까지 우상을 숭배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군가로 부터 끊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악에 까지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거나, 또는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등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흩어버리거나 불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찾으셨고 그 소수의 백성을 위해서 다수의 행악자들을 그대로 살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무지와 악행으로 이어졌고 국가와 개인의 욕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자가 나타나도 그 아들이 그것을 승계하지 않고, 그 손자가 승계한 하나님을 그의 손손자가 다시 거부하는 되물림이 역사속에서 재현되고 반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면 그만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갈아엎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한 몸에 다 담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세워 새로운 신의 통치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

되어져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고 독생성자 예수님의 죽음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보혜사를 이야기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속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것은 구약시대 그토록 하나님을 좇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강론하고, 꿈에서 조차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박는 최일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복음과 재림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하였던 유대인들을 잊지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 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후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복음, 이것이 성경입니다

(2) 신약성경(新約聖經, *Kainē Diathēkē*)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New Testament)은 구약성경과 대비하여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4대 복음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제자들의 서신과 예언서 등 27권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독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2세기 중엽,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Marcion, 85~160년)의 등장으로 초대교회의 성경 확립과 교리체제 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초대교회의 경전을 부인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서와 함께 다양한 바울서신들을 하나로 하여 새로운 경전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사회의 정체성 확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었고, 마르시온의 범주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단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내부의 이단세력들의 발흥을 규제하고 보편교회로서의 직

제를 구성하면서 4대복음서의 권위를 다른 성경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교회 국교로 공인된 후 기독교의 교세는 지역적으로 내용적으로 확장을 가속화하여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전이 시급하게 확정됨으로서 내외에서 발현하는 이단세력의 등장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정경에 관한 4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들을 중심으로 정경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① 사도로 인정되는 제자가 직접 기록하였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기록한 문헌
- ②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문헌
- ③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문헌
- ④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교회(Catholic Church)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헌

로마카톨릭교회의 4대기준을 중심으로 유세비우스는 3가지 정경 분류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 ① 호모루구메나(경전성에 적합한 문서) : 4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1서
- ② 안티레고메나(경전성에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문서) : 베드로후서, 요한2~3서, 유다서, 야고보서
- ③ 노트(경전성에 부적합하나 인지도가 높은 문서) : 베드로묵시록, 요한묵시록, 디다케, 바나바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루스는 호모루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의 합본호로서 26권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27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 확정되었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성경 목록과 함께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였고 구약성경의 아포크리파와 신약성경의 안티레고메나를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정경논란은 692년 트룰란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로마카톨릭교회의 정경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태는 종결되었습니다 9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마틴루터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공의회결정을 번복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실재로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과 구성들은 A.D 50~150년경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시점으로 성립된 것들이었습니다 이후의 시간들은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어느 것을 정경으로 포함시키고 어느 것을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인한 신중한 접근들이었습니다 성경

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의지와 지혜로서 과연 무엇을 분별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고민들의 흔적들이 역사의 자취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들의 불가피성은 동시대로 부터 발현한 이단과 이교들 때문이었고, 후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시점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져 버린다면 이 중요한 기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신화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혹독한 시련과 핍박속에서도 이러한 일치된 작업을 중단하거나 지지부진하지 않은채 일관성 있게 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체적인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 헬라어

- ① 로고스(요한복음1:1) : 말씀
- ② 소테르(요한복음4:42) : 구주
- ③ 데오스 호 파테르(에베소서3:15) : 하나님 아버지
- ④ 퀴리로스(빌립보서2:9~11) : 주님
- ⑤ 알파 카이 오메가(요한계시록1:8) : 처음과 나중

(4)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스라엘의 3대직분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서 이 가운데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특정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경상 제사장(히브리어, 코헨)과 선지자(히브리어, 나비) 등 두 직분의 기원은 BC. 21세기경, 멜기세덱(창세기14:8)과 아브라함(창세기20:7)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 애굽과 바벨론 등 고대 근동지역의 국가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불리우는 무리들이 사회지도층의 최고위직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창세기41:45,47:22).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되는 율기에도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케훈나"가 나타나고 있음은(율기 12:9)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의미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출애굽(BC.1446) 호렘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방의 신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레위사람 제사장(하르위임 하코하님)으로 표기함으로서 이방의 제사장들을 가르키는 "케마림"(열왕기하23:5,호세아10:5,스바냐1:4)과 애굽의 제

사장(창세기46:20), 블레셋의 제사장(사무엘상6:2), 다곤의 제사장(사무엘상5:5), 바알의 제사장(열왕기하10:9), 다른 이방의 제사장(역대하34:4,예레미야48:7)들의 "코헨"과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방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기원이 토속적이고 인위적이며 미신, 마술, 거짓, 계시, 복술, 사주, 관상 등 허탄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예레미야14:14,23:25~28), 성경적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대조되는 것입니다.

① 제사장직의 직무

제사장직은 성소를 중심으로 ㉓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5:1) 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출애굽기30:8,히브리서7:25). 이러한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직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중 레위지파에 속해야 하며(민수기3:11,히브리서5:1~2),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자(민수기16:5, 히브리서5:4), 아론의 후손인 자 중에서도 도덕적 순결과 거룩한 자(레위기21:6~8)로 제한하였습니다.

② 선지자직의 직무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㉓ 피동적 요소로서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이사야6:1, 예레미야1:4~10,에스겔3:1~4). ㉔ 능동적 요소로서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에스겔3:17,4:1~12). 한편 선지자 직분은 오직 신적 소명에 의존하므로 신분과 직업과 혈통과 계층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③ 제사장과 선지자의 특징

제사장과 선지자는 신적기원과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하에서 제사장은 체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선지자는 체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두 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무엘상2:18,3:20,에스겔1:3,에스라7:11,스가랴1:1).

④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구속사적으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영원히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두 직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무입니다(갈라디아서2:20) 오늘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베드로전서2:4~5)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고 동시에(로마서12:1)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자서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5)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의미

① 성전의 존재 의미 :

성전 자체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로서 신앙의 확신과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성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모형이며 예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구속사 전개 of 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죄인이 하나님앞에 나아오는 방법과 절차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와 비교해 볼 때 간접성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② 성전의 역사 :

성전의 역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Tebernacle)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성전은 고정성을 갖는 점 외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번 건립되었으나 성경에는 에스겔이 환상중에서 본 성전까지 모두 네개의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시대적 구분은 솔로몬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과 신약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③ 성전의 단계적 제한성의 의미 :

유대교가 가진 배타적 장소를 설명하며 죄 지은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것의 제한적 요소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전건물은 6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고 각 구획마다 한 단계씩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㉞ 이방인의 뜰 : 이방인들에게 허용한 유일한 장소로 성전경내 외곽 가장 낮은 곳

에 위치하였습니다

㉔ 성전, 벽 : 90cm의 담으로서 이방인들이 넘어설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㉕ 여인의 뜰 : 이방인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유대 여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㉖ 이스라엘의 뜰 : 여인의 뜰보다 3m 높은 곳으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㉗ 제사장의 뜰 : 이스라엘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㉘ 하나님의 전 : 제사장의 뜰보다 2m50cm 높은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개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때에 자신의 임무를 위해 들어갔으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배제하였던 것은 유대인의 선민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계급별로 나누고 출입을 금지하여 유대교 체제의 엄격한 신분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장소 가까이에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 여러가지 경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④ 성전에서 교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과 회개한 인간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 졌는데(마태복음27:51),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히브리서 10:19~20)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마서10:12)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갈라디아서3:28)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차별(요한계시록1:6) 등 모든 신분적 차별이 철폐된 것이었습니다

(6) 신약성경의 분류와 각권의 주제들

■ 신약성경 : 27권, 260장, 7,958절, 110,237단어, 315,579글자

I. 4복음서

① 마태복음 :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16:16~18)(왕)

㉗ 장절 : 28장, 1071절, ㉔ 저자 : 마태, ㉕ 기록연대 : AD. 50~70년

② 마가복음 : 예수, 섬기는 하나님의 종(10:45)(종)

- ㉞ 장절 : 16장, 678절, ㉞ 저자 : 마가, ㉞ 기록연대 : AD. 67~70년
- ③ 누가복음 :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구원(19:10)(인자)
- ㉞ 장절 : 24장, 1151절, ㉞ 저자 : 누가, ㉞ 기록연대 : AD. 58년
- ④ 요한복음 : 말씀의 성육신, 그리고 영생의 길(3:16)(하나님)
- ㉞ 장절 : 21장, 879절, ㉞ 저자 : 요한, ㉞ 기록연대 : AD. 85~90년

II. 사도중심의 역사서

- ⑤ 사도행전 : 성령에 의한 복음의 세계화(1:8)(성령행전)
- ㉞ 장절 : 28장, 1007절, ㉞ 저자 : 누가, ㉞ 기록연대 : AD. 61~62년

III. 서신서(사도바울)

- ⑥ 로마서 : 위대한 서신, 기독교의 핵심교리(1:16~17)(신구약성경의 핵심)
- ㉞ 장절 : 16장, 433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56년
- ⑦ 고린도전서 : 십자가의 도, 사랑(15:58)
- ㉞ 장절 : 16장, 437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년
- ⑧ 고린도후서 :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시련과 위로(12:9)
- ㉞ 장절 : 13장, 257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년
- ⑨ 갈라디아서 : 이신득의(以信得義)(2:16)
- ㉞ 장절 : 6장, 149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6년
- ⑩ 에베소서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생활(3:10~11)
- ㉞ 장절 : 6장, 155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⑪ 빌립보서 :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도의 평화(3:10)
- ㉞ 장절 : 4장, 104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⑫ 골로새서 :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소명(1:18)
- ㉞ 장절 : 4장, 95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⑬ 데살로니가전서 : 예수, 우리의 소망(4:16~17)
- ㉞ 장절 : 5장, 89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0년
- ⑭ 데살로니가후서 : 인내로 굳게 서라(2:15)(주의 재림과 교회)
- ㉞ 장절 : 3장, 47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0년
- ⑮ 디모데전서 :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선한 길로 행하라(6:11)
- ㉞ 장절 : 6장, 113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3년
- ⑯ 디모데후서 : 용기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 군병(2:2)
- ㉞ 장절 : 4장, 83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6년
- ⑰ 디도서 : 건강한 교회(2:1)
- ㉞ 장절 : 3장, 46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6년

⑱ 빌레몬서 : 형제와 용서(1:16)

㉑ 장절 : 1장, 25절, ㉒ 저자 : 바울, ㉓ 기록연대 : AD. 62년

⑲ 히브리서 :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길(1:1~3)

㉑ 장절 : 13장, 303절, ㉒ 저자 : 바울(익명), ㉓ 기록연대 : AD. 60년 후반

IV. 서신서(야고보)

⑳ 야고보서 : 행동하는 믿음(2:26)(산 믿음)

㉑ 장절 : 5장, 108절, ㉒ 저자 : 예수의 형제, 야고보, ㉓ 기록연대 : AD. 62년

V. 서신서(베드로)

㉑ 베드로전서 : 순례자의 인생(4:13)(산 소망)

㉑ 장절 : 5장, 105절, ㉒ 저자 : 베드로, ㉓ 기록연대 : AD. 64년

㉒ 베드로후서 : 믿음의 발전(1:12)(참진리,참지식)

㉑ 장절 : 3장, 61절, ㉒ 저자 : 베드로, ㉓ 기록연대 : AD. 66년

VI. 서신서(요한)

㉑ 요한1서 : 코이노니아(Koinonia)(1:3)(영생의 확신)

㉑ 장절 : 5장, 105절, ㉒ 저자 : 사도 요한, ㉓ 기록연대 : AD. 90년

㉒ 요한2서 : 진리안에서 서로 사랑하라(1:8)

㉑ 장절 : 1장, 13절, ㉒ 저자 : 사도 요한, ㉓ 기록연대 : AD. 90년

㉓ 요한3서 :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1:8)

㉑ 장절 : 1장, 15절, ㉒ 저자 : 사도 요한, ㉓ 기록연대 : AD. 90년

VI. 서신서(유다)

㉑ 유다서 : 배교에 대한 경고(1:3)

㉑ 장절 : 1장, 25절, ㉒ 저자 : 예수의 형제, 유다, ㉓ 기록연대 : AD. 70~80년

VII. 묵시록

㉑ 요한계시록 :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1:7,11:15)

㉑ 장절 : 22장, 404절, ㉒ 저자 : 사도 요한, ㉓ 기록연대 : AD. 81~96년

2. 신구약중간사 : 시대의 개관

■ 연대표(BC)

- 334년 : 알렉산더가 헬레스포트를 건넌
- 331년 : 알렉산더가 바사인들을 물리침
- 323년 : 알렉산더가 32세로 바벨론에서 죽음
- 320년 : 톨레미왕조 예루살렘 함락
- 260년 :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됨(70인역)
- 197~142년 : 헬라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함
- 175년 : 외경이 완성됨
- 169년 :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보물을 노략함
- 166년 : 마카베오 가문이 반란을 일으킴
- 165년 : 성전 청결
- 146년 : 로마에 의해 가르타고가 점령되고 포에니 전쟁이 종식됨
- 134~104년 : 그리심산 성전, 하스몬 왕가의 통치자인 요한 힐카누스(BC. 134~104)에 의해 파괴
- 63년 :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 44년 : 율리우스 케사르가 암살당함
- 37년 : 헤롯이 예루살렘의 본봉왕으로 다스림
- 20년 : 성전 재건 시작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까지의 400년간을 침묵의 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기 역사적으로는 지배자들의 변화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세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I. 페르시아(바사,Persia) 시대

페르시아 통치기간중 유대인들이 생활은 비교적 평화로왔습니다 고레스(Gyrus)황제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귀국과 성전재건을 허락함으로 이를위한 유대인 재건인력들의 귀국이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틴 주민들의 방해속에서도 다리오 대제(Darius the Great) 기간중에 성전재건을 완공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유다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이후, 1세기반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였으나 유대종교는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유대통치자는 대제사장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제직분과 정치적 공직겸임은 이러한 정경일체와 분리의 문제로 암투가 벌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직을 놓고 시기와 음모, 요야다의 아들 요하난(느헤미야12:22)이 성전

경내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앓두아 동생 므낫세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Sanballat)의 딸과 결혼하고 사마리아 성전이 그리심산에 건립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이방여인과 결혼으로 제사장직에서 해임 요구에 직면하자 그의 장인 산발랏이 그리심산에 새성전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는 시온산보다 그리심산이 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은 하스몬 왕가의 통치자인 요한 힐카누스(BC. 134~104)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그리심산은 여전히 사마리아의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성역에 예배처소가 복원될 것이라고 예수께 말씀드렸으나 예수께서는 예배처소보다 예배자의 영적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요한복음4:20)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략전쟁에 실패하자 이집트 등 피정복민들은 독립쟁취로 동요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3세(Artaxerxes III)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대한 투쟁에 참여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페르시아는 이들을 바벨론과 카스피해 남부 연안으로 유형을 보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집트 거주자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살해 된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명을 선택하였고 나일강 동쪽 평야인 다바네스에 피난하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주하였습니다. BC. 5세기까지 이주민의 행렬이 계속되었고 현재의 에스완 근처인 엘레판틴 섬에는 유대 용병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조상 여호와와의 신앙과 이방적 요소를 혼합한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으며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II. 알렉산더 대왕 시대

헬라문화의 전성기를 가져온 마케도니아왕국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제국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는 헬라문화로 세계를 통일하려는 확신으로 BC. 333년, 소아시아로 진군하여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향하였습니다. 두로와 가사가 저항하였으나 의미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앓두아시대에 헬라군대가 승리하리라는 다니엘서의 예언(8장)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승계시키고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건설 때에는 유대인 이주를 장려하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인도의 편잡지방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도시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헬라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생활문화와 양식을 헬라적으로 채택하고 헬라식 웅장한 건축물과 체육관, 야외극장을 건설하고 헬라식 이름과 헬라어와 헬라식 의복을 빠른 속도로 전파시켜 나갔습

니다

헬레니즘의 물질적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현실감있게 다가왔습니다. 교역과 상업이 신경제적 부유층을 형성시켰고 학자들은 도서관과 학교의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주거방식과 식생활이 사람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도 헬라문화의 화려한 외형에 매료되었고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벨론 유수이전에는 우상숭배가 장애물이었다면 바벨론 유수이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냐의 지배과정에서 많은 전통적인 유대관습들을 잃어 버렸습니다. 헬라식 이름과 헬라철학을 수용하고 자기 조상의 신앙과 헬라식 지혜를 혼합하여 제3의 종교적 문화가 도래하였습니다. 일부 반대계층은 보수의 길을 지키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하였지만 그 세력은 미약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벨론에서 33세로 요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동의 정세가 불확실하였으나 이미 뿌려놓은 헬레니즘의 물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헬라는 네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지배하게 되었으며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쿠스왕조는 영토와 권력을 위해 전쟁하였으나 그들의 사회문화적 사명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역사가 타른(W.W. Tarn)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너무 변화시켰으므로 그의 후대에 가서는 아무것도 그 이전처럼 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Ⅲ. 톨레미 왕조 시대

알렉산더 사후, 유대는 안티고누스(Antigonus)장군의 지배를 벗어나 "해방자"라는 의미의 "소테르"로 불리우는 톨레미 1세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톨레미1세는 BC. 320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집트에 왕국을 둔 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였고 이 도시는 수세기동안 유대사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톨레미2세(필라델푸스, Philadelphus)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은 훗날 70인역(LXX)이라고 알려진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 유대에서 왔다는 70인에서 유래하였지만 실제로는 12지파로부터 각 6명씩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BC. 260년)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애굽정부에 조공을 바쳤지만 지방행정면에서 대제사장 책임하에 자치권을 사용하였으므로 톨레미 왕조 시대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대제사장인 의인 시몬(Simon the Just)이었습니다. 그는 톨레미 1세때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주도하였으며 가뭄과

포위속에서도 급수를 가능케 할 수로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1세로 알려진 대제사장은 BC. 3세기 중엽에, 시몬2세는 BC. 200년경의 인물로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톨레미 시대 제사장 가문이었던 오니야가(家)와, 친이집트파이며 상류계층을 대표하였던 도비야가(家)는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암문사람 도비야와 연관된 가문으로(느헤미야2:10,4:3,6:1~19)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했습니다 톨레미 2세의 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도비야는 요단 동편 암문지역에 주둔하였던 톨레미 군대의 기병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이 중앙 요르단의 아락 엘엠밀(Araqel Emir)에서 도비야라는 이름이 붙은 BC. 3세기때의 거대한 능묘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도비야가는 신약성경의 세리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수세관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오니야2세가 톨레미4세에게 대제사장이 바쳐야 할 조공 20달란트를 거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비야 출신 요셉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세관을 맡아 알렉산드리아 자격권 공무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티오쿠스3세와 셀류쿠스왕조 시대의 20년간 영향력있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IV. 셀류쿠스(Selucus) 왕조 시대

시리아의 통치자들은 알렉산더제국을 계승한 국가들이 셀류쿠스1세(니카토, Nicator)에 의해 건립된 원인으로 셀류키드(Seleucids)라고 불렸습니다 초기의 지배자들은 셀류쿠스, 또는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으로 오론테스강의 안디옥을 수도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3세 대제는 BC. 199년까지 이집트와 전쟁을 통하여 요간강 발원지인 파니온전투의 승리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를 크게 변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톨레미 왕조가 유대교에 관용적이었다면 셀류쿠스 왕조는 유대인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하였습니다 친헬레파 유대인과 동맹을 맺은 안티오쿠스4세(에피파네스, Epiphanes)는 의인 시몬의 후손으로 정통파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야3세를 축출하고 그 형제 야손(Jason)의 주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쿠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 임명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제사장직을 정치적직임으로 생각한 반면 유대인들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였습니다

야손은 헬라문화를 장려하며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건설하고 헬라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메넬라우스(Menelaus)에 의해 더 큰 뇌물공여로 대제사장직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베냐민지파의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자 크게 반대하였고 야손은 군대를 일으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메넬라우스도 안티오쿠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팔레스타인은 일시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쳤습니다. 이집트와 대치하고 있던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이용하여 안식일에 예루살렘 공략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메넬라우스의 적대세력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도시의 성벽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요새 아크라가 성채에 건조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정통적 유대신앙의 자취를 일소해 버릴 결심으로 제우스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시 하였고, 턱수염을 기른 이방신상들을 건립하여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절기와 성경필사 작업과 율법준수를 금하였고, 탄압의 강도를 높여 갔습니다. 엘르아살이란 서기관은 돼지고기를 거부한 죄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대제사장직을 유지한 메넬라우스와 친헬라파 유대인들은 옛 질서를 폐지하고 타락의 길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정통파들의 씨를 말리려는 듯 대부분의 이스라엘 정통파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으나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숨어버리는 자들도 존재하였습니다.

V. 마카비 혁명

안티오쿠스의 사자들이 예루살렘 인근 24km지점 모딘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례대로 제사장 맛다디아(Mattathias)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 유대백성들에게 본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맛다디아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두려움에 떨던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격노한 제사장은 제단에 다가가 배교한 유대인과 안티오쿠스의 사자를 살해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맛다디아는 5명의 아들과 함께 이방제단을 파괴하고 체포를 우려해 고원 산악지대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정통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맛다디아 일가에 합세하여 세력을 확장하였고 헬레니즘과 결합한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쟁을 하거나 방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맛다디아는 안식일의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교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반포하였습니다.

지도자 맛다디아가 혁명초기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3남인 마카비(Maccabee, 쇠망치) 유다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후 마카비의 추종세력은 맛다디아를 능가하였고 시리아군을 대항할 자체 군대를 보유할 정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유다는 기습전을 감행하여 엠마오 전투에서 시리아군과 친헬라파 유대인을 격퇴시켰고 노획물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마카비는 그 후 아크라를 제외한 전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였습니다. 제우스 제단을 헐고 에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새 제단을 세웠으며 제우스의 신상은 모든 지역에서 전부 파괴되

었습니다 기슬래월 25일에 시작하여 8일간 계속되는 이 봉헌 축제는 하누카(Hanukkah)라는 히브리 광명제(the Festival of Lights)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전모독 3년만에 모든 것을 되찾은 평화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시리아 장군 루시아(Lysias)가 예루살렘 근처 전투에서 마카비군을 격퇴시키고 예루살렘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전등화앞에서 바람이 고요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본국에 큰 위기가 발생하여 루시아 장군은 회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루시아는 유대주의 제한법을 철회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하기로 화친 제안을 하였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제거되고 온건파 헬라주의자인 알키무스(Alcimus)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유대추종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대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마카비 장군들과 존경받는 서기관, 장로들의 회의가 소집되어 마카비의 반대가 있었지만 화친이 최선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알키무스는 대제사장이 되고 메넬라우스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마카비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카비의 예견대로 알키무스는 정통파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는 학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에 다시 마카비에게 전향하였으나 무기도 장비도 거의 없는 800명의 군대는 시리아의 정예군앞에서 대패를 당하는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카비의 형제인 요나단은 마카비 군대 수백명과 함께 요단강을 도하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갖지는 못하였으나 외교적 성과는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좌를 노리는 두 경쟁자가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군을 일으킬 지도력이 요나단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승세를 보이는 후보를 지지하며 다른 쪽에서는 스파르타와 로마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쟁종료전 요나단은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시리아 귀족에 임명되었고, 동생인 시몬은 팔레스타인 평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유다의 내적 번영을 이룩하였고 사후에는 동생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시몬의 탁월한 정치수완으로 시리아의 데메트리오를 합법적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세금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아크라를 점령해 왔던 시리아 주둔군을 굶어죽게 함으로서 옴바와 벳술의 도시들을 장악하였습니다 맛다디아의 막내 아들인 시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하스모니안(Hasmonaean) 왕조를 새롭게 건설하였습니다 BC. 134년, 야망에 찬 사위에게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은 살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셋째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는 겨우 도망쳐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VI. 하스몬 왕조 시대

시리아는 유대의 시리아 종속관계 유지와 시리아 연합군대 출정에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요한 힐카누스 정부를 승인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시몬이 병합하였던 욥바와 벳술은 다시 시리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힐카누스의 통치술로 이두매지역(에돔)과 연안도시들이 유대영토로 귀속되어 지면서 상인계층들에게 예전의 무역로를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힐카누스는 이두매인들에게 할례를 장려하고 유대신앙을 지킬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는 후기 유대교가 반대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맛다디아의 손자가 정복인에게 종교적 일치를 주장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힐카누스는 사마리아에 출정하여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는 등 유대군은 승리하였으나 초기 종교적 열성은 명확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BC. 104년 힐카누스가 사망하기 까지 영토는 매우 확장되었습니다. 그후 과거의 헬라주의자들은 배척당하였으나 그들의 사상은 사두개인들 가운데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시대의 정통파들은 기독교이전과 신약시대에 바리새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힐카누스 자신은 율법 고수주의자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히브리 사상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귀족으로 간주하였으며, 바리새인을 경멸하였습니다. 마카비의 후손이 헬라화되는 패역현상이 목격된 것입니다. 힐카누스의 사망으로 자녀들의 분쟁이 가속화하였지만 형제 중 3명을 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두명을 굶어 죽게하는 등 잔인성을 보여주며 장자인 유다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지 않은 다른 한명도 궁전에서 살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헬라식 이름인 아리스토틀로스(Aristobulus)라는 이름을 선호하였습니다. 통치 1년, 그는 레바논산 북편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치세를 보였지만 생애 내내 불안한 심경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틀로스가 사망하자 감옥에 갇혀있던 요나단이 왕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역사속에서는 헬라식 이름인 알렉산더 얀네우스(Alexander Jannaeu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는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이집트 국경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다윗왕과 솔로몬시대의 영화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스몬왕국에 병합된 지역들은 유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갔고 이두매가 유대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저항하였고 아볼로니아와 스구디아(벵산)는 비유대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멸시한 사건을 계기로 당파적 분쟁이 내란으로 확대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얀네우스에 대항하기 위해 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리새인들은 시리아와의 화친을 파기하였으나 얀네우스는 주모자 800명의 바리새인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

나 안네우스는 죽기전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Salome Alexandra)에게 사두개인의 충고를 멀리하고 바리새인을 가까이 할 것을 명하고 통치권을 그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전전(前前)왕인 아리스토틀로스(Antiochus IV)와 전(前)왕인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결혼하였던 알렉산드라는 하스몬 왕가 두 통치자의 미망인인 동시에 현재의 왕으로서 7년을 치세하였습니다 그녀는 장자인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에, 차남인 아리스토틀로스를 군 총수로 임명하여 각각 정권을 양분하며 통치하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인 바리새인의 지도자 시므온 벤 세타(Simeon ben Shetah)를 활용하여 유대 적대당파들의 화친을 도모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의 통치기간중 바리새인들은 유대건설에 공헌할 기회를 가지며 교육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므온 벤 세타가 산헤드린(유대국가회의)공회의 의장일 때, 모든 젊은이들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광범위한 초등교육 제도의 성립과 실시로 유대의 모든 대소도시들에서 히브리성경 중심의 교양과 학자들을 배출하는 기능을 갖게 하였습니다

당파분쟁의 상처는 집권자의 정치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족하는 시대에 사두개인들은 분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네우스가 일으킨 자기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사건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계획이 실현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두개인들이 살해되면서 내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군권을 쥐고 있는 차남 아리스토틀로스를 알렉산드라의 계승자로 추대하였고, 제국의 팽창을 바라는 무리들의 지지 또한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장자권 승계를 바라며 형제의 대결을 예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사망하자 힐카누스2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왕위를 승계하였으나 아리스토틀로스가 사두개인의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리스토틀로스의 장자와 힐카누스의 외동딸의 결혼으로 짧은 평화가 있었지만 힐카누스가 도망하고 이두매의 총독인 안티파터(Antipater)가 지지함으로서 또 다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폼페이(Pompey)가 유대의 평화를 유지하고 로마제국 군단을 이끌고 세계속으로 등장하였습니다

VII. 로마시대

폼페이는 아리스토틀로스가 로마를 반역할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포위 3개월만에 요새를 함락시키고 1만2천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며 점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과 지성소에까지 침범하였지만 고가의 비품과 성물들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으며 그들의 예배 또한 존중하였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시리아 행정구역으로 부속되었고, 해안도시와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의 도시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힐카누스는 갈릴리와 이두매와 베레아의 유대지배자인 대제사장

으로 인정되었지만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틀로스(아리스토틀로스)는 포로들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다 도주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나 로마의 지원을 받은 힐카누스에 의해 진압되고 폭동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두매 총독 안티파터(안티파스)는 아리스토틀로스(아리스토틀로스)에 대해 매우 반감이 있었으나 힐카누스(힐카누스)와는 화친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힐카누스(힐카누스)의 안티파터(안티파터)에 대한 두터운 신뢰로 사실상 유대의 권력은 안티파터(안티파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만큼 안티파터(안티파터) 세력을 혐오하였습니다. 이두매지역은 행정상으로 유대에 귀속되어 힐카누스(힐카누스)가 치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코 유대에 동화되지 않았으며 오랜 적대감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이저(Julius Caesar,가이사)가 암살되고 위기가 닥치자 안타파터(안타파터)와 그의 아들들은 세금을 열성적으로 거두어 들여 카시우스(Cassius)의 새 정권에 바침으로써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티파터(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Herod)은 왕위보장 밀약서를 받고 유대지방 수세관의 직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안토니(Anthony)가 부루터스(부루터스)와 카시우스(카시우스)를 빌립보(빌립보)에서 패퇴시키자 아시아는 또 다시 새로운 정권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헤롯(헤롯)은 안토니(안토니)에게도 뇌물을 주며 새로운 충성을 맹약하였습니다.

한 때, 페르시아제국(페르시아제국)이 지배하던 동부지역은 로마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파르티아(Parthians)족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BC. 41년, 그들은 예루살렘(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아리스토틀로스2세(아리스토틀로스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Antigonus)를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안티파터(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헤롯)은 힐카누스(힐카누스)의 사후 자신이 계승하려 했던 왕위를 눈앞에서 강탈당하자 로마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로마에서 안토니(안토니)의 환심을 얻은 헤롯(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파르티아인(파르티아인)이 로마군(로마군)에 의해 쫓겨간 후, 헤롯(헤롯)은 로마군(로마군)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며 예루살렘(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좌에 취임하였습니다.

헤롯(헤롯)은 BC. 37~AD. 4년까지 유대(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높은 유대인(유대인)의 왕(왕)이 탄생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예수(예수) 탄생(탄생)시기(시기)에 베들레헴(베들레헴)에서 탄생(탄생)한 영아(영아)를 모두 살해(살해)함으로써 역사(역사)적으로도 악명(악명)이 높(높)아 있었(있)었습니다. 헤롯(헤롯)의 영아살해(영아살해)가 성경(성경) 고증(고증)외(외)에 특별한 증거(증거)자료(자료)가 발견(발견)되지 않았(없)으나 그의 잔악(잔악)성(성)만큼은 널리 알려(알려)져 있었(있)었습니다. 아구스도(Augustus)황제(황제)는 열명(열명)의 아내(아내)를 거느린 헤롯(헤롯)의 아들(아들)이 되는 것(것)보다 그의 돼지(돼지)가 되는 것이 낫(낫)다고 논평(논평)할 정도로 헤롯(헤롯)은 친족(친족)살해(살해)가 많(많)았습니다.

헤롯(헤롯)의 번영(번영)기(기)인 BC. 25~14년(25~14년), 로마(로마)(가이사)와 유대(유대)인의 관계(관계)에서 중도(중도)적인 노선(노선)을 취(취)하며 유대(유대)신하(신하)들의 호의(호의)를 얻(얻)고자 노력(노력)하였습니다. 전(전) 국토(국토)에 걸쳐 도시(도시)를 건설(건설)

하고 요새와 목욕탕, 공원, 시장, 도로와 헬라문화의 사치스러운 문화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아구스도 기념 세바스터라는 새 이름으로 명명하고 스트라톤 망대에는 열개의 망대를 가진 성벽과 제방으로 보호되는 항구도시를 건설하여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헤롯왕 18년(BC. 20~19),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자재는 제사장들이 1년반 동안에 걸쳐 건축하였으나 성전의 복잡한 제건물과 구조는 알비누스(Albinus, AD.62~64)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10년후 AD. 70년 디도(Titus)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죽기전에 그가 누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에 도전하는 한 분이 세상에 탄생하였습니다. 아무도 애곡하는 이 없는 헤롯왕의 죽음으로 신구약 중간시대의 막은 내려가고 신약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신구약중간사 : 유대분파들(Jewish sects)

I. 바리새파(The Pharisees)

바리새는 "분리된자"라는 의미로 요한 힐카누스의 통치시대(BC. 134~104)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바리새인보다 헬라화 되었던 사두개인 사이에는 분명한 적대감정이 선명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리새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준수로 헬레니즘의 타락한 영향으로 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종교적이며 율법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 정결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데 보다 철저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음식, 음료등을 구매하거나 받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하고 그들 자체를 경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의식(儀式)에 대한 모독을 두려워 하였으므로 자신의 집에 죄인을 초대하는 일은 있어도 자신이 죄인의 집에 방문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죄인의 옷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예복을 입힌 후 식사를 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문화의 변화속에서도 율법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구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율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BC. 1세기, 힐렐과 샴마이라는 바리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수할 학파를 창설하였습니다. 힐렐학파(Hillel)는 온건주의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였고 유대 전통주의와 양립할수 있는 로마의 법을 수용하였습니다. 샴마이학파(Shammai)는 강성주의로 완고한 입장이었으며 로마에 대한 저항으로 AD. 70년경 예루살렘 파괴를 초래한 열심당(Zealots)의표현에서 나타났습니다.

탈무드에는 할렐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서로 상치되는 316가지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교훈은 율법을 해석해 온 전통은 율법 자체와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이 교훈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성문 율법" 혹은 토라 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oral law)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전율법이 성문율법보다 평민생활에 더욱 가깝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무드의 미쉬나(Mishna)에서는 구전율법이 성문율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의 제목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주의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전승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15:3). 희생을 치르면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불결함으로 부터 지켜 나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교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 아

리마데 요셉, 가말리엘, 다소의 사울과 같은 인물이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바리새 귀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야 말로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파(사도행전26:5)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주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자기도취나 영적 자만이라는 경고의 사례일 것입니다

- ① 구약 율법의 연구와 준수를 중요시 하며 동시에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였습니다
- ②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신앙하였습니다
- ③ 예정론을 신앙하였습니다
- ④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며 율법의 내면적인 뜻보다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하여 외식화 되었습니다⑤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II. 사두개파(The Sadducees)

"사두개"는 "의로운"이란 의미의 "싸다킴"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기원은 솔로몬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사무엘하8:17)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과 대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정치 지도자와의 결탁을 통해 부와 권세의 직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성전관리와 의식의 집행은 그들이 가진 특별한 임무로서 대중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있으며 대중들과 사귀거나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시도들은 토라와 십계명에 대한 권위의 개념을 제한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 번번히 거부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며 성전관리자들이면서도 부활, 영, 천사를 신앙하지 않았습니다(마가복음12:18,누가복음20:27,사도행전23:8) 그들의 신앙은 주로 부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제도와 종교제도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를 환영하였지만(마태복음23:15)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의 우월성으로 그것마저도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과 예루살렘 귀족가문들만이 사두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확장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사두개파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유대주의는 그 연원을 바리새파에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 ① 구약성경 이외의 모든 조상들의 전통과 해석을 부인하였습니다
- ②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고 내세의 존재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 ③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뢰하였습니다
- ④ 구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합리주의와 현실주의에 만족하였습니다
- ⑤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치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Ⅲ. 옛세네파(The Essenes)

옛세네파와 바리새파는 마카비 혁명중 헬레니즘에 반대하여 정통주의를 표방하던 지도자들에 근원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역사적 유대주의 중 엄격한 정통주의를 고수하였으나 그들이 유대공동체 자체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에 의해 주관하던 성전에배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중요한 종교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여 존중하였고 죄인들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죄인들의 기득권을 탐하기도 하였습니다.

필로, 요세푸스, 플리니와 같은 고대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생활을 타락시키는 영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던 분파들을 옛세네파로 칭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해 북부 근처 쿨란에 근거지를 두고 금욕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옛세네파라는 용어는 실제 생활방식에 있어서 다양했던 여러 금욕주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였습니다. 플리니는 옛세네파들이 여자를 멀리하고 결혼은 물론 수도사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요세푸스는 옛세네파가 결혼의식이 있었고 쿨란에서 발견된 유물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자들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엄격하고 청빈한 삶을 영위한 옛세네파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경전과 종교서적을 연구하였으며 공동체가 자급자족 하기 위해 육체노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공동소유의 재산운영과 엄격한 훈련이 감독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옛세네파 사상을 더욱 강화하여 유소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예제도와 전쟁은 이들에게 거부되었습니다. 옛세네파인들은 개종자를 환영하였습니다. 신입자는 옛세네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옛세네파는 4,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필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플리니는 엔게디 북방향에 공동체가 있어서 쿨란공동체와 교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어떠한 옛세네파 거류지에서도 환영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역마다 거주지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그 역사적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개혁운동이 그러하듯이 옛세네파에 대한 명확한 근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로는 모세가 그 공동체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요세푸스는 그들의 오랜 조상때부터 옛세네파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근거는 미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옛세네파 운동은 기독교 생성이전 유대교의 부패와 죄악에 저항하였던 세력인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떠나서 쿨란지역과 같은 곳에서 영적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옛세네파인들은 자신들만을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이스라엘로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던 종교관습과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옛세네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신중하게 준수하고 있는 옛세네 중심의 생활이 성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옛세네파에 대한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훈련과 율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문서에는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도 끌어내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여 정통 바리새인들까지도 이들을 극단적으로 보았습니다(마태복음12:11). 옛세네파가 유대인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약성경과 유대 탈무드의 기록없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옛세네인들이 천민과의 교제를 의식상 불결하다고 생각한 반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마태복음11:19, 누가복음7:34)과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므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마태복음12:1~12, 마가복음2:23~28, 누가복음6:6~11, 14:1~6).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자행된 온갖 악에 대하여 비난하고 성전파괴를 예언하셨지만 예배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부활후에도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사도행전3장).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가 기독교 사상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하지만 시초부터 기독교는 금욕주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옛세네인들이 배척하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IV. 그 외의 분파들

① 헤롯당

신약성경에는 헤롯당(마가복음3:6, 마태복음22:16)과 열심당(누가복음6:15)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당은 영향력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로 헤롯왕을 지지하며 로마에 대하여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야 운동에 반대하고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예수를 가이사에게 불충성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마가복음3:6, 12:13, 마태복음22:16).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헤롯당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종교집단이 아니라 헤롯대왕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정치집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적 기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사두개인들과 동등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들로 갈릴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마가복음3:6). 정치집단인 헤롯당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지도 계급인 바리새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② 열심당

열심당은 헤롯당과 정반대의 사람들로 어떠한 희생속에서도 로마에 대항하며 독립을 꿈꾸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의 명칭은 헬라어 "젤로테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누가복음6:15, 사도행전1:13). 요세푸스는 이 명칭을 유대반란시(AD. 66~73) 활동한 일파에 한하여 적용시켰으나 로마 총독인 쿠이리니우스(Quirinius) 때(AD.6) 갈릴리의 유다가 반역을 일으킨 운동(사도행전5:37)을 그 기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명칭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의 별명으로(마태복음10:4, 마가복음3:18) "셀롯당"이라고도 불리워 졌습니다(누가복음6:15, 사도행전1:13). 시몬은 극단의 애국단체였던 셀롯당(Zealots)의 당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마가복음3:18, 누가복음6:15). 한편 열심당은 로마에 대해 세금을 회피하였으나 예수님은 다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마가복음12:17). 예수님과 열심당과의 결정적 차이는 인간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엄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때로는 폭력을 정당화 하는 반면,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마태복음5:43~48, 누가복음6:27~28, 32~36). 열심당의 광신주의는 AD. 70년경,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디도의 군대가 파괴하는 전쟁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열심당의 희생은 그들이 믿는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③ 서기관(율법자)과 랍비

독립된 당파는 아니었으나 서기관(율법자)과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율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서기관 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각 회중들(Congregations)마다 자신의 사본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율법을 대필하는 전문가들이 생겼고 이들은 성경학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유래였습니다. 서기관의 대표적 인물은 에스라(느헤미야8:9)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교사, 교사들로 불리워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갈릴리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신약성경에는 서기관이 율법학자, 권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서기관은 제사장파(사두개파)(마태복음2:4, 21:15)와 바리새파(마태복음23장)와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마가복음2:16),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사도행전23:9)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이론적 발전, 율법의 교수, 율법의 적용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랍비 교리에 의한 유대교 지도자가 되었으며, 후에는 현인, 랍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파와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전통을 무시했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마가복음2:16, 마태복음15:2, 마가복음7:5). 신약시대 이후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의 전문교사와 법률문서의

구성자가 되었으며 현인과 랍비들은 율법학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교수법은 암기식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가르치다는 의미의 "쇼나"는 "되풀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서기관들이 사용하였던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요한복음1:38,4:31,9:2,마가복음9:5,11:21,14:45).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존경의 표시로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랍비는 "나의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에서 "디다스카로스"로 번역되어 "선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태복음23:8,요한복음1:38).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고 금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마태복음26:25,마가복음9:5,11:21,14:45).

4. 신구약중간사 : 회당(Synagogue)과 성전

유대교의 발전에 회당(Synagogue)이라는 장소는 회집의 중심지로서, 신앙적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사도들의 복음전파와 신약교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 회당(Synagogue)

I. 회당의 명칭과 역사

"회당"(Synagogue)이라는 명칭은 "수나고게"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종교적인 목적,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칭하였습니다(사도행전6:9)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마태복음4:23) 회당이란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모이는 장소", "예배와 교훈의 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의 역사를 모세의 시내산 성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동식 성전의 역사로 본다면, BC. 586년 바벨론 포로생활과 함께 발생한 회당의 역사는 사실상 고정형의 역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1세기에는 이러한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480여개나 있었고 지역까지 합하여 1000여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II. 회당의 역할

구약에서 종교와 교육은 일체의 관계였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자녀들과 청년들의 교육에 가장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육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는 대부분 "미슈나"를 공부하였는데 성인들은 토라(Torah)를 읽었고 쉘마(Shema)와 같은 성경구절을 암송하였습니다 회당은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사, 형사, 종교상문제를 판결하는 법정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마태복음10:17, 누가복음12:11) 그 리스와 로마지역의 회당은 종교적인 용도 외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집과 같은 역할도 겸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III. 회당의 조직관리

수세기 동안 회당관리와 역할은 변경되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 공동체의 권위가 장로에게 있었으며(창세기50:7)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행사와 행정은 레위지파 제사장 반열에 속한자들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정치 붕괴 후 헬레니즘 시대로 부터 회당조직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회당은 평신도 단체로서 바리새파들에 의해 발전하였습니다 회당조직은 회당장, 핫잔(Hazzan), 랍비, 평신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회당장이란 명칭은 AD. 1세기경, 유대교의 관리의 영어

로 적용되었으나 5세기경에는 극히 배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집회 주재, 회당건물의 유지, 보존, 운용책임과 회당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누가복음4:13,13:14) 회당장은 토라의 낭독, 예언자들로부터의 낭독, 설교와 같은 일들을 분담해 줄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13:15) 핫잔(Hazzan)은 서열 2위로 종교적 회의의 수장역할, 회당장의 조수, 회당장의 서기를 맡았으나, 점차 기도를 암송하는 일과 성서를 낭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랍비제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직자의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중세 말엽 랍비는 탁월한 직위와 권위를 가졌지만 현대는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 유대교 풍습을 위한 대변적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V. 회당의 건축

초기때의 중동지역에 있던 회당의 건축술은 헬라시대와 그 이후의 로마시대 때에 유행한 헬라적인 고린도식의 설계형태와 비슷하였습니다 유대교 구전에 의하면 모든 회당의 건축물은 모든 회중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에 관한 율법적 전승은 탈무드 문서중 하나인 "메길라"(Megillah)서의 서론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회당의 건축양식은 AD. 1세기경 확정되었고 회당은 시장의 사각 광장 중심지에 세워졌습니다 유대교 회당은 정면부분이 장대하고 장식이 현란한 표준적인 회당형태가 되었으나 예술적인 상징형태의 크기와 비용은 회중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회당 건축술은 선명한 발전이 없었으며 디아스포라(Diaspora)의 각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들의 상태에 따라 취사 선택적인 절충식의 회당 건축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독일,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고딕양식과 로마네스크(Romanesque)양식의 교회건축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계 유대인들은 장대한 규모의 아라베스크(Arabesque)양식이 원형 천정과 지중해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회당들은 모두 고대 전통과 상징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V. 회당의 예배

이스라엘은 회당의 예배에서 여호와의 유일신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세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배의 핵심은 쉘마(Shema)를 낭송하고 감사문들을 낭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중예배의 실제적인 핵심은 히브리어로 된 완전한 토라(Rorah)를 봉독하는 행위였습니다

- ① 기도예의 부름(신명기6:4~9,11:13~21,민수기15:37~41을 낭독함)
- ② 기도(대표자의 기도,회중은 아멘,고린도전서14:16), 가장 의미있는 기도문은 18개의

축복기도

- ③ 성경봉독과 간단한 해석(모세오경을 154주로 나누어 매주일 읽도록 함, 누가복음 4:21)
- ④ 축도(민수기6:24~26, 제사장이 하되 없을 때에는 일반성도 낭독)

(2)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의미

① 성전의 존재 의미 :

성전 자체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로서 신앙의 확신과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성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모형이며 예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구속사 전개에 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죄인이 하나님앞에 나아오는 방법과 절차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와 비교해 볼 때 간접성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② 성전의 역사 :

성전의 역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Tebernacle)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성전은 고정성을 갖는 점 외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번 건립되었으나 성경에는 에스겔이 환상중에서 본 성전까지 모두 네개의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시대적 구분은 솔로몬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과 신약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③ 성전의 단계적 제한성의 의미 :

유대교가 가진 배타적 장소를 설명하며 죄 지은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것의 제한적 요소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전건물은 6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고 각 구획마다 한 단계씩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㉞ 이방인의 뜰 : 이방인들에게 허용한 유일한 장소로 성전경내 외곽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㉟ 성전, 벽 : 90cm의 담으로서 이방인들이 넘어설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㊱ 여인의 뜰 : 이방인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유대 여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㉔ 이스라엘의 뜰 : 여인의 뜰보다 3m 높은 곳으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 ㉕ 제사장의 뜰 : 이스라엘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 ㉖ 하나님의 전 : 제사장의 뜰보다 2m50cm 높은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개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때에 자신의 임무를 위해 들어갔으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배제하였던 것은 유대인의 선민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계급별로 나누고 출입을 금지하여 유대교 체제의 엄격한 신분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장소 가까이에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 여러가지 경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④ 성전에서 교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과 회개한 인간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 졌는데(마태복음27:51),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히브리서 10:19~20)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마서10:12)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갈라디아서3:28)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차별(요한계시록1:6) 등 모든 신분적 차별이 철폐된 것이었습니다

5. 신구약중간사 : 외경(外經, Apocrypha)

외경이란 BC. 250년경 기독교 시대 초까지 기록된 것으로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유대의 문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반면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 유대인들은 외경서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포함시켰으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I. 외경의 분류

- ① 역사서 : 마카비상, 마카비하, 에스드라상
- ② 전승서 : 에스더 첨가서, 수산나 세 젊은이의 노래, 벨과 뱀, 유딧과 토비트
- ③ 예언서 : 바룩, 느넌세 기도서
- ④ 묵시서 : 에스드라하
- ⑤ 교훈서 :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예레미야 서신

II. 기독교와 외경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외경이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 사상과 생활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① 외경은 예수와 초대교회가 인정한 구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되는데 유대적, 전통적 구분에 외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외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인정하거나 인용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 ②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였던 필로, 요세푸스와 같은 유대학자들도 외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드라하에는 오늘날 히브리성경에 상응하는 24권의 책과 다른 70권의 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에스드라하14:44~48) 이들 외경들이 회당과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구약성경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일 뿐, 그 이상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 ③ 히브리정경에 정통한 교부들도 정경과 외경에 선명한 구분을 지었습니다.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예루살렘의 씨릴(Cyril), 제롬(Jerome)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④ AD. 1456년, 트레نت(Trent)회의에서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토비트,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예레미야서신포함), 마카비상하, 에스더 첨가서, 다니엘의 첨가된 것(수산나, 세 젊은이의 노래, 벨과 뱀)이 정경으로 선포되었는데 카톨릭학자들은 이것을 전정경(구약)에 대한 후정경(외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⑤ 외경은 비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부정확도와 시대착오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정경의 예언 정신이 불명확합니다. 그것이 정경에 비하여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개혁신교회에서는 외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영국교회도 참고서 정도로 사용할 뿐입니다. 한편, 외경외에 성격상 외경과 유사하나 정경과 외경 또는 랍비문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BC. 200~AD. 200년 사이에 쓰여진 유대교 문헌들이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위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 그리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종파적 성격의 문헌 및 고대세계의 다양한 문헌들이 초대교회와 신약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줍니다.

Ⅲ. 외경

(1) 에스드라상

요시아왕(BC.621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월절 축제에서 시작하여 에스라(BC.444년) 시대에 율법의 공적인 낭독으로 끝나는 구약역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대하33:1~36:23과 에스라서 전체, 그리고 느헤미야 7:73~8:12의 내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경에서 첨가된 부분은 에스드라상 3:1~5:6의 세 근위병 이야기입니다.

다리오왕의 경호원이었던 세 근위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포도주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였고, 두번째 사람은 왕이 지배자로서 종들에게 궁극적인 힘을 가진 강한자라고 하였으며, 세번째 사람인 스룹바벨은 인간을 낳는 여성이 가장 강하나 진리야 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승자를 결정하는 다리오왕이 스룹바벨의 답을 택하였고, 그의 소원 한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재건을 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다리오왕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스드라상은 역사적이거나 보다는 진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도덕적 편집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에스드라상이 BC. 150년경 애굽에서 편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벨게이트역에서는 에스드라3서로 불리우며 70인역의 루기아누스 리센션(Lucianic recension)사본에서는 에스드라하로 부르고 있습니다.

(2) 에스드라하

바벨론에서 에스라에게 임하였던 일곱계시를 기록한것입니다(3~14장) 주로 이스라

엘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인간의 길을 공의롭게 하려는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메시아의 강림과 축복의 시대를 대망하는 유대인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서론(1~2장)과 결론(15~16장)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기록된 보충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D. 1세기 말에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며, 2세기 중엽에 헬라어의 서론이 첨가되고, 3세기 중엽에 결론부가 기록되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동방역본 및 라틴 필사본들은 에스드라하의 주요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게이트에서는 에스드라4로, 독일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의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3) 토비트

BC. 2세기경 아람어로 기록된 종교적 이야기로 유대인의 신앙과 온유한 도덕적 교훈을 조화시켰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토비트는 갈릴리 지방 납달리의 후손으로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스와 함께 살만에셀(BC.721년, 열왕기하18:9~12)에 의해 니느웨로 잡혀갔습니다. 유배지에서 토비트는 유대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였으나 시력을 잃게 되자 아들, 토비마스를 메대지방의 라기스에게 보내 채무자로 부터 빚을 받아 오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토비마스를 엑바타나로 데려가 거기에서 일곱번 결혼한 과부와 사랑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전(前) 일곱 남편은 악령에 의해 혼인 첫날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토비마스는 사실상 처녀의 몸을 갖고 있는 그녀와 결혼을 하고, 물고기의 내장을 태워 그 연기로 악령을 쫓아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쓸개즙으로 아버지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비트는 산헤립을 사르곤2세가 아닌 살만에셀의 아들로 기록하거나(1:15), 니느웨 성읍이 나모폴라살과 키아자레스(Cyazares)가 아닌 느부갓네살과 아하수에로왕에 의해 점령한것으로 기록하는 등(14:15) 역사적 오류가 발견되고, 거리상 2주의 거리를 하룻길 여행거리로 기록하는 지리적 오류가 발생하여 기록의 신뢰도를 낮추었습니다.

(4) 유딧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이후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에 의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딧은, 유대과부 유딧이 어떻게 베를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앗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로 부터 유대민족을 구출해 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딧은 위험을 감수하고 홀로페르네스의 막사로 들어가 그를 유혹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칼로 목을 베어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앗시리아를 이기어 승리를 주신 증거로 그 목을 취하여 베를리아로 가져왔습니다. 유딧은 야엘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것에 필적할만한 이야기였습니다(사사기4:17~22). 이 허구적인 이야기는 마카비혁명 이후 유대인들의 애국적 분위기와 종교적 헌신을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만이 구원을 가져오며 이것은 율법에 순종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에스더 첨가서

BC. 1~2세기에 이집트 유대인이 정경에 있는 에스더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섯부분에 107절이 하나님, 기도, 유대교에 대한 참조문으로 첨가되었습니다. 첨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헌신, 신앙, 경건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첨가서들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교황 다마스스로 부터 성경의 표준라틴역본의 준비를 위촉받은 제롬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서의 히브리 본문을 번역한 다음 헬라어와 라틴 필사본에 있는 첨가부분을 이 책의 끝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정경의 어느부분에 속하는지 각주를 달았습니다. 후의 필사자들이 부주의 하게 히 해석 주(註)를 빠뜨린 결과 본질적으로 혼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혼돈단계는 중세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스테판 랑톤(Stephen Langton, 1228년 사망) 때 라틴성경을 쉽게 인용하기 위해 장의 구분을 하였습니다. 후기의 자료들이 이미 있던 자료에 연속되어 형성된 것 처럼 에스더서에서 정경적인 자료와 외경적인 자료를 연속해서 각 장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6) 솔로몬 지혜서

BC. 150~50년,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광범위하게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솔로몬 지혜"라는 가명을 붙인 하나의 윤리적 교훈서를 편집하였습니다. 이집트 유대인들의 회의주의와 물질주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주의 진리와 우상숭배의 우(愚)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의를 쫓으라고 권면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적 교훈은 구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알렉산드리아를 풍미하고 있던 헬라철학을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몸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있는 신구약성경과는 달리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몸이란 단순한 지상의 장막일 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9:3)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사상은 없고, 영혼선재설(8:19~20)과 불멸성(3:1~5)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 집회서, 또는 시락의 자손, 예수의 지혜서

지혜의 덕을 찬양하고 있는 윤리적 교훈집인 집회서는 BC. 200~175년경, 예루살렘의 경건한 학자인 시락의 자손 예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손자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론이 첨가되었습니다(BC.132년경). 외경중에서 가장 긴 책으로 저자가 알려진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정경의 잠언과 같이 집회서는 먹는것, 가족관계와 삶의 주제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단편은(44~50장)은 찬양, 예녹, 노아, 아브라함, 스룹바벨, 느헤미야와 동시대인이며 그의 친구인 대제사장 시몬까지 위대한 신앙인에 대한특성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8) 바룩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서기(예레미야32:12)로 알려진 사람이 기록한 바룩서는 BC. 1세기경 혹은 그 이후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혼합물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정본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나 히브리원본의 기록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1:1~3:8).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은 유다가 지혜에 태만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시적인 서술이 기록되었습니다(3:9~4:4).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찬양되었으며(4:1~3) 제3부 역시 시적인 서술부로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은 패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승리를 외치며 돌아오리라! 바룩서는 기원에 있어서 의심이 가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영감을 불러 일으킨 책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의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으며 회당예배 의식에 사용되었고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읽혀졌습니다.

(9) 예레미야 서신

BC. 300년, 미상의 작가가 예레미야11:10에 근거하여 하나의 설교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이나 은 또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로 알려진 이 설교는 히브리어(혹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나 현재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과 많은 헬라와 시리아 필사본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룩서와 연관시켜 대부분 영어 번역본 외경에서는 바룩서이 제6장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룩서와 관련성이 없으며 어떤 고대 사본에는 애가서 다음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전형적인 헬라 유대적인 기록입니다.

(10)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다니엘서3:23과 3:24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 BC.1세기~2세기경, 익명의 저자들이 정경의 다니엘서에 삽입되는 세개의 첨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대헬라어와 라틴어 번역본들은 이 첨가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첨가부분이 정경본문에서 분리되어 외경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첨가부의 첫부분이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대 혹은 마카비 반란시대에 경건한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풀무불이 격렬하게 타고 있는 고통의 시간에 아자리아는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맹렬한 화염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길을 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는 시편148편, 응답송으로 시편136편과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1) 수산나

BC. 1~2세기경, 세계의 위대한 단편문학으로 인정받은 수산나 이야기는 도덕성과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며 70인역성경에서는 다니엘서(정경)의 서두에 나오는 반면 별게이트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아름다운 수산나는 바벨론에서 남편 요아킴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음욕적이고 부도덕한 두 장로가 수산나와 성관계를 맺기를 원하였으나 거절하자 간통죄로 음해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산나는 간통죄목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고 수산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 증인 심문권을 요구하였고 다니엘은 두 장로에게 어디에서 각각 간통하였는지 따로 질문하자 그들은 불일치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두 행악자의 음모가 밝혀져 그들이 오히려 사형을 당하였고 수산나는 무죄석방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높였습니다.

(12) 벨과 뱀

BC. 1세기중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헬라어번역자가 다니엘서에 첨가시켰습니다. 70인역에서는 다니엘서 후편에 두었으나 별게이트에서는 수산나 이야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벨의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벨과 뱀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제사의식을 문제삼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① 매일 많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많은 수의 양을 먹는 바벨론의 신 벨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물들이 매일밤 없어졌기 때문에 고레스왕은 벨이 살아있는 신으로 벨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확신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로서 제물을 모아둔 신전문을 봉인하고 신전 마루에 재를 뿌려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물은 없어졌으나 마루바닥이 발바닥으로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밤마다 제사장들과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비밀통로로 들어와 제물을 훔쳐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로 벨이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왕은 사제들을 죽이고 신전을 헐어버렸습니다.

② 왕은 거대한 뱀에게 예배하라고 다니엘에게 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거절하며 칼과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뱀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왕이 허락하자 다니엘은 역청과 비계와 머리털을 섞어 끓여 뱀에게 먹였고 뱀은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다니엘의 손에 죽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버렸습니다.(다니엘6:1~28과비교)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지만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

니다 한 천사가 유대의 하박국으로 하여금 음식을 가지고 바벨론 다니엘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에 다니엘은 구출하고 대적자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넣어 그들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13) 므낫세의 기도

BC. 1세기경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기록한 유대의 왕 므낫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서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의하면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기가 통치할때에 저지른 우상숭배에 대해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3:19에는 므낫세가 기도하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서는 고대 유대의식서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1~4)와 죄인들을 향한 자비(5~8), 개인적인 고백(9~10), 사죄에의 탄원(11~13), 은혜에의 간구(14), 영광의 찬미(15)의 순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배의식 형태의 모델이자 종교적 경건의 순수성으로 전체 외경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 마카비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위에 즉위한 BC. 175년에서 마카비 일족중 한 사람인 시몬이 세상을 떠난 BC. 135년까지의 40년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BC. 10년경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역사서로 안티오쿠스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과 유대의 독립을 준 마카비 전쟁에 대한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에 저항하여 혁명을 일으켰던 제사장 맛다디아의 세 아들 유다(3:1~9:22)와 요나단(9:23~12:53)과 시몬(13:1~16:24)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 대항하였던 소수집단의 운명에 관한 역사기록으로 기독교 이전의 혼란스러운 유대교 역사를 권위있게 취급한 자료로 귀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탄절과 동일한 계절에 지키는 하누카(Hanukkah)는 마카비 반란의 결과로 얻어진 성전 재봉헌을 기념한 것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수전절(봉헌절 축제)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요한복음10:22)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반부를 "고대문물기"(Antiquities)를 구성할때 원천적인 자료로서 사용하였습니다

(15) 마카비하

마카비하는 마카비상과의 연속성이 없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마카비상권 1~7장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마카비의 공적보다 하늘의 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관심을 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주재성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며 바리새적인 교리들

을 반영하고 있는데 종말론의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BC. 175~160년의 짧은 역사를 담고 있는 마카비하의 기록자는 익명이나 그가 구레네 사람 야손 (2:19~230이 기록한 5권의 역사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압축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손의 실존가능성은 불분명하였습니다 마카비하는 BC. 120년 AD. 1세기경의 기록으로 추정하며 수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신약성경의 형성사

1) 개요

신약성경(新約聖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그를 지지하고 신앙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독교의 모태를 이루는 경전입니다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예수님의 족보와 삶과 행적을 기록한 4대 복음서와, 사도들의 활동과 세계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여러 지역과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정통신학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글들은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지역에 따른 언어 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고대 그리스어의 방언의 일종인 코이네(koine, 공동)로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로 사도행전을 제외한 다른 4대 복음서는 예수그리스도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사도행전1:8)으로 부터 오순절성령사건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바울의 세계선교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21권의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가운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성경중의 다이아몬드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리적 핵심을 다루고 있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삶과 실천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이것은 성경의 모든 미래와 방향점, 성경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마지막에 담은 결단을 촉구하는 메세지인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기록한 것이며 교회와 교회내의 분쟁, 이단종파에 관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후 130년~180년경 전후로 전 세계의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모여 오늘날의 성경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발견된 수많은 문서와 서신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였으며 그것은 4가지로 정의 되었습니다

1. 사도가 직접 기록하거나 혹은 사도와 직접 만난 사람이 기록한 문서
2.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문서
3. 다른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는 사항이 없을 것

4.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적인 정통교회(Catholic Church)에서 사용할 것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내부에서 조차 성령의 뜻에 의한 구별이 쉽지 않았고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일에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등을 두고 오늘날 기독교와 로마가톨릭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구약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성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면,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만 성경으로 인정하거나, 사도 바울서신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르키온주의(혹은 마르시온주의)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비해 구약성경은 70인역이 주전 200년경에 확립되었고, 전체적으로도 주후 60년경에 구약성경의 정경 목록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외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경과 외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전들로 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마서(토마스의 편지)나 베드로복음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로 내용의 구성과 적합성이 신뢰성이 없는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단과 교파는 다른 성경과 서적들을 탐닉하기도 하였는데 몰몬교와 조로아스터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2) 신약성경의 형성사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성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 께서도 구약성경을 여러곳에서 인용하셨으며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권위와 함께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제 1세기 기독교 시대를 통해 사도들의 증거는 단지 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경우 서면으로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신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구두로 교훈을 베풀었으나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있지 못할때, 필요에 따라서는 서신에 의해 그들의 교훈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에 보낸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등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제 1세기 60년대에는 바울이 작성한 몇개의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

이 여러 개인과 교회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그다지 시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승리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어서 이를 직접 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순절로부터 약 30년이 가까워 지자 이러한 직접 목격자들이 점차로 희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통역자였던 마가를 초대하여 베드로가 그의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음에 관한 마가의 기록이 나타난 후, 의사이며 바울의 선교여행 동역자였던 누가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회의 역사를 그 시초로 부터 정확하고 질서있게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2부의 역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 지방에서도 이곳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들에 의해 보존된 몇가지 특징있는 소재들을 포함하면서도 이방인들이 설교에 특히 중점을 둔 복음서가 나타났는데 곧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누구든지 이를 소유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개인들과 공동체들에 의해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의 정경들은 몇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형성을 보게 되었고 정경의 공식인준은 교회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후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에 따라 그노시스파와 마르시온파들의 이단적 주장이 나오는 등 진리를 헤치는 일련의 이단들이 등장함에 따라 정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후 140년경, 마르시온은 바울만을 유일한 사도적 권위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바울주의 입장에서 신약성경을 편집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정경 형성의 첫 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경(正經)이란 헬라어로 표준이란 뜻으로 마르시온의 정경편집은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구약성경과 복음서 및 사도들의 서신들이 예배중에 읽혀지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때로 가경(假經)들도 소개됨에 따라 성경의 정경이 확정되기를 소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문서들이 유실되었고 일부분만 보관하게 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약성경의 편집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편집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후 170~180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며, 1740년 이탈리아 무라토리(Murator)가 밀란의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라 무라토리 경전(Muratorian Canon)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라토리 경전에는 4복음서, 야고보서, 사도행전, 바울의 13서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요한1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세기말, 이레니우스의 신약성경에는 4복음서, 바울의 13서신, 사도행전, 요한 1서, 요한 2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헤르마스의 목자서신(후에 경전에서 제외됨)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2세기경의 경전의 기준은 사도성, 참교리, 광범위한 유포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3세기에 와서 오리게네스(주 후254년경 사망)는 신약성경의 날권을 논란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가짜(notha)와 성서(Scripture)와 경전(Bible)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세기경, 유세비우스는 당시에 경전에 된 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은 4복음서, 히브리서, 바울의 14서신, 요한 1서, 베드로전서와 논란이 있었지만 교회내에서 읽혀졌던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등 27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결정은 주후 382년, 동방교회가 로마 전체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작성하고 395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 전권과 목차가 확정되었습니다

캐논(Canon)은 희랍어로 "곧은 장대", "지팡이" 라는 뜻으로 표준, 근본원리를 기록한 책의 목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성경의 정경에 관한 결정 기준은 역사적으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영적으로 그 감화력이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 정경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문서들이 사도적인가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즉, 사도 자신이 기록한 것이거나 사도의 동역자가 쓴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마가의 서신이 포함된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그 문서들이 사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판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바나바서, 헬마스의 목양자, 클레멘트 서신, 솔로몬의 지혜 등이 사도적 권위의 결여로 제외된 것입니다

2. 사도 이후 300여년간 많은 성경책들은 정경의 인준도 없이 초대교회에 널리 유포되었고 회람식으로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읽혀졌던 성경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회의 인준으로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으로 읽혀 내려온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경으로 인정한 절차를 거친 것 뿐이었습니다

3. 동방교회에서는 주후 367년,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공적 서신에서 처음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밝힌 바 있으며 "사도들의 교훈"

(Didache) 과 "목양자" (Shepherd) 는 정경과 구별하여 성문서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로서 382년 로마 전체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작성하고 395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과 목차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서방교회도 397년, 어거스틴의 주도로 오늘날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4. 이러한 신약성경의 확정에 있어서 당시 많은 이단자들에 의해 유사한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으나 그들의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얼마가지 않아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유다복음서와 같은 이단서들이 일시적으로 논쟁되고 있으나 그러한 저급한 책들은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무가치한 논쟁인 것입니다

3) 신약성경 목록과 주제

(1)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주후 50~70년경, 세관원 출신 마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경 첫번째 경전입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에는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의한)이란 표제어가 있었습니다 그후 기쁜소식, 즉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을 첨부하여 마태복음이라 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하나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고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성과 혈통성을 이어나갔습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연대적 일정과 시간순으로 정리한 전기 (Bigoraphy)나 어록(Analects)이 아닌 것입니다 후대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신앙고백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기자들이 특별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2)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주후 67~70년경,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통역자인 마가에 의해 기록한 신약성경 두번째 경전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핵심인물로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4~69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애를 밝힘으로서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록했을 것입니다

힘있고 선명한 문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보다는 사역중심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그 순간 까지 죄인들을 위해 사역 하심을 부각시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에 반하는 유대지도자들의 격한 상황을 고난과 시련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상당부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본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종으로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주후 58~63년경, 바울의 사랑받는 의원(골로새서4:14) 누가에 의해 기록된 신약성경 세번째 경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로 대표되는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쉽게 이해하도록 역사적 주체성과 문학적인 우수성을 지니며 역사적인 순서와 배열로 정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수태고지(受胎告知), 탄생과 유아기, 세례요한의 출현등을 소개하며 완전한 인성을 지닌 예수를 역사적인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독자로 하는 누가복음의 목적과 사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인간적 고뇌와 절대적 구원관속에 그들이 결단해야 할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주후 85~90년경, 갈릴리 어부출신(누가복음5:10)으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 사도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인물인 요한(사도행전3:1)이 기록한 신약성경 네번째 복음서입니다. 헬레니즘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사상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이심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비교적 긴 강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제로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주후 61~63년경, 사도 바울의 2~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방문과 로마 압송을 동행하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함께 구성된 한권의 성경이었으나 주후 2세기경 내용을 중심으로 분리하여 사도행전이라는 별개의 경전으로 독립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로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오순절 성령사건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로마 정부, 유대 율법주의, 헬레니즘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전도, 설교, 토론, 권징에 관한 폭넓은 신학 자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종교였던 소수민족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인 동시에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가 가진 세계화를 이용하여 복음이 빠른 속도로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과정과 그 속에서 로마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기독교는 더욱더 확장되어 이미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6)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날무렵(로마서15:19)인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기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게 하며, 또한 사도들로 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체계를 교정하고 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지만 복음서에 가까운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즉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 핵심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방대한 분량을 한권으로 집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7) 고린도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예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양한 견해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내의 신학적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신학적 사상을 정립한 신학교리 또는 조직신학적 정서에 근접하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내외의 분쟁과 현실적 고민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을 실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석한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8) 고린도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변론하고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였으며, 교회내 분쟁의 중심에 서있던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논리적인 방향으로 성도의 생활을 지도해 나갔다면, 고린도 후서는 감성적인 호소로 지도한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9)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연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대략 세가지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1차전도여행이 끝난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전이라는 설이 있고, 둘째는 제 2차 전도여행중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셋째는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설이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으로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보다 강한 논조로 지도하고 있는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0)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제 1차로 투옥되었던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각 각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만유의 주재로서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지만 교회의 문제에 관한 지적보다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일치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성과 일치성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3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선포(케리그마), 구제와 지역사회의 확장을 선도하는 봉사(디아코니아), 성도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11)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주후 62~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빌립보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또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일심동체로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권면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주후 62~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 부터 교회내에 이단이 침투하였다는 심각한 보고를 받고 이단을 배격하며, 정통적 기독교론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내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 유대의식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중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을 통하여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4)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수개월 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지도하였으며, 생활의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질것을 경고하되 유대적 기법으로 엄격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더 많은 할애를 하여 바른 교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15)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후 63~65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로석방되어 동방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도덕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지침과 올바른 목회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거짓교사등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신학적 사상보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공중예배와 교회행정과 권징에 대한 교훈, 그리고 목회자의 의무 등 교회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현대 교회행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16)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서신의 최후서신으로, 주후 66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교사들로 부터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염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시련에 대한 인내와 말세에 나타날 여러가지 시험에 대한 대비를 기록하

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역자들의 삶을 기록하며 또한 그러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7) 디도서

주후 6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신앙의 선한 행위가 종식되면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차 있는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며 또한 디도를 격려하여 율법학자 세나(Zena)와 아볼로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교리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의 부패성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지적하며 목회자 디도에게 신앙적, 윤리적 모범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8) 빌레몬서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여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회심케 하였으며,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과 또한 복음전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신분에 대한 혁파를 논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모두는 신분과 관계없이 한 형제이며 사랑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히브리서(저자는 미상)

주후 60~69년경, 기록된 것으로 사도바울을 비롯하여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등이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정리되는 논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로서 서신과 설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논문 형식의 서신 또는 변증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심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품성과 사역과 신앙의 3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지도자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보면서 그들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성은 구약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불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우월성을

신앙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것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주후 62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네로 황제(주후 54~58)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교 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하여 이미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의와 사랑의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유하는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등과 함께 공동서신서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이지만 그 내용은 편지형보다는 대화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리보다는 신앙의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윤리적 교훈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신약성경의 잠언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21)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외적 박해에 대비해 신자들이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하여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 "격려의 서신"(the Epistle of Courage)이라고도 합니다. 즉, 환난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곧 닥쳐올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와 함께 창조론(4:19), 그리스도론(1:20), 종말론(5:1,10) 등 다양한 교리를 다루면서 모든 인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2)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는 주후 66년경, 사도 베드로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교사들의 방종한 사생활과 거짓된 교리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후회없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 요한 1서

요한 1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설(先在說)과 신인양성론(神人兩性論) 등 정통적 그리스도론을 확립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 1서는 기록되었습니다.

(24) 요한 2서

요한 2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 짧은 서신속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안에 거하라는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수반된 것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25) 요한 3서

요한 3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가이오(Gaius)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 3서는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안에 거함을 칭찬하고, 반면에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함으로써 진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6) 유다서

유다서는 주후 70~80년경,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정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구원을 빙자하여 육체적 방종을 일삼는 도덕폐기론자들의 활동이 극심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유다는 이단을 극렬하게 논박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주후 95~96년경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 신약성경 유일의 종말론적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묵시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선물이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공포와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의 사역

사도(使徒, Apostolus)라는 말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리아(shaliach)에서 유래하고 그리스어의 아포스톨로스(apostolos)의 동의어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성육신하여 역사적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4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가복음3:16-19) 그러나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자살하여 사도직을 버리자, 사도들은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중 하나인 맛디아에게 사도직을 맡겼다(사도행전1:21-26) 이후 성령강림주일에 탄생한 교회(사도행전 2:1-47)를 탄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여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였으며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고린도전서15:10)

12명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와 야고보(알패오와 마리아의 아들), 유다(야고보의 아들, 다대오), 시몬, 가룟유다 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모습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보통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최측근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관계가 오늘날의 오너와의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베드로(가버나훔지역 어부출신, 안드레의 형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훔지역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보통의 사람보다도 낮은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베드로 또는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페트루스(? ~64년)는 사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형제 관계로서,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Simon)이라 하며(마태복음 4:18, 요한복음 1:40),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 준 새로운 이름으로서, 그 뜻은 바위라는 의미의 아람어 케파(kefa)를 고대 그리스어로 Κηφας(kephas)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후, 낱말 뜻을 고대 그리스어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라틴어 Petrus)로 풀이한 것입니다(요한복음 1:41).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였을까요? 관상을 보고 선택하였을까요? 아

니면 그의 학벌과 문벌,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고 그랬을까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당시 어떤 괄목할 만한 학력과 지식을 섭렵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선택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지역의 벳새다에서 성장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친구 빌립 등과 함께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때 밤새도록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못한 베드로가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5:1~2)

복음에 무관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보통의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 주시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만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한복음1:35~42)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가 되어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며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앞에서는 모든 사람앞에서 세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생각과 행동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과 죽은자를 살려내었으며 예수님을 따라 물위를 걸어간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회의 모교회로 등장할 때, 베드로는 항상 지도적 입장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이사랴와 안디옥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다녔으며(갈라디아서2:11~14), 전설에 의하면 주후 67년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고 순교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43년에 유대왕인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주후 49년에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여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교의 강제 규정에 따른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안디옥으로 가서 스스로 최초의 사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

지만 초대 교회 시절의 서술가들은 그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 순교했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64년경 로마황제인 네로의 치세에 처형되었다고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로마 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베드로의 로마선교 여행은 아주 미미했거나 실제로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운 첫 감독으로 보는 견해 또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로마 선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예언된 베드로의 순교 기사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 처형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의 설교에 감동된 청중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기적같은 일들이 4대복음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64년~66년경, 로마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전후서는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환란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격려의 서신"(Epistle of Courage)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박해에 대하여 거짓교사와 방종한 생활 등 교회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과 경고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때 갈릴리 한 지방의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기독교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교회가 서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과 가정에서 그의 행적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위대하고 광대한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어둠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이어 번역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제임스(James)라는 이름으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는 네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마가복음6:3, 마태복음13:55). 이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전환되었고 그의 서신인 야고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의 신앙적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Saint James the Just) 그리스어:Ἰάκωβος), (주후 62년 사망) 의인 야고보(James the Just), 예루살렘의 야고보(James of Jerusalem), 하나님의 형제 야고보(James Adelphotheos)[1], 또는 야고보, 주의 형제(James, the Brother of the Lord)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시 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주교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10:1-20에 언급된 칠십 인의 사도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주후 62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총독 안나스의 손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한 사도로서(갈라디아서2:9)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와 유세비우스(Eusebius)는 베드로가 선교여행을 떠난 후 실질적인 예루살렘교회의 감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부재중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모범적 설교와 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한 야고보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한 사람이었으며(갈라디아서1:19) 베드로도 그에게는 겸손한 언행으로 대하였습니다(사도행전12:17). 유대인 크리스찬 헤게시푸스(Hegesippus, 170년경) 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항상 양떼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의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굳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 야고보서는 그의 신앙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하면서도 유대교의 식사법과 금식법등 율법을 병행하여 준수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도 이러한 행위적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차이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자유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야고보서2:1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 죽은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2:17).

야고보는 다윗 혈통 계승자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한구절도 소홀이 하지 않는 경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건 생활로 인하여 의인(Zadik)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으며, 예루살렘교회의 확장을 두려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온갖 유혹과 심문을 획책하였지만 끝끝내 신앙을 지킴으로서 돌에 맞아죽는 처형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3. 요한(세배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로서 어업에 종사)

사도 요한(히브리어: יוחנן, 그리스어: Ιωάννης, ?~1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와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하였습니다(요한복음1:35~40) 요한의 아버지는 세배대(마태복음4:21), 어머니는 살로메(마태복음27:56)로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는 자매였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관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최초의 제자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부터 "우리의 아들"(막복음3:17)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강직하고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가복음9:38, 10:37, 누가복음9:54) 사도 요한의 가정은 삯군을 두고 어업을 경영할 만큼 부자였으며(마가복음1:20), 대제사장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16)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산과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행하였으며 특별히 4대복음 속에는 예수님으로 부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언급이 5회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만찬에서 주를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요한복음13:23~25)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행적을 따라 가야바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마리아의 노후부양의 부탁을 받고 그 책임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19:26~27)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장 먼저본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20:1~10)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언제 떠났는지는 잔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후 58년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때 야고보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견해로는 주후 50년 경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성전문앞의 얇은뱅이

를 고치고(사도행전3:1~10),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며(사도행전 4:1~22),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마리아로 전도단을 파송할 때에도 베드로와 같이 파송되어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사도행전8:14~25)

주후 64~67년,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후로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인 주후 85~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으며 요한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헬라사조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들이 다소 객관적인 성격을 띤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관적인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적을 실재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후 사도 요한은 주후 85~86년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거치면서 밧모섬에 유배를 당했으며(요한계시록1:9), 이곳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경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오래동안 교회를 지도하였으며, 이곳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로 한때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후 98년, 트라얀 황제의 박해가 있었으며 9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박해를 이기며 기독교의 산증인이며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다가 자연사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순교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어서 순교한 것이란 소수의 견해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을 일컬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 중의 한사람"(갈라디아서2:9)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강조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비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남겨 줌으로서 희망과 새로운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4. 안드레(벧세다 출신의 어부, 요한의 아들)

안드레(그리스어: Ανδρέας, ? - ?)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사내다움' 또는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과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며 신중한 성격의 인물로, 러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벧세다 출신의 어부로 요한의 아들이며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한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1:40) 요한복음 1장 35절에는 그의 첫번째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는 말씀을 전해듣고, 베드로

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세례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에 의해 소명되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마태복음4:18).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약대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선택한 세례 요한의 청빈한 생활이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념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스승을 둔 안드레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가르키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궁금점과 의문점은 기대로 발전하였고 그는 이것을 계기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외경인 안드레 행전에는 그의 행적에 관하여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으며, 그 후 러시아 남부 스타키아 지역에 이르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사도 안드레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지켜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활동의 영역확장으로 나아갔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희랍 아가야 지방의 페투테에 이르러 행정 최고책임자인 지사의 부인과 동생들을 전도하여 영접하게 하였고, 흑해연안 지역을 두루 섭렵하며 선교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5. 도마(갈릴리 출신, 디두모)

도마(Thomas, St Thomas the Apostle, Judas Thomas, Didymus)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아람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갈릴리 출신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한 제자로 널리 알려 졌으며 동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인도에 까지 이르러 활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노예로 팔려간 도마는 군다포루스 왕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임을 얻었으며 그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도마의 이름을 딴 성 도마교단이 있는데 그들은 교단의 기원을 인도에서 순교한 도마의 선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바리새파의 음모에 의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

으나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한다고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도마는 잘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와 앓은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도마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앞에 나타나셨을때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습을 보였을때에도 손에 못자국을 보고 확인한 후에야 믿음을 보이는 현실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과 성격은 어떤면에서는 거짓없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모양과 삶들은 이와같이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며 살았던 제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비 양심적인 가룟유다와 같은 제자도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과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빌립(벧세다출신 어부)

빌립(Philppus)은 갈릴리 벧세다 출신으로 세례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주로 소아시아 내륙지방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성경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빌립에 대한 흔적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벧세다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려고 할 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과 물고기를 어디에서 사면 좋겠느냐?” 하고 시험하자 그는 “2백 데나리온의 빵과 물고기를 사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후 빌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예식이 있던 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 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만났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빌립은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답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 있는 당일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체포이후의 삶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나그함마디 사본 에서는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빌립 복음, 가롯유다 복음 등이 발견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여러 현상과 진실성의 결여로 인하여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빌립에 대한 많은 전설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들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 순교에 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의 순교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7.바돌로매(요한복음의 나dana엘과 동일인으로 가나출신 갈릴리 사람)

바돌로메(아람어: שׂוֹדְקָה סְוֹמְלוֹתָרְבָּ, 그리스어: Βαρθολομαῖος, ? - ?)는 가나출신으로 예수께서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고 만나게 되었으며 그후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톨로메오의 아들(바르)'이란 뜻이며, 신약성경에서는 그저 사도들의 명단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기록에도 별로 기록된 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를 빌립에 의해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던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나dana엘(Nathanael: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나dana엘이 그의 본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 나dana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묵상에 잠겨 있던 나dana엘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나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dana엘은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하였으나 빌립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로부터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사람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때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한 나dana엘은 예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욱 큰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돌로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돌로매는 예수께서 승천한 후 소아시아 지방인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를 거쳐 아르메니아에 도달해 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아스티아제스라는 왕에 의하여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 채로 칼에 의해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잘려 나가는 등 온갖 혹형을 당하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유해는 알바노 시에 매장되었다가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다라 지방으로 옮겨졌고, 6세기에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리파리 섬에 이송되었다가, 주후 839년에는 사라센의 침략을 피해 베네벤토에, 983년에는 로마로 운반되었고, 오늘날에는 티베르 강 가운데 있는 한 섬에 건축된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8. 마태(알패오의 아들, 세리)

마태(히브리어: מָתָי, 그리스어: Ματθαῖος 맛싸이오스)는 알패오의 아들이며 세리 마태는 레위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태생으로,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그를 레위(Levi)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완전한 성명은 '레위 마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알패오의 아들(마가복음 2:14)로서, 처음에는 가버나훔에서 로마제국을 위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로 일하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강했던 그는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죄인과 같이 천대받는 부류였던 세리가 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들여 모으기에 급급했던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한 그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인생이 180도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가 믿던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자 세상의 재물에 쏟았던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전이되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일하면서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큰 잔치를 벌여 자기 죄를 회개하였고, 자신과 동일한 처지

에 놓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선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생활하면서 사도로서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한계를 드러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도로서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갔으며, 로마 순교록에는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도 하는 등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가 북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 흑해연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또한 전설일 뿐 정확한 것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해는 처음에 에티오피아로부터 페스툼으로, 다시 10세기에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를 이어주는 구약과 신약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후 50~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기독교인과 이방기독교인을 하나되게 하려는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며, 신학적인 체계와 구조를 완성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를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 시몬(알패오와 클레오파스의 마리아의 아들, 소야고보의 형제)

시몬(히브리어: שמון)은 "응답하셨다" 또는 "들으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혁명당원(zelotes)이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패오와 클레오파스의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소야고보와 형제관계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가나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며(마태복음 10:4), 사도가 되기 전에는 바리새파로 구성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열심당의 일원이었으며, 마카베오의 후계자들

자처하며 로마제국으로부터의 유대인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그들에게 순종하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약탈과 살인 등 테러와 비슷한 공격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열심당은 장차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강림하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 조국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를 결코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두 세력은 극과 극으로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동료였던 시몬은 예수의 설교와 기적을 듣고 본 후 감화되어 열심당에서 탈퇴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또한 성실하거나 피동적으로 순종만 하는 사람들만 제자로 맞아들이기보다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했기에 자신에게 오는 시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순종했던 과거를 가진 마태와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극단주의자 시몬을 모두 자신의 제자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를 한 후, 유다 타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한 후 그 곳의 신상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교도들은 그를 포박한 후 죽였는데, 시몬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 유다(야고보의 아들, 다대오)

유다(Θαδδαῖος, ? -62년?)는 '존경받는' 또는 '찬미하리'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의 아들이며 다대오(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의미의 이름)라고도 불려지는 사도입니다. 소(小)야고보와는 형제 관계이며,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유다라고 부르고 있지만(누가복음6:16, 사도행전1:13),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다대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에 관한 언급은 유일하게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뿐인데, 전체적으로도 4번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 유다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요한복음 14:22).

전설에 의하면, 성령 강림 이후 유다는 시몬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페르시아제국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곳의 신상을 우상제물이라 하여 파괴한 까닭으로 현지인들의 폭력으로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순교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설의 내용이 함께 사역을 한 시몬과 유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순교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11. 야고보(알패와 마리아의 아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히브리어: יַעֲקֹב, 그리스어: Ιάκωβος, 라틴어: Iacobus, ? ※62년)는 알패오와 마리아의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른 사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이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흔히 '소(小)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야고보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고 전해 내려져 오는 전설 또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야고보의 행적은 찾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사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은 삶을 살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으며 복음의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음을 비추어 볼때 아무런 흔적없는 삶을 살며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파에 의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절, 야고보를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가 각종 감언이설로 배교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끝내 배교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화가 난 바리새파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다음 돌로 쳐 죽임으로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 가롯유다(유다출신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롯유다(히브리어: תוריק שאי הדויה) 또는 가롯 사람 유다는 유대 출신으로 가롯 시몬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죄인이자 사탄의 하수인이요,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가롯'이란 말에는 '가롯(남부 유대의 지명) 사람' 외에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장이', '단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가롯 시몬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12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수학적 재능이 우수하여 사도단의 회개와 재정을 맡으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의 다른 기록에는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의 집에서 그녀가 값비싼 삼백데나리온(노동자 1년연봉) 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헌신을 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며 마리아를 책망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가롯유다의 가난한자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횡령을 마음에 둔 발언으로 위선적인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도리어 가롯유다를 책망하며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들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에 심히 격분하여 당시 유대교의 대사제(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제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제의하는 결코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천금과 같은 제의를 받은 제사장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가롯유다에게 은 30개를 보상금으로 제의했습니다. 당시의 시세로 은 30은 로마의 노예가 황소에게 받혀죽었을때 주인에게 지불하던 보상금액으로 가롯 유다의 스승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어떠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자 목요일 밤에 일어난 최후의 성만찬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을 때가 임박해 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암시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도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라는 폭탄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연이어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빵 한 조각을 들어 가롯 유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가롯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고 가롯 유는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린채 망언의 행위를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승의 이러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뒤로한채 너의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행에 동참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후 예수께서는 11명의 사도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가롯 유다는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고 바로 그자리에서 예수는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에 대한 형 집행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산헤드린 의회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데려가 집행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 하여 줄것을 유다백성들과 함께 선동하며 강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롯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돌려 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겨 죽게 만든 죄를 범하였다"라고 간청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그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라는 돌이킬수 없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그 은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나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고, 대사제들은 이것을 주워다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용 토지를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구입한 묘지용 토지에서 가롯 유다가 자살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 의하면 가롯 유다가 자살한 피밭이라고 불리게 된 곳은 나그네들이 객사하면 묻어주려고 산 땅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계를 맡고 있을 3년동안 횡령한 돈으로 산 대 농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대사제들이 산 나그네 묘지용 토지는 작은 밭(헬라어로 아그로스)이었고, 가롯 유다가 죽은 피밭은 대농장(헬라어로 코리온)이었습니다 가난한 예수공동체 일원이었던 가롯 유다가 대농장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사용한 생활비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의 복음증거에 봉헌을 했기 때문이다.

2006년 복원된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서인 가롯유다복음에 의하면 가롯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비밀에 붙여진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가롯유다의 행위는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는 역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복음서들의 출현은 당시 여러곳에서 수없이 복사되고 미화된 사례들로서 일고

의 가치가 없는 복음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악한 서적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제자로 불러 쓰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자였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팽개쳐 버리고 세상의 몰락과 유흥을 좇아갔던 최악의 인간형이라는 데서 우리는 우리안에도 이러한 사악한 생각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복음(福音)

I. 예수님의 생애 연대기

① BC. 5년(4년) : 예수님의 개인적 생애

- 예수님의 탄생(누가복음2:1~20)
- 하나님께 바침(누가복음2:22~38)
- 동방박사들의 경배(마태복음2:1~12)
-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함(마태복음2:13~18)
- 12세때 성전을 순례함(누가복음2:41~52)

② AD. 26~30년 : 예수님의 공생애

- 세례 요한의 증거(요한복음1:29)
- 세례(마태복음3:16~17)
- 40일금식기도와 광야시험(마태복음4:1~11)
- 가버나움에서 사역(마태복음4,9장,마가복음1~2장,누가복음4~5장)
- 갈릴리에서 사역(마태복음12장,마가복음2:38~3:12,누가복음6:1~19)
- 열두 제자를 택하심(마태복음10:1~4)
- 산상수훈(마태복음5:1~7:29,누가복음6:20~29)
- 두로와 시돈 지방(마태복음15:21~28,마가복음7:24~30)
- 데가볼리 지방(마태복음29~39장,마가복음7:31~8:9)
-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마태복음16:13~28,마가복음8:27~37,누가복음9:18~27)
- 베뢰아 지방에서 전도(누가복음13:22~17:10)
-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누가복음17:11~)
-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마태복음21:1~11)
-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심(마태복음26:17~29)
- 위대한 중보자(요한복음17장)
- 성전정화(요한복음2:12)
- 겻세마네동산의 기도(마태복음26:36~56)
- 고난과 죽으심(마태복음26:57~27장)
- 장사되심(마태복음27:57~66,마가복음15:42~46,누가복음23:50~56,요한복음19:31~37)
- 부활(마태복음28장)
- 승천(사도행전1장)

II. 제자와 성경연대기(AD)

- 30년 : 오순절 성령강림(사도행전2:1~4), 스테반의 순교(사도행전7:60)
- 32년 : 사울의 다메섹 회심(사도행전9:1~9)
- 35년 : 바울의 예루살렘 1차 방문(사도행전9:26,갈라디아서1:18~19)
- 44년 : 요한이 형제 야고보의 순교(사도행전12:12), 베드로의 투옥(사도행전12:4)
- 45년 : 대기근(글라우디오 치하)
- 47~48년 : 바울의 1차전도여행(사도행전13:1~14:28)
- 49년 : 예루살렘공회(갈라디아서2:1), 로마로 부터 유대인 축출
- 50~52년 : 바울의 2차전도여행(사도행전15:36~18:23,데살로니가전서1:56,3:1~6)
- 51년 : 사도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 53~58년 : 바울의 3차전도여행(사도행전18:23~21:16), 사도바울,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기록
- 54년 : 로마황제 네로 즉위
- 56년 : 사도바울, 갈라디아서 기록
- 58년 : 사도 바울 체포(사도행전21:27~39)
- 59년 : 베스도의 유다총독 부임, 사도바울의 로마여행(사도행전27:1~28:15)
- 60년 : 사도바울(익명), 히브리서 기록
- 61년 : 사도바울의 로마감옥 투옥(사도행전28:16,에베소서1:12,3:16,20)
- 62년 : 사도바울, 야고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기록
- 62년 : 야고보의 순교
- 63년 : 바울석방, 디모데를 권고하여 에베소교회에 담임케 함(디모데전서1:3)
- 63년 : 사도바울, 디모데전서 기록
- 64년 : 로마 대화재발생, 로마의 1차 박해
- 64년 : 베드로, 베드로전서 기록
- 66년 : 유대인의 반란
- 66년 : 사도바울, 디도서, 디모데후서 기록,
- 66년 : 베드로, 베드로후서 기록
- 67년 : 사도바울의 순교
- 68년 : 베드로의 순교
- 69년 : 베스파시아인의 예루살렘 침공
- 70년 : 예루살렘 함락, 산헤드린공회 폐지
- 70~80년 : 예수의 형제 유다, 유다서 기록
- 81~96년 :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2차박해
- 90년 : 사도요한, 요한계시록 서신서 기록
- 95년 : 사도요한 밧모섬유배(요한계시록1:6), 사도요한, 요한계시록 기록
- 96년 :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 100년 : 암니아 회의, 사도요한의 죽음

Ⅲ. 복음서 개론

(1) 복음의 정의

복음(福音)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틴어에서는 "에우앙겔리움"(evangelium)으로 표기하되 의미는 모두 "복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할 위대한 소식, 급한 소식, 정확한 소식, 영구적인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자서전, 고대전기형식의 문학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분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가독교는 급속하게 전파되는데 비하여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성문화된 기록은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로인하여 각종 이단들이 성행하고 진리는 다양한 견해들과 뒤섞일 위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중요한 인물들이 한 사람씩 사라져 감에 따라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성문화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일은 시급을 다투는 과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문화한 복음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과 교육에 사용되었으며 예배에도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누가복음 1:1~4)

(2) 4복음서

성문화된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니다 그러나 오직 네가지만을 신약에 포함시킬 정경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복음서들은 보다 후대에 기록된 데다가 신뢰도 측면에서 사도들을 닮거나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아적이거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이단적 요소들을 가진 다양한 문헌들을 일일이 성경의 참고로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종류들을 외경의 문서들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에 포함된 복음서들은 사도나 그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속사도, 교부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후대 교회공의회에서 이 책들의 진정성을 확정하고 4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복음서들은 1세기에 살았던 일반적인 네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 요한복음은 모든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복음의 완성작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4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생생한 기록은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

게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공관복음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바라보는 세사람의 각도는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활동과 교훈과 사건의 연대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시놉시스"에서 유래한 "공관복음"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마가,누가복음이 평행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설교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4복음서들의 각각의 미세한 차이점은 어느것이 진실인가 하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을 보완하며 상호의 책들을 하나로 묶는 교회공동체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IV.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1) 복음서 서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1~4 ④ 요한복음 ▶ 1:1~14

(2) 초기의 사건

1. 예수님의 족보

① 마태복음 ▶ 1:1~17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3:23~38 ④ 요한복음 ▶

2. 세례요한의 출생예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15~25 ④ 요한복음 ▶

3. 예수님의 탄생 예언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26:38 ④ 요한복음 ▶

4.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9~56 ④ 요한복음 ▶

5. 세례요한의 출생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57~80 ④ 요한복음 ▶

6.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성령수태를 설명함

① 마태복음 ▶ 1:18~25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예수님의 탄생

① 마태복음 ▶ 2:1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1~7 ④ 요한복음 ▶

8. 목자들의 경배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8~20 ④ 요한복음 ▶

9. 예수님께서서 할례를 받으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21~38 ④ 요한복음 ▶
- 10. 동방박사들의 경배
 - ① 마태복음 ▶ 2:1~1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 11. 애굽으로 피난하심
 - ① 마태복음 ▶ 2:13~15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 12. 헤롯의 유아학살
 - ① 마태복음 ▶ 2:16~18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 13.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옴
 - ① 마태복음 ▶ 2:19~23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39 ④ 요한복음 ▶
- 14. 나사렛에서의 유년시대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40 ④ 요한복음 ▶
- 15. 예루살렘 방문과 나사렛 생활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41~52 ④ 요한복음 ▶

(3) 그리스도의 공생애 준비

- 1. 세례요한의 활동
 - ① 마태복음 ▶ 3:1~12 ② 마가복음 ▶ 1:1~8 ③ 누가복음 ▶ 3:1~18 ④ 요한복음 ▶
- 2. 예수님의 세례
 - ① 마태복음 ▶ 3:13~17 ② 마가복음 ▶ 1:9~11 ③ 누가복음 ▶ 3:21~23 ④ 요한복음 ▶
- 3. 예수님의 시험
 - ① 마태복음 ▶ 4:1~11 ② 마가복음 ▶ 1:12~13 ③ 누가복음 ▶ 4:1~13 ④ 요한복음 ▶
- 4. 세례요한의 증거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15~34
- 5. 예수님의 처음 세 제자 : 안드레, 사도요한, 베드로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35~42
- 6. 빌립과 나다나엘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43~51
- 7. 가나에서의 첫 이적 : 가나안 혼인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1~11
- 8. 가버나움을 방문하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12

(4) 초기 유대사역

1. 성전을 깨끗케 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13~25

2. 니고데모의 질문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3:1~21

3. 세례요한의 증거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3:22~36

4. 유대를 떠나심

① 마태복음 ▶ 4:1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4:1~3

5.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4:4~42

(5) 제1차 갈릴리 사역

1. 갈릴리에서의 전도 시작

① 마태복음 ▶ 4:12~17 ② 마가복음 ▶ 1:14~15 ③ 누가복음 ▶ 4:14~15 ④ 요한복음 ▶ 4:43~45

2.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4:46~54

3.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받으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4:16~30 ④ 요한복음 ▶

4. 네 제자를 부르심

① 마태복음 ▶ 4:18~22 ② 마가복음 ▶ 1:16~20 ③ 누가복음 ▶ 5:1~11 ④ 요한복음 ▶

5.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21~28 ③ 누가복음 ▶ 4:31~37 ④ 요한복음 ▶

6.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

① 마태복음 ▶ 8:14~15 ② 마가복음 ▶ 1:29~31 ③ 누가복음 ▶ 4:38~39 ④ 요한복음 ▶

7.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① 마태복음 ▶ 8:16~17 ② 마가복음 ▶ 1:32~34 ③ 누가복음 ▶ 4:40~41 ④ 요한복음 ▶

8. 1차 갈릴리 전도여행

① 마태복음 ▶ 4:23~25 ② 마가복음 ▶ 1:35~39 ③ 누가복음 ▶ 4:42~44 ④ 요한복음 ▶

9. 문둥병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8:2~4 ② 마가복음 ▶ 1:40~45 ③ 누가복음 ▶ 5:12~16 ④ 요한복음 ▶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9:1~8 ② 마가복음 ▶ 2:1~12 ③ 누가복음 ▶ 5:17~26 ④ 요한복음 ▶

11. 마태를 부르심

① 마태복음 ▶ 9:9~13 ② 마가복음 ▶ 2:13~17 ③ 누가복음 ▶ 5:27~32 ④ 요한복음 ▶

12. 금식에 대한 문제

① 마태복음 ▶ 9:14~17 ② 마가복음 ▶ 2:18~22 ③ 누가복음 ▶ 5:33~39 ④ 요한복음 ▶

13.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5:1~47

14.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

① 마태복음 ▶ 12:1~8 ② 마가복음 ▶ 2:23~28 ③ 누가복음 ▶ 6:1~5 ④ 요한복음 ▶

15. 손 마른 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12:9~13 ② 마가복음 ▶ 3:1~6 ③ 누가복음 ▶ 6:6~11 ④ 요한복음 ▶

16. 잠시 피하심

① 마태복음 ▶ 12:14~21 ② 마가복음 ▶ 3:7~12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6) 산상수훈

1. 12제자를 세우심 : 베드로(시몬, 게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아너게),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나다나엘), 마태, 도마(디두모),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 유다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3:13~19 ③ 누가복음 ▶ 6:12~16 ④ 요한복음 ▶

2. 서론

① 마태복음 ▶ 5:1~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17~19 ④ 요한복음 ▶

3. 팔복

① 마태복음 ▶ 5:3~1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20~26 ④ 요한복음 ▶

4. 소금과 빛

① 마태복음 ▶ 5:13~16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5. 율법의 완성자

① 마태복음 ▶ 5:17~20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6. 미움과 살인

① 마태복음 ▶ 5:21~26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간음과 이혼

- ① 마태복음 ▶ 5:27~3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8. 맹세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5:33~37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9. 복수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5:38~4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27~30 ④ 요한복음 ▶
10. 사랑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5:43~47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32~36 ④ 요한복음 ▶
11. 완전함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5:48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2. 구제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6:1~4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3. 기도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6:5~15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4. 금식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6:16~18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5. 보화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6:19~24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6. 염려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6:25~34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7. 비판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7:1~5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37~42 ④ 요한복음 ▶
18. 간구와 응답에 대하여
 ① 마태복음 ▶ 7:7~11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9. 황금율
 ① 마태복음 ▶ 7:1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31 ④ 요한복음 ▶
20.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
 ① 마태복음 ▶ 7:13~23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43~45 ④ 요한복음 ▶
21. 두가지 종류의 기초
 ① 마태복음 ▶ 7:24~27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6:46~49 ④ 요한복음 ▶
22. 맺는 말과 문둥병자의 치유
 ① 마태복음 ▶ 7:28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제2차 갈릴리 사역

1.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① 마태복음 ▶ 8:5~13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7:1~10 ④ 요한복음 ▶
2.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7:11~17 ④ 요한복음▶
- 3. 세례요한의 질문
 - ① 마태복음▶ 11:2~19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7:18~35 ④ 요한복음▶
- 4.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심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7:36~50 ④ 요한복음▶
- 5. 제2차 갈릴리 전도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8:1~3 ④ 요한복음▶
- 6.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 ① 마태복음▶ 12:22~45 ② 마가복음▶ 3:20~30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 7.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 ① 마태복음▶ 12:46~50 ② 마가복음▶ 3:31~35 ③ 누가복음▶ 8:19~21 ④ 요한복음▶
- 8. 예수님의 비유들
 - ① 마태복음▶ 13:1~53 ② 마가복음▶ 4:1~34 ③ 누가복음▶ 13:4~18 ④ 요한복음▶
- 9. 비유의 목적
 - ① 마태복음▶ 13:10~17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 10. 바다를 잔잔케 하심
 - ① 마태복음▶ 8:23~27 ② 마가복음▶ 4:35~41 ③ 누가복음▶ 8:22~25 ④ 요한복음▶
- 11. 가다랗 지방의 귀신들
 - ① 마태복음▶ 8:28~34 ② 마가복음▶ 5:1~20 ③ 누가복음▶ 8:26~39 ④ 요한복음▶
- 12.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 ① 마태복음▶ 9:18~26 ② 마가복음▶ 5:21~43 ③ 누가복음▶ 8:40~56 ④ 요한복음▶
- 13. 두 소경과 병어리를 고치심
 - ① 마태복음▶ 9:27~34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 14.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 당하심
 - ① 마태복음▶ 13:54~58 ② 마가복음▶ 6:1~6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8) 제3차 갈릴리 사역

- 1. 12제자의 파송
 - ① 마태복음▶ 9:35 ② 마가복음▶ 6:6~13 ③ 누가복음▶ 9:1~6 ④ 요한복음▶
- 2. 세례요한의 죽음
 - ① 마태복음▶ 14:1~12 ② 마가복음▶ 6:14~29 ③ 누가복음▶ 9:7~9 ④ 요한복음▶



3. 오병이어의 이적

① 마태복음 ▶ 14:13~21 ② 마가복음 ▶ 6:30~44 ③ 누가복음 ▶ 9:10~17 ④ 요한복음 ▶ 6:5~14

4. 물위로 걸으심

① 마태복음 ▶ 14:22~36 ② 마가복음 ▶ 6:45~56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6:16~21

5.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6:22~71

6.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① 마태복음 ▶ 15:1~20 ② 마가복음 ▶ 7:1~23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

① 마태복음 ▶ 15:21~28 ② 마가복음 ▶ 7:24~30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8.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15:29~31 ② 마가복음 ▶ 7:31~37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9. 칠병이어의 이적

① 마태복음 ▶ 15:32~38 ② 마가복음 ▶ 8:1~9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0.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함

① 마태복음 ▶ 15:39,16:4 ② 마가복음 ▶ 8:11~12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① 마태복음 ▶ 16:5~12 ② 마가복음 ▶ 8:13~21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2. 소경을 고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8:22~26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3. 베드로의 신앙고백

① 마태복음 ▶ 16:13~20 ② 마가복음 ▶ 8:27~30 ③ 누가복음 ▶ 9:18~21 ④ 요한복음 ▶

1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① 마태복음 ▶ 16:21~28 ② 마가복음 ▶ 8:31,9:1 ③ 누가복음 ▶ 9:22~27 ④ 요한복음 ▶

15. 예수님의 변모

① 마태복음 ▶ 17:1~13 ② 마가복음 ▶ 9:2~13 ③ 누가복음 ▶ 9:28~36 ④ 요한복음 ▶



16.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17:14~20 ② 마가복음 ▶ 9:14~29 ③ 누가복음 ▶ 9:37~43 ④ 요한복음 ▶

17. 고난에 대한 두번째 예언

① 마태복음 ▶ 17:22~23 ② 마가복음 ▶ 9:30~32 ③ 누가복음 ▶ 9:43~45 ④ 요한복음 ▶

음▶

18. 성전세를 내심

① 마태복음▶ 17:24~27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19.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① 마태복음▶ 18장 ② 마가복음▶ 9:33~50 ③ 누가복음▶ 9:46~50 ④ 요한복음▶

(9) 후기 유대 사역

1. 형제들의 배척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7:2~9

2. 사마리아인들의 배척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9:51~56 ④ 요한복음▶

3. 제자의 길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9:57~62 ④ 요한복음▶

4.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7:10~52

5.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7:53,8:11

6.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8:12~59

7. 70인을 파송하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0:1~24 ④ 요한복음▶

8.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0:25~37 ④ 요한복음▶

9.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9:1~41

10.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0:38~42 ④ 요한복음▶

11. 기도에 관한 교훈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1:1~13 ④ 요한복음▶

12.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1:14~54 ④ 요한복음▶

13. 바리새인의 위선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2:1~12 ④ 요한복음▶

14. 욕심과 열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2:13~34 ④ 요한복음▶

15. 청지기의 교훈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12:35~48 ④ 요한복음▶

16. 그리스도로 인한 분쟁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2:49~53 ④ 요한복음 ▶

17.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2:54~59 ④ 요한복음 ▶

18. 회개의 필요성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1~5 ④ 요한복음 ▶

19. 무화과 나무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6~9 ④ 요한복음 ▶

20.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여인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10~17 ④ 요한복음 ▶

21. 구원에 대한 교훈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22~30 ④ 요한복음 ▶

22. 선한목자의 교훈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0:1~18

23. 유대인들의 증오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0:19~39

(10) 베뢰아 전도

1. 베뢰아로 물러가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0:40~42

2. 헤롯의 증오에 대한 경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3:31~35 ④ 요한복음 ▶

3. 안식일에 고창병자를 고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4:1~6 ④ 요한복음 ▶

4. 혼인잔치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4:7~24 ④ 요한복음 ▶

5. 제자의 길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4:25~35 ④ 요한복음 ▶

6. 잃은양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5:1~7 ④ 요한복음 ▶

7. 잃은 동전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5:8~10 ④ 요한복음 ▶

8. 탕자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5:11~32 ④ 요한복음 ▶

9.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6:1~13 ④ 요한복음 ▶

10. 이혼에 대한 교훈

- ① 마태복음 ▶ 19:3~12 ② 마가복음 ▶ 10:2~12 ③ 누가복음 ▶ 16:14~18 ④ 요한복음 ▶

11. 부자와 나사로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6:19~31 ④ 요한복음 ▶

(11) 짧은 유대 방문

1. 나사로를 살리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1:1~44

2. 유대인들의 음모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1:45~53

3. 예수님의 피신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7:11 ④ 요한복음 ▶ 11:54

(12) 마지막 전도여행

1. 열 문둥이를 고치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7:12~19 ④ 요한복음 ▶

2.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7:20~21 ④ 요한복음 ▶

3. 재림에 대하여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7:22~37 ④ 요한복음 ▶

4. 과부의 비유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8:1~8 ④ 요한복음 ▶

5.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8:9~14 ④ 요한복음 ▶

6. 어린이의 신앙

- ① 마태복음 ▶ 19:13~15 ② 마가복음 ▶ 10:13~16 ③ 누가복음 ▶ 18:15~17 ④ 요한복음 ▶

7. 부자청년

- ① 마태복음 ▶ 19:16~30 ② 마가복음 ▶ 10:17~31 ③ 누가복음 ▶ 18:18~30 ④ 요한복음 ▶

8.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 ① 마태복음 ▶ 20:1~16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9. 고난에 대한 세번째 예언

- ① 마태복음 ▶ 20:17~19 ② 마가복음 ▶ 10:32~34 ③ 누가복음 ▶ 18:31~34 ④ 요한복음 ▶

10.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① 마태복음 ▶ 20:20~28 ② 마가복음 ▶ 10:35~45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1. 소경 바디매오

① 마태복음 ▶ 20:29~34 ② 마가복음 ▶ 10:46~52 ③ 누가복음 ▶ 18:35~43 ④ 요한복음 ▶

12. 세리 삭개오의 구원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9:1~10 ④ 요한복음 ▶

13. 열므나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19:11~27 ④ 요한복음 ▶

9.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7일의 여정

(1) 금요일

1. 베다니에 도착하심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1:55,12:1

(2) 토요일

1. 저녁식사

- ① 마태복음▶26:6~13 ② 마가복음▶14:3~9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2:2~8

2. 유대인들의 음모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2:9~11

(3) 주일

1.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밟으며 예루살렘 입성

- ① 마태복음▶21:1~11 ② 마가복음▶11:1~11 ③ 누가복음▶19:28~44 ④ 요한복음▶12:12~19

2.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2:20~36

3. 베다니로 돌아 오심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11:11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2:36

(4) 월요일

1.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11:12~14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2. 성전 숙정

- ① 마태복음▶21:12~13 ② 마가복음▶11:15~18 ③ 누가복음▶19:45~48 ④ 요한복음▶

3. 많은 무리를 고치심

- ① 마태복음▶21:14~16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4. 베다니로 돌아오심

- ① 마태복음▶21:17 ② 마가복음▶11:19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5) 화요일

1.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림

① 마태복음 ▶ 21:18~22 ② 마가복음 ▶ 11:20~25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 권위에 대한 도전과 예수의 질문

① 마태복음 ▶ 21:23~27 ② 마가복음 ▶ 11:27~33 ③ 누가복음 ▶ 20:1~8 ④ 요한복음 ▶

3. 두 아들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1:28~3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4. 농부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1:33~46 ② 마가복음 ▶ 12:1~12 ③ 누가복음 ▶ 20:9~19 ④ 요한복음 ▶

5. 혼인잔치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2:1~14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6. 세금에 대한 시험

① 마태복음 ▶ 22:15~22 ② 마가복음 ▶ 12:13~17 ③ 누가복음 ▶ 20:20~26 ④ 요한복음 ▶

7. 부활에 대한 질문

① 마태복음 ▶ 22:23~33 ② 마가복음 ▶ 12:18~27 ③ 누가복음 ▶ 20:27~40 ④ 요한복음 ▶

8. 가장 큰 계명

① 마태복음 ▶ 22:34~40 ② 마가복음 ▶ 12:28~34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9. 메시아에 대한 질문

① 마태복음 ▶ 22:41~46 ② 마가복음 ▶ 12:35~37 ③ 누가복음 ▶ 20:41~44 ④ 요한복음 ▶

10.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① 마태복음 ▶ 23:13~39 ② 마가복음 ▶ 12:38~40 ③ 누가복음 ▶ 20:45~47 ④ 요한복음 ▶

11. 이스라엘의 불신앙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2:37~50

12. 과부의 두 렵돈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2:41~44 ③ 누가복음 ▶ 21:1~4 ④ 요한복음 ▶

13.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

① 마태복음 ▶ 24:1~2 ② 마가복음 ▶ 13:1~2 ③ 누가복음 ▶ 21:5~6 ④ 요한복음 ▶

14. 그리스도 재림의 표적

① 마태복음 ▶ 24:3~43 ② 마가복음 ▶ 13:3~33 ③ 누가복음 ▶ 21:7~36 ④ 요한복음 ▶

15. 깨어있는 종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3:34~37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6. 도적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4:43~44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7. 청지기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4:45~51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8. 열처녀의 비유

① 마태복음 ▶ 25:1~13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9. 달란트 비유

① 마태복음 ▶ 25:14~30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0. 양과 염소의 구별

① 마태복음 ▶ 25:31~46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1.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1:37~38 ④ 요한복음 ▶

(6) 수요일

1. 유대인들의 공모

① 마태복음 ▶ 26:1~5 ② 마가복음 ▶ 14:1~2 ③ 누가복음 ▶ 22:1~2 ④ 요한복음 ▶

2. 가롯유다의 반역

① 마태복음 ▶ 26:14~16 ② 마가복음 ▶ 14:10~11 ③ 누가복음 ▶ 22:3~6 ④ 요한복음 ▶

(7) 목요일

1. 유월절의 준비

① 마태복음 ▶ 26:17~19 ② 마가복음 ▶ 14:12~16 ③ 누가복음 ▶ 22:7~13 ④ 요한복음 ▶

2. 최후의 만찬

① 마태복음 ▶ 26:20~29 ② 마가복음 ▶ 14:17~25 ③ 누가복음 ▶ 22:14~23 ④ 요한복음 ▶ 13:1~38

3.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2:24~27 ④ 요한복음 ▶ 13:2~17

4. 가롯 유다가 나감

① 마태복음 ▶ 26:21~25 ② 마가복음 ▶ 14:18~21 ③ 누가복음 ▶ 22:21~23 ④ 요한복음 ▶ 13:18~32

5. 성찬식 제정

① 마태복음 ▶ 26:26~29 ② 마가복음 ▶ 14:22~25 ③ 누가복음 ▶ 22:19~20 ④ 요한복음 ▶

6.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① 마태복음 ▶ 26:31~35 ② 마가복음 ▶ 14:27~31 ③ 누가복음 ▶ 22:28~34 ④ 요한복음 ▶ 13:33~38

7. 위로에 대한 교훈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4:1~31

8. 참 포도나무의 비유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5:1~16

9. 미래의 관계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5:17,16:33

10. 중보의 기도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7:1~26

11.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

① 마태복음 ▶ 26:36~46 ② 마가복음 ▶ 14:32~42 ③ 누가복음 ▶ 22:39~46 ④ 요한복음 ▶ 18:1

(8) 금요일

1. 체포

① 마태복음 ▶ 26:47~56 ② 마가복음 ▶ 14:43~52 ③ 누가복음 ▶ 22:47~54 ④ 요한복음 ▶ 18:2~12

2.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8:13~14,19~23

3. 가야바 앞에서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 ▶ 26:57~68 ② 마가복음 ▶ 14:53~65 ③ 누가복음 ▶ 22:54 ④ 요한복음 ▶ 18:24

4. 베드로의 부인

① 마태복음 ▶ 26:58~75 ② 마가복음 ▶ 14:54~72 ③ 누가복음 ▶ 22:54~62 ④ 요한복음 ▶ 18:15~27

5.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 ▶ 27:1 ② 마가복음 ▶ 15:1 ③ 누가복음 ▶ 22:66~71 ④ 요한복음 ▶

6. 가롯유다의 자살

① 마태복음 ▶ 27:3~10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빌라도앞에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 ▶ 27:2 ② 마가복음 ▶ 15:1~5 ③ 누가복음 ▶ 23:1~6 ④ 요한복음 ▶ 18:28~38

8. 헤롯앞에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3:7~12 ④ 요한복음 ▶

9. 빌라도앞에 서신 예수님

① 마태복음▶27:11~26 ② 마가복음▶16:6~15 ③ 누가복음▶23:13~25 ④ 요한복음▶18:39,19:16

10.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하심

① 마태복음▶27:27~30 ② 마가복음▶15:16~19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11.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중

① 마태복음▶27:31~34 ② 마가복음▶15:20~23 ③ 누가복음▶23:26~32 ④ 요한복음▶19:17

12. 십자가 처형

① 마태복음▶27:35~50 ② 마가복음▶15:24~37 ③ 누가복음▶23:33~46 ④ 요한복음▶19:18~30

13. 십자가 가상칠언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34 ④ 요한복음▶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43 ④ 요한복음▶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26~27

㉣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① 마태복음▶27:46 ② 마가복음▶15:34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 내가 목마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28

㉥ 다 이루었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30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46 ④ 요한복음▶

14. 백부장의 고백

① 마태복음▶27:54 ② 마가복음▶15:39 ③ 누가복음▶23:47 ④ 요한복음▶

15.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34~37

16. 예수님을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헌납한 무덤에 장사지냄

① 마태복음▶27:57~61 ② 마가복음▶15:42~47 ③ 누가복음▶23:50~56 ④ 요한복음▶19:38~42

(9) 토요일

1. 무덤에 파수군을 세움

① 마태복음 ▶ 27:62~66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10) 주일~부활, 승천(40일)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옴

① 마태복음 ▶ 28:1 ② 마가복음 ▶ 16:1 ③ 누가복음 ▶ 24:1~3 ④ 요한복음 ▶

2. 지진이 일어남

① 마태복음 ▶ 28:2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3.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남

① 마태복음 ▶ 28:2~8 ② 마가복음 ▶ 16:2~8 ③ 누가복음 ▶ 24:4~11 ④ 요한복음 ▶ 20:11

4.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옴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24:12 ④ 요한복음 ▶ 20:2~9

5.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6:9~11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0:11~18

6.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심

① 마태복음 ▶ 28:9~10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7. 파수군의 보고

① 마태복음 ▶ 28:11~15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8.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6:12 ③ 누가복음 ▶ 24:13~35 ④ 요한복음 ▶ 20:19~25

9.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함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0:21~27

10.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6:14 ③ 누가복음 ▶ 24:36~43 ④ 요한복음 ▶ 20:26~31

11. 일곱제자에게 나타나심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③ 누가복음 ▶ ④ 요한복음 ▶ 21:1~23

12. 지상 대명

① 마태복음 ▶ 28:16~20 ② 마가복음 ▶ 16:15~18 ③ 누가복음 ▶ 24:44~49 ④ 요한복음 ▶

13. 주님의 승천

① 마태복음 ▶ ② 마가복음 ▶ 16:19~20 ③ 누가복음 ▶ 24:50~53 ④ 요한복음 ▶

10. 마태복음(Κατά Ματθαίου Ευαγγέλιον, Gospel of Matthew)

(1) 제목과 기록목적

마태복음은 주후 50~70년경, 세관원 출신 마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경 첫번째 경전입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에는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의한)이란 표제어가 있었습니다. 그후 기쁜소식, 즉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을 첨부하여 마태복음이라 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하나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고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성과 혈통성을 이어나갔습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연대적 일정과 시간순으로 정리한 전기(Biography)나 어록(Analects)이 아닌 것입니다. 후대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신앙고백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기자들이 특별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모두 28장 1,071절로 구성하며 유대인의 왕이며 모든 세계,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저자

마태(מָתִי)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알패오의 아들로써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히브리 이름은 레위(Levi)였습니다. (마가복음2:14, 누가복음5:27~32) 그는 가버나움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정징수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력을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창녀와 죄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마태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관원으로 일하며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면에서 생소하고 신분과 직위조차 명확치 않았을 것 같은 한 사람의 부름에 그 분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관원이라는 매혹적이고 금전적 부유함을 일순간에 내 던지고 예수라는 미확인된 한 사람을 쫓아 자기의 남은 일생을 그 분께 맡기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 분과 동행하며 많은 것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분의 삶, 그

분의 말씀, 그 분이 행하는 기적과 치유들을 보면서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마태복음16:16) 마태는 아직 아무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도망하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땅에 계셨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면 더욱 빛나는 신앙의 모범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나아갔으며 로마 순교록에는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그의 남은 생애는 로마제국의 박해속에서도 철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복음을 완성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주제와 기록의 의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16:16~18)를 주제로 마태복음서의 기록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태는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1:1~17),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1:1, 9:27, 12:23, 15:22, 20:30~31, 21:9, 21:15, 22:41~45)하면서 혈통적 계보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폐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부활의 역사적 실재성을 강조하였습니다(27:62~66, 28:11~15)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이 책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증거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약성경의 직접인용과 암시가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로 예언된 바"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입니다 예수 생애의 각 장면마다 마태는 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약의 본문과, 예수의 사역으로 성취된 예언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히브리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

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위대한 신학적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적 사실에서 근거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4) 내용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의 왕이며, 그들의 메시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나셨고, 메시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요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소식은 로마제국이 두려워 할 정도로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① 왕의 출현과 메시야 예언의 실현(1:1~4:11)

400년동안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그 어떤 발전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식민통치하에서 유대에는 헤롯왕과 빌라도총독이라는 두 명의 권력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축복의 성취자로 예언된(창세기12:3) 아브라함의 자손(1:1), 위대한 다윗의 직계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였습니다(2:2) 그는 당시 세상의 완전한 지배자로 통하던 사단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고 악의 세력을 정복할 유일무이한 존재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94:1~11)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위대성을 전하였습니다(1:22,2:5,15,17,23)

② 왕의 선포와 메시야의 원리(4:12~7:29)

세상에 새로운 기준인 새 계명을 선포하심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으며 위대한 명품설교이며 기독교사의 중요한 가치인 산상수훈의 팔복을 선포하였습니다(5:3~11)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법을 중심으로(5:17~48) 살인(5:21~22), 화해(5:23~26), 간음(5:27~30), 이혼(5:31~32), 맹세(5:33~37), 무저항(5:38~42), 사랑(5:43~48), 자선(6:1~4), 기도(6:5~15), 금전(6:19~24), 근심(6:25~34), 판단(7:1~5), 근신(7:6), 기도(7:7~11), 타인(7:12)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은 하늘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시민(5:1~16)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법(5:17~48)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새생

활(6:1~7:12)과 시민으로서의 증거(7:13~29)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③ 왕과 메시아의 권능(8:1~11:1)

치유와 이적과 말씀의 권세로서 사단의 영향력을 정복해 나가는 왕과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둥병자(8:1~4), 질병(8:14~17), 중풍병자(8:15~13,9:1~8), 귀신들린자(8:28~34,9:32~34), 세리(9:9~13), 혈루증(9:20~22), 소경된 자(9:27~31) 등 수없이 많은 질병치유와 기적과 용서와 죄사함을 통하여 그들을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각지로 흩어져 치유와 사역을 가능케 하심으로 메시아적 권능을 증거하였습니다(10장)

④ 왕과 메시아의 천국비유(11:2~13:53)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예수님의 권위(12:1~13)에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가 스스로의 율법적 울무속에 갇혀 있음을 여과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8가지의 비유로서 하늘나라의 참된의미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메시아적 사관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씨뿌리는 자(13:1~23)와 알곡과 가라지(13:24~30,34~43), 겨자씨(13:31~32), 누룩(13:33)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감추인 보화(13:44), 값진 진주(13:45~46), 그물(13:47~50), 집주인(13:51~52)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⑤ 왕과 메시아의 목적(13:54~19:2)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13:53~58) 또한 오병이어로 장정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위로 걸으신 기적이 나타난 이후 헤롯궁전은 예수님의 정보가 필요하였고 사사건건 미행자를 보내어 그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14:1~36)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일과 4천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감시와 질투와 음모는 가속화하였습니다(15:1~16:12)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16:13~20)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날 고난(16:21~28)과 영광(변모,17:1~21)와 제자들의 배신(17:22~23)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의 내용을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관하여 어린아이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18:1~6), 인간관계속에서는 문제와 용서(18:21~35), 육체적인문제(19:1~2)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가 이

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며 자신의 목적이 무엇임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⑥ 왕과 메시아와의 논쟁가들(19:3~26:2)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19:3~12)와 자녀(19:13~15)와 재산(19:16~26)문제들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상급과 계산법과 지위에 관한, 특별하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19:27~20:28) 예루살렘 입성(21:1~11),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정화하시고(21:12~17)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21:18~2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와 계략이 구체화 하면서(21:23~27),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거역하는 자들(21:28~32)과 핍박하는 자들(21:33~46)과 배척하는 자들(22:1~14)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헤롯당원들(22:15~22)과 사두개인들(22:23~33)과 바리새인들(22:34~23:36)과의 논쟁이 격화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마지막날의 징조(24:1~25:46)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성전 파괴(24:1~2)에 대한 설교에서는 양측이 더 이상 화해의 길을 갈수 없는 전쟁을 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비유로 설명하시며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격화시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무화과 나무(24:32~35)와 노아홍수(24:36~39), 두람중 한사람의 들림(24:40~41), 충실한 집주인과 충직한 청지기(24:42~24:51), 열처녀와 등불준비의 비유(25:1~13), 달란트비유(25:14~30)와 양과 염소의 비유(25:31~46)들은 종말을 알려주고 그 종말때의 긴박한 상황과 그들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불신앙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⑦ 왕과 메시아에 대한 배척과 고난(26:3~28:10)

예수님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으며 재정총괄이었던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스승을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은 30세겔, 이것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매긴 공식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 치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또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물건값으로 계산하였다는 것, 만왕의 왕이며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로마제국에게 넘겨주며 죽여달라고 데모를 하는 유대군중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수수께끼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성만찬과 성찬예식, 그리고 겟세마네동산의 기도에서 체포의 순간까지 아주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방어하던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로마제국과 맞서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후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해할수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심문을 받으며(26:57~27:26),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앞에서 변호를 하였습니다(26:57~27:10) 헤롯왕과 빌라도총독의 심문속에서 예수님의 선고는 십자가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목요일밤에서 십자가형까지 만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불법이 끝내 자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채찍과 수모와 치욕을 이겨내며 단 한순간도 신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다(27:27~66) 골고다 언덕길, 해골이라 불리우는 지점에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27:27~56) 산헤드린공회원으로셔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은 죽어서도 로마제국 군인들이 지켜야 할 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27:57~66)

⑧ 왕과 메시아의 증거(28:11~20)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인한 완전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생명이었습니다(28:1~10) 모든 것이 드러났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로마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거짓소문을 낼 것을 종용하였습니다(28:11~15) 이로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로 믿고 대제사장이 꾸며낸 거짓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반복적 교훈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하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을때에도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때의 죽음을 두려워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복음의 불길은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대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복음이 알려졌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따르던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5) 개요

I. 왕에 대한 소개(1:1~4:25)

① 가문(1:1~17), ② 탄생(1:18~2:23), ③ 세례(3:1~17), ④ 광야시험(4:1~11), ⑤ 사역(4:12~25)

II. 왕의 설교(5:1~7:29)

① 하늘나라 시민(5:1~16),

② 하늘나라의 새 법(5:17~48) : 모세의 법(17~20), 살인(21~22), 화해(23~26), 간음(27~30),

이혼(31~32), 맹세(33~37), 무저항(38~42), 사랑(43~48)

③ 하늘나라의 새 생활(6:1~7:12) : 자선(6:1~4), 기도(6:5~15), 금식(6:16~18), 금전(6:19~24),

판단(7:1~5), 근신(7:6), 기도(7:7~11), 타인(7:12)

④ 하늘나라시민의 증거(7:13~29)

III. 왕에 대한 증거(8:1~9:38)

① 증거1 : 능력(8:1~34)

더러움(1~4), 공간(5~13), 질병(14~17), 제자(18~22), 자연(23~27), 귀신(28~34)

② 증거2 : 사죄(9:1~17)

중풍병자(1~8), 세리(9~13), 금식(14~17)

③ 증거3 : 권세(9:18~38)

사망(18~26), 흑암(27~31), 병어리(32~34), 질병(35), 무리들을 위한 연민(36~38)

IV. 왕의 계획(10:1~16:12)

① 계획의 선포(10:1~11:1)

② 계획의 입증(11:2~12:50)

요한의 제자위로(11:2~19), 두성을 정죄(11:20~24), 만민부름(11:25~30), 안식일의 의미(12:1~13),

바리새인(12:14~37), 표적(12:38~45), 참관계의 기준(12:46~50)

③ 비유들(13:1~52)

씨뿌리는자(13:1~23), 알곡과 가라지(13:24~30), 겨자씨(13:31~32), 누룩(13:33), 알곡과 가라지비유해석(13:34~43), 감추인 보화(13:44), 값진 진주(13:45~46), 그물(13:47~50), 결론(13:51~52)

④ 도전받는 왕의 계획(13:53~16:12)

동향인 도전(13:53~58), 헤롯의 도전(14:1~36),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의 도전(15:1~16:12),

V. 왕의 교훈(16:13~20:28)

① 베드로신앙고백(16:13~20), ② 자신의 수난(16:21~28), ③ 자신의 영광(17:1~21),

- ④ 배반당하실 것(17:22~23), ⑤ 세금(17:24~27),
- ⑥ 겸손(18:1~35) : 어린아이의 믿음(18:1~6), 잃은자의 염려(18:7~14), 교회의 치리(18:15~20), 끊임없는 용서(18:21~35),
- ⑦ 생활의 규범(19:1~26) : 육체적 문제(1~2), 이혼 재혼(3~12), 자녀(3~12), 재산(16~26),
- ⑧ 하늘나라(19:27~20:28) : 상급(19:27~30), 계산법(20:1~16), 하늘나라 지위(20:17~28)

VI. 왕의 현현(20:29~23:39)

- ① 왕의 권세(20:29~34)
- ② 왕의 입성(21:1~11)
- ③ 성전정화(21:12~17)
- ④ 무화과나무의 저주(21:18~22)
- 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전(21:23~27)
- ⑥ 왕의 비유들(21:28~22:14) : 거역(21:28~32), 핍박(21:33~46), 배척(22:1~14)
- ⑦ 왕의 선도(22:15~23:39) :
 헤롯당원(22:15~22), 사두개인(22:23~33), 바리새인(22:34~23:36), 예루살렘(23:37~39)

VII. 왕의 예언(24:1~25:46)

- ① 성전파괴(24:1~2)
- ② 마지막날에 대한 질문과 징조(24:3~28)
- ③ 재림의 징조(24:29~31)
- ④ 비유(24:32~25:46) :
 무화과나무(24:32~35), 노아홍수(24:36~39), 두사람(24:40~41), 충실한 주인(24:42~44),
 충직한 청지기(24:45~51), 열처녀(25:1~13), 달란트(25:14~30), 양과 염소(25:31~46),

VIII. 왕의 수난(26:1~27:66)

- ① 예비일(26:1~16)과 유월절(26:17~30)
- ② 배반당하신 왕(26:31~56)
- ③ 심문받으신 왕(26:57~27:26) : 대제사장(26:57~75), 산헤드린공회(27:1~10), 빌라도(27:11~26),
- ④ 십자가수난(27:27~66) : 준비절차(27:27~44), 왕의 임종(27:45~56), 왕의 장례식(27:57~66),

IX. 왕의 권세(28:1~20) :

부활승리(28:1~20), 부활에 대한 거짓보고(28:11~15), 왕의 지상명령(28:16~20),

(6)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은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특히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나와있는 여덟가지의 복은 천국의 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완전한 하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처음의 네가지와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까지 두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네가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가지 복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행하여 할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가져오는 결과는 바실라이아(천국)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속에서의 행복과 평화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성경과 세계문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완전한 수준의 윤리체계를 여덟가지 삶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지에서 행하여진 예수님의 설교 전문인지, 혹은 마태가 여러 곳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설교를 편집한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견해차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나와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를 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복 있는자의 조건과 진실로 복된자의 축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록되어 있는 8복이 모두 지상의 일시적인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영원한 축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한 단면이 아니라 축복 자체를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은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성도의 신앙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으며 그 복은 무엇인가?(5장 3절, 누가복음 6:2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5 : 1~7 : 29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 즉 팔복 (beatitudes) 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특별한 복됨의 선언으로 정의 할 수 있

습니다

5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과 동일한 프뉴마 (pneumati) 로 해석됩니다. 가난한 자 (ptochoi) 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두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자들, 곧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영적으로 불리한'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는자' 들에게 더욱 더 큰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청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들 자신에 대한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만심을 회개하였습니다 (마3 : 2~9).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영적 빈곤상태에 빠진 백성인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 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 (시69 : 29, 70 : 5, 74 : 21, 86 : 1~6, 사 61 : 1, 습 3 : 12) 둘째,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로 부터 박해를 받는 자이고 (시37 : 14, 86 : 14), 셋째,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시 34 : 6, 51 : 17, 사 66 : 2)

이러한 사람이 받게되는 복(마카리오이)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한자가 누리는 영적 특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수고의 댓가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영육간에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5장 4절, 누가복음6:2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고통은 무엇인가?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극도의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하는 행위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자는 헬라어로 "호이 팬둔테스"로 읽혀지며 이것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애통은 사람들이 내세웠던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에 대한 교만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영적 애통을 말하며 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를 향하여 애쓰는 아픔에 대한 위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애통(哀痛)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몹시 슬퍼하다, 또는 몹시 애달프고 슬프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영원토록 죄인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는 그대로의 상한 심령입니다(시편51:17). 화려하고 수려하지만 결코 빛나지 않는 우리의 가식과 교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와 자비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기업에 관한 축복은 무엇인가?(5장 5절, 로마서4:1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자는 헬라어로 "호이 프라에이스"라고 읽으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온유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격노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잘못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되어 우리도 동일한 온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가진 자가 누릴 기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인가?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땅을 말하는 것인가? 멸망을 초래할 이땅은 결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곳을 말하고 있으며 천국의 축복을 기업으로 보장하신다는 대명제인 것입니다.

온유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마11:29).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의 땅은 이 땅의 수많은 토지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의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실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나 우리가 혼돈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죄악된 땅의 소산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천국민으로서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보증인 동시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시

37:11, 롬4:13)

4.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을 배부름의 축복은 무엇인가?

(5장 6절, 누가복음6:2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부족과 필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에 풍족하고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한 삶을 통하여 부와 명예와 삶의 만족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 모두 어느 한쪽은 목마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땅의 목마름과 갈증도 피부로 느끼면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지만 풍족하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 영적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와 영적 갈급함을 느끼며 의지하는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배부름은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나온다는 불변진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믿음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있는 이유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주를 위한 불편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히려 복을 부른다고 말씀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풍족함과 배부름은 성령충만과 은혜충만 그리고 말씀충만을 포함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풍성함을 약속으로 주는 것입니다(눅6:21)

5.공휼히 여기는 자의 공휼에 관한 축복은 무엇인가?(5장7절, 마가복음11:25)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공휼(矜恤)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 함께 극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신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푸신 은혜로 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긍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5장8절, 히브리서12:4)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를 말하는것으로 심령으로 해석되는 "프뉴마"와는 다른 정신, 의지, 감정을 포함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청결"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가지 마음과 탐욕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정신과 의지가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믿음으로 계승하며 예수님의 순수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은 직접적인 대면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7.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5장9절, 로마서14:1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케 하는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또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화목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되는 헬라어 "호이 에이레네포이오이" 로 신약성경에서 본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거나 불화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위해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평행선과 같은 높은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케 하는자의 본질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그들과 그들 사이에서 화목을 주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자녀는 곧 천국백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축복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8.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 소유권은 무엇인가?

(5장10절, 베드로전서3:1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코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때에 고통을 받게되고, 우상과 타협점을 찾아 현실적이 될 것을 요구받게 되며, 또 한 온갖 음해와 술수에 휘말리며 많은 누명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결단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최상의 선택인 천국을 위하여 인내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광명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를 위한 핍박은 유한한 세상에서 결코 한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 : 9~13)

주기도문(Lord's Prayer)은 예수께서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만들어준 유일한 형식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전한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앞절에서 과시를 위한 기도(5~6절), 중언부언하는 기도(7~8절)를 비판하시면서 기도의 정직성, 진실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서론과 여섯가지 문제를 간구한 본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짧은 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완전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인 주기도문의 서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인데 우리의 기도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성은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와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기도는 자신의 세상적 유익이 목적이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함같이 자신의 삶과 행위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함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벧전 1 : 15~16, 살전 4 : 3,8)

두번째 간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10절) 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위에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인간이 거주하는 제 1의 영역으로, 하늘을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제 3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전파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인데 여기서 오늘날은 날마다, 매일로 번역되기도 하며 (epiousion) 그 의미는 생존과 현재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받는 양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란 반드시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의 필요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복음전

파하는 일에 필요한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 팽개치고 직업도 없이 방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자기와 가족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 (잠 30 : 8~9) 과 성도의 일상생활 깊숙히 찾아오셔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다섯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절) 인데 본절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 레마타' (opheilemata (영Debts))로서 '빚'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채무관계를 야기시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이러한 탕감의 원칙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남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야 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웃을 용서 (성도가 일상에서 범하는 허물에 대한 용서) 함으로서 자신이 죄 사함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를 한없이 베푸시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은 구원의 사역을 위함이며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데 본절의 시험은 (Peirasmon(영Temptation)) '시련의 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부터 오거나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당하는 것입니다 (약 1 : 13) 그러므로 사단의 능력과 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시험을 당치 않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벰전 5 : 8) 우리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을 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고전 10 : 13) 이것은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만 모든 시험과 악으로 부터 견디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으로 하나님께 대한 칭송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칭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하여 감동하여 드리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온 모든 것은 축복이며 무한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할 때에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1. 마가복음(Κατά Μάρκον Ευαγγέλιον,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1) 제목과 기록목적

마가복음(Κατά Μάρκον Ευαγγέλιο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을 추가하여 4복음서로 알려진 예수님의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헬라어본문에서는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카타 마르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16장 687절로 되어 있습니다. AD. 64~69년경 있었던 로마제국의 악명높은 5대 황제 네로(Nero) 황제(AD.54~68년)의 박해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강도높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사도 바울을 처형할 정도로 그는 광기어린 재임기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속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를 주지시킴으로서 시험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로마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 문체를 간결하고게 하였고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 "즉시"라는 단어를 41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글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AD.67~68년)이후 예루살렘 멸망(AD. 70년)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저자(마가, AD 67~70년)

마가(Μάρκος)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 동시에 통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신뢰할 만한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의 지리에 해박하였으며(11:1)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이견 또한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본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한 마가(John Mark)와 일치하고 있으며 초대교회 교부들도 한결같이 마가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리비아 근교 펜타폴리스 지역 시렌의 이교도 출신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감화되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요한 마가라는 이름이 10회 등장하는데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가는 그리스어식 이름으로 상호 조합된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류층 사회의 지위를 소유한 마리아의 아들로서(사도행전12:12)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었습니다(골로새서4:10). 마가는 AD. 45~49년경,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키프로스섬)까지 동행하였으나 청년 마가가 힘에 겨운 전도여행에 적응을 못함으로서 소아

시아 주요지역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후, AD. 50~52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완고한 반대로 바나바 삼촌과 함께 구브로로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D. 53~58년경, 사도 바울에 에베소 감옥에 투옥중일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골로새서4:10)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사도바울의 부탁으로 그를 만나러 로마에 갔었습니다(디모데후서4:11) 마가는 젊은 날 자신이 저질렀던 복음의 실수를 극복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과의 행적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베드로의 통역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행적에 관하여 빠짐없이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AD. 58~62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곳의 초대 담임이 되었습니다 AD. 68년경, 복음전파의 장애속에서 투옥된 마가는 도시 전체를 끌려 다니며 돌팔매질을 당하는 석형에 처해졌고,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중요성과 전파성을 충분히 인식한 이유였으며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져가는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3)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하나님의 종"(10:45)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통치자이며 지배자로서 로마제국을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의 대속물(Redemption)이 되게 하셔서 제물로 내어 주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빌립보서 2:5~11) 최고 권력자이며 만왕의 왕이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서 자신을 내어 준다는 것은 사실 이 에서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이 아닌 주제별로서 섬김의 사역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동족들의 거부와 비난에 의해 십자가(15:21~32)형으로서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실재적인 왕으로서의 존엄과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로마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45절에는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왕이신 예수께서 종(Servant)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섬겨 왔으며, 우리

는 그 분께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밝혀 줌으로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와 함께 그 분의 삶이 이방인들의 지표가 되게 하였습니다

(4) 내용

16장 678절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기록서인 마가복음의 주요 독자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우수한 민족은 없었고, 뛰어난 군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력과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단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을 위해 섬기시고 종(Servant)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봉사(1~10장)와 희생(11~16장)으로서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마가는 글을 이어갔습니다 기록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대신 사실적인 기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였을때 유대종교지도자들의 격한 감정과 반응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야 했습니다(1:1~13) 광양서 나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였고(3:7~19), 서기관들의 경고(3:20~35)와 씨뿌리는 비유(4:1~34)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1:11)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나타냄으로서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몇주동안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적대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한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고 되고 있었습니다(8:31~9:1,9:2~13,9:14~32)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 주는 동안 제자들은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9:33~5)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한주간을 상세히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11:1~15:47)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성전을 청결하고자 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11:12~19) 긴박하게 돌아가는 유대종교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방벽은 너무나 허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국면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조치를 강구하거나 방비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체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4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때 까지도 예수께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완수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제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진정 그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0년후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가종교가 되었습니다

(5) 개요

I. 종의 봉사(1:1~10:52)

① 사역의 준비(1:1~13) : 세례요한의 전파(1~8), 예수의 세례(9~11), 광야의 시험(12~13)

② 예수의 천국선포(1:14~20)

③ 예수의 능력(1:21~3:12) : 귀신을 쫓아냄(1:21~28), 열병고침(1:29~31), 많은무리 고침(1:32~34), 타인들에 대한 주의 관심(1:35~39),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고침(1:40~2:12), 레위부르심(2:13~20),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2:21~22), 안식일의 주인(2:23~28), 손마른자치유와 귀신쫓아냄(3:1~12)

④ 예수의 제자들(3:13~35) : 열두사도선택(13~21), 성령혜방죄(22~30), 예수의 형제자매(31~35)

⑤ 예수의 비유(4:1~34) : 씨뿌림(1~20), 등잔(21~25), 천천히자라는씨앗(26~29), 거자씨(30~34)

⑥ 예수의 큰권능(4:35~9:1) : 폭풍잔잔케함(4:35~41), 거라시의 귀신쫓음(5:1~20), 야이로의 딸을 살림(5:21~43), 배척당함(6:1~6), 열두제자파송(6:7~13), 헤롯이 요한을죽임(6:14~29), 오병이어기적(6:30~44), 물위로 걸어가심(6:45~52), 많은 무리를 고치심(6:53~56), 바리새인들의 외식(7:1~23), 수로보니게여인의 딸을 고치심(7:24~30),

귀먹고 어눌한자를 고침(7:31~37), 사천명을 먹이심(8:1~9), 바리새인들을 꾸짖음(8:10~13),

바리새인들의 누룩(8:14~21), 소경을 보게함(8:22~26),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제자의 본질(8:27~9:1)

⑦ 예수의 예고(9:2~50) : 예수의 변모(9:2~29),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고(9:30~32), 겸손하라(9:33~37), 올바른 판단(9:38~41), 지옥의 실재(9:42~50)

⑧ 베로아에서 행한 예수의 설교(10:1~52) : 이혼(1~12), 어린아이축복(13~16), 영생(17~31),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32~34), 욕망(35~45), 소경 바디메오(46~52)

II. 종의 희생(11:1~15:47)

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다(주일)(11:1~11)

②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정화(월)(11:12~19)

- ③ 예수의 가르침(화)(11:20~13:37) : 기도와 신앙의 교훈(11:20~13:37), 예수의 권위(11:27~33),
 집주인의 비유(12:1~12), 세금(12:13~17), 부활(12:18~27), 예수의 신성(12:35~37),
 가장 큰 계명(12:28~34), 교만(12:38~40), 과부의 연보(12:41~44), 성전멸망예언(13:1~4),
 재림징조(13:5~13), 재난의 예언(13:14~23), 재림의 묘사(13:24~27), 무화과비유(13:28~33),
 깨어 있으라(13:34~37)
- ④ 마리아의 기름부음과 유다의 배반(수)(14:1~11)
- ⑤ 유월절 준비(목)(14:12~52) : 최후의 만찬(12~25), 겐세마네기도(26~42), 예수체포(43~52)
- ⑥ 심문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금)(14:53~15:47) : 가야바앞에서 서신 예수(14:53~65), 베드로부인(14:66~72), 빌라도앞에 서신 예수(15:1~15), 병정들의 조롱(15:16~20), 십자가형(15:16~20),
 예수의 죽음과 장사지냄(15:33~47)

Ⅲ. 종의 승리(16:1~20)

- ① 예수의 부활(1~8), ② 부활하신 예수의 나타남(9~18), ③ 승천(19~20)

12. 누가복음(Gospel According to Luke)

(1) 제목과 기록목적

누가복음(Gospel According to Luke)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을 추가하여 4복음서로 알려진 예수님의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누가에 의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카타 루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1151절로, 사도시대로 부터 전해져 왔으며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완전하게 묘사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58년경 의사인 누가에 의해 가이사랴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로 지칭되는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하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오빌로는 로마인으로서는 상류층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누가복음1:3, 사도행전1:1). 당대 지성인이었던 누가 또한 그를 향하여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사도행전24:3,26:25). 데오빌로는 개종한 자로서 자기가 접한 새로운 종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전기와 같이 시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복음전파를 위해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졌습니다.

(2) 저자(누가, AD. 58년)

바울의 동역자이며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는 AD. 51년경, 바울이 그리스와 빌립보, 마게도냐지역을 순회 전도여행을 다닐 때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58년경,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전도여행을 동행하였으며, 바울이 체포된 후 가이사랴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행전20:5~21:15). AD. 60년경,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될때 그 여정을 함께 하였으며(사도행전27:1~28:15), 66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에도 함께 하였을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디모데후서4:11). 바울은 누가를 향하여 "사랑받는 의원"(골로새서4:14, 빌레몬서24)이라고 지칭하였고 자신이 두번째 로마감옥에 투옥되었을때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디모데후서4:11)이라고 세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로서 사도행전과 그 유사성을 가지며 두개의 문서를 모두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모두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문체, 그리스도의 인성,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 당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두 문서가 갖고 있는 계획된 통일성을 보여 줍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초기에 바

나바와 함께 하였던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개종자였습니다(사도행전11:25~26)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전기를 기록할 정도로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간을 따라 올라가며 정확도를 유지하였습니다(1:2,8:3). 누가는 마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비유들과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명확히 묘사하는 등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영적 메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구원"(19:10)을 주제로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미(美)를 이상으로 그것을 겸비한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강조하면서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사상은 삭개오에게 증거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19:10)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인자(人子)이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는 것으로 기적과 비유와 교훈들의 포커스가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인자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향한 주의 연민과 인간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2:32)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출신의 개종자인 누가는 의사로서 히브리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태가 다윗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말하고,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말하였다면, 누가는 우주적인 구세주, 빈부와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지 않는 만인의 구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여인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문앞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였던 이름모를 부자의 음부에서 애걸하는 목소리도 누가복음에서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시급성이었습니다.

(4) 내용

누가는 인자의 족보와 탄생, 유년시절, 세례 요한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며 예수님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유년시절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생략된채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인지되고 있는 부분과 인지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명확

히하여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처음부터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의 금식기도와 그 기간중에 일어났던 마귀와의 싸움에 관하여 시작하며 인자로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짧은 행적을 기록에 담고 있습니다(1:1~4:13)

인간을 위한 인자의 사역의 출발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귀신과 질병과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소외당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병자와 과부의 아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행렬의 동반자들이 되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전과 다른 치유와 미래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덮고 있던 영적 암흑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아래 자유케함을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4:14~6:49).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며, 그들과 함께 풍랑을 다스리고 오천명을 먹이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등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과 제자훈련을 병행하였습니다(7:1~9:50)

예수님의 복음사역에서 양극단의 현상이 획일화되어가는 경향이 현실화 하였습니다. 인자에 대한 믿음의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 그 반대되는 적대세력의 분노도 상승하는 이중적인 반응이 한동안 계속되었으나(4:14,5:11), 이제 부터는 인자의 사역에 대한 배척과 갈등양상만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귀신들린자라고 공격하였으며 비난의 수위도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11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와 탐욕과 신실함과 회개와 겸손과 제자직과 복음증거와 물질(돈)과 용서와 봉사와 감사와 재림과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9:51~19:27)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19:28~21:38).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였을까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성만찬이 끝나고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고발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재판과정에서 심문과 고문은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것으로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흠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새로운 종교에 성령의 새빛을 주었습니다(19:28~24:53). 인자의 죽음은 인자의 패배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승리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빛이 누가에 의해 이방인들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I. 구주론

마태가 예수의 탄생을 요셉을 중심으로 그려 나갔다면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이라는 명제로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하고 예수의 유년시절을 상기 시킴으로서 예수의 탁월한 심성과 인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가 예수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세움으로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은 후 곧 바로 광야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속에서 그는 세상을 무단점령하고 있는 사탄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의식주와 능력과 권력에 관한 세가지 시험을 모두 승리하시고 예수는 유다로 돌아왔습니다(4:13).

회당에 예언서를 들고 나타난 예수께서는 주의 은혜 전파(4:19)가 자신이 온 목적이란 사실을 주지하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5:1~6:11). 회당장에서 나온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그의 위대한 존엄을 보여 주셨습니다(7:1~9:17). 또한 갈릴리 해변가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12제자를 파송하는 등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설교는 비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러가지 비유들은 모두 천국과 관계된 중요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10:28~37), 어리석은 부자(12:13~21),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13:6~9), 천국잔치(14:7~24), 잃어버린 드라크마(15:8~10), 바리새인과 세리(18:9~14)등의 비유를 통하여 이방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여노소, 상중하 계층, 민족적 구별과 차별이 없는 세계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성전정화문제로 유대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19:45~21:4). 그러나 예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과 겿세마네동산의 기도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준비됨과 동시에 실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22:1~38). 예수께서 잡혔을 때 그는 저항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강한 결단과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22:54~23:49).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생각 만큼이나 잔인하였습니다 수모와 채찍의 살 찢는 소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피와 함께 뿌려졌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어디론가 잠적해 버린 시간, 성난 유대군중과 구경나온 이방인들이 그 길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복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 죽음 일보앞에서 또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패하거나 미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모든 만민을 위한 대속물은 이제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무리들에게 남겨 두셨습니다(24:49) 그 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때는 대속물이 아닌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그로 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시대에 이르기 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II. 4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가상철언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34 ④ 요한복음▶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43 ④ 요한복음▶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26~27

㉣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① 마태복음▶27:46 ② 마가복음▶15:34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

㉤ 내가 목마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28

㉥ 다 이루었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 ④ 요한복음▶19:30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① 마태복음▶ ② 마가복음▶ ③ 누가복음▶23:46 ④ 요한복음▶

(5) 개요

I. 서언 : 기록목적과 방법(1:1~4)

II.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1:5~4:13)

- ① 세례요한의 수태고지(1:5~25), ② 인자의 수태고지(1:26~56), ③ 세례요한의 탄생(1:57~80),
- ④ 인자의 탄생(2:1~20), ⑤ 아기에수에 대한 찬양(2:21~38), ⑥ 예수의 유년시절(2:39~52),
- ⑦ 인자의 세례받으심(3:1~22), ⑧ 인자의 족보(3:23~38), ⑨ 시험받으신 인자(4:1~13)

III. 인간을 위한 인자의 사역(4:14~9:50)

- ① 갈릴리전도의 시작(4:14~30),
- ② 인자의 권위(4:31~6:11) : 귀신(4:31~37), 질병(4:38~44), 제자부름(5:1~11), 문둥병자(5:12~16), 중풍병자(5:17~26), 소외당한 자(5:27~39), 안식일의 주인(6:1~5), 불구자(6:6~11)
- ③ 사역의 일군들(6:12~49) : 제자부름(6:12~16), 제자의 길(6:17~49)
- ④ 사역의 발자취(7:1~9:50) : 병자치유(7:1~10), 과부의 아들살림(7:11~17), 의심하는 자(7:18~35),
죄인변호(7:36~50), 인자의 사역을 돕는자(8:1~3), 비유의 해설(8:4~21), 잔잔해진 풍랑(8:22~25),
마귀를 다스림(8:26~39), 죽음과 절망을 회복시킴(8:40~56), 제자의 파견(9:1~9),
오천명을 먹임(9:10~17), 수난의 예고(9:18~50)

IV. 배척당하신 인자(9:51~19:27)

- ① 사마리아인의 배척(9:51~56), ② 세상에 업메인자의 배척(9:57~62),
- ③ 제자70인 파송(10:1~24), ④ 율법사 배척(10:25~37), ⑤ 베다니 나사로집안 영접(10:38~42),
- ⑥ 기도(11:1~13), ⑦ 예수와 바알세불(11:14~36), ⑧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배척(11:37~42),
- ⑨ 배척당하며 베푸신 교훈(12:1~19:27) : 외식(12:1~12), 탐욕(12:13~34), 충성(12:35~48), 세상분열과 징조(12:49~59), 회개(13:1~9), 외식(13:10~17), 하나님나라(13:18~35),
인습에 매인자와 자기를 높이는자(14:1~11), 낮은자를 청하라(14:12~14), 무관심(14:15~24),
제자의 각오(14:25~35),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15:1~32), 부와 용서와 봉사와 감사(16:1~17:19),
장차올 하나님 나라와 들어갈 자(17:20~18:30), 자신의 수난과 구원과 충성(18:31~19:27)

V. 인간을 위한 인자의 수난(19:28~23:56)

- ① 일요일(19:28~44),
- ② 월요일(19:45~48),
- ③ 화요일(20:1~21:38) : 권위(20:1~21:4), 목사적 교훈(21:5~38),
- ④ 수요일(22:1~6),
- ⑤ 목요일(22:7~53) : 성만찬(22:7~38), 겐세마네동산기도(22:39~46), 체포(22:47~53),
- ⑥ 금요일(22:54~23:55) : 베드로부인(22:54~62), 조롱과 채찍(22:63~65),
산헤드린공회 앞(22:66~71), 빌라도 앞(23:1~5), 헤롯 앞(23:6~12), 빌라도 앞2차
(23:13~25),
십자가처형(23:26~49), 장사됨(23:50~55)
- ⑦ 토요일(23:56)

VI. 인간앞에서 증거되신 인자(24:1~53)

- ① 사망에 대한 승리자(24:1~12), ② 예언의 성취자(24:13~35), ③ 부활생명의 양식
(24:36~43),
- ④ 교회의 머리(24:44~48), ⑤ 성령을 주시는 자(24:49), ⑥ 주의 승천(24:50~53)

13. 요한복음(κατὰ Ἰωάννην εὐαγγέλιον, Gospel According to John)

(1) 제목과 기록목적

요한복음(Gospel According to John)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4복음서로 알려진 예수님의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요한에 의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카타 요아넨"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878절로, 사도시대 이후 공관복음이 완성된 후에 기록되고 전해져 왔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에서 정의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85~90년경 사도인 요한에 의해 밧모섬 귀양전,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헬라인들은 헬라적 사고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람들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 서두부터 태초에 존재하는 말씀과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교의 모순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논리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저자(사도요한, AD. 85~90년)

초대교부들이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1,2,3서와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에베소교회 장로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데서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책의 저자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과 에베소교회의 장로 요한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말년을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요한에 의해 요한1,2,3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마태복음10:2)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어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티스마 요한에 의해 예수께 소개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인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마가복음1:20).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마가복음15:40~41),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정규 랍비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마가복음3:17,누가복음9:54,요한복음21:20).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1,2,3서를 기록하였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요한복음3:16)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경멸하고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요한일서1:6,2:4).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상종조차 거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요한이서10). 디오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만천하에 공개할 정도로 그의 신념은 단호하였습니다(요한삼서9:10).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황제에 의해 추방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1:9). 요한은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증거로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의 장래에 대하여 선명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글들로 눈으로 목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트라얀(Trajan) 황제, 즉위 후 사도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소아시아지역의 복음사역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두리속에서 감혀살며 은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주제

"말씀의 성육신, 그리고 영생의 길"(3:16)을 주제로 헬라인들과 온 인류에게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L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유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미 순교자가 되거나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술하지 못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복음의 진리는 구전에 의해서만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2:1~11), 니고데모와의 대화(3:1~15),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4장),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11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13:1~17), 도마(11:16,14:5,20:24~29), 안드레(7:40~51,6:8~9,12:22), 빌립(6:5~7,14:8~9), 유다(12:4)와 같은 사실과 개인정보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과 함께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1~18).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난해한 기록은 곧 그 분이 우리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와 모든 만물이 지은바 되었다는 핵심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육신화 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1:12). 이러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부터 탄생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1:13).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3:16).

(4) 내용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강론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과 인격, 그리고 주를 믿는 신앙의 의미를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으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목적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떡, 빛의 복음과 같이 그들을 향한 예수그리스도의 신성이 내재되어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 두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대명제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요한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1:6~8)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전파되었던 구약과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메시아 사상의 전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지금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분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새로운 방향의 선지자였습니다(마태복음3:1~12)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7가지의 이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Sign)으로 칭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독자들에게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식의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의 목격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2:1~11)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4:46~54), 중풍병자를 고치시며(5:1~16), 무리를 먹이심으로(6:1~13) 영적치유와 약한자를 강하게 하시고 영적 기아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6:16~21),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9:1~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11:1~44) 예수께서는 두려움이 담대한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예수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행렬에 동참하였으나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숫자가 늘어 갈수록,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습니다(2:4~22,7:6,39,11:51~52) 그들의 계략 속에 변수는 제자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가롯유다의 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왜 이러한 악수를 둔 것일까? 문제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세상을 떠돌며 제2, 제3의 가롯유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길과 함께 남은 제자들의 길도 함께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께서 붙잡히신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힘없고 나약한 모습들로 세상에 그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앞에서 의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심문과 고통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눈빛은 선명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길 또한 의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흠어졌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공동체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구원이었습니다 4복음서 모두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생애였습니다 그 분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는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이다(I am)라는 선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Logos),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그림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복음의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헬라어 "세메이아"는 요한의 표적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소경된자를 뜨게 하신것은 예수 자신이 빛이심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늘로 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I.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과 구별되는 것은 각 사건의 내용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관복음이 단회의 유월절(Passover)사건에서 공생애를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요한복음은 3회의 유월절 기사를 전하며 공생애를 3년으로 암시하였습니다(2:23,6:4,13:1) 또한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애 무대를 갈릴리로 한정하였으나 요한복음은 유대지방 사역을 강조한 반면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관복음서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등을 강조하였습니다(6:35,8:12,10:7~14,11:25,14:6,15:1~5) 공관복음서에는 성전정화사건을 공생애 말기로 기록하였으나 요한복음은 공생애 초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2장) 공관복음서에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유대땅으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Parable)가 없고 8대 표적과 개인적인 대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후반부에서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 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메시아로 부각시키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II.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마태복음3:2,4:17)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Kingly rule)와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적 계시가 메시아(누가복음4:16~21)적 사관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태복음11:27)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마태복음26:29)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적 왕권의 의미로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자신과 그 사역에서 역사적 실현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13:16,누가복음10:23,요한복음5:37)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완전하게 표현하시는 그 자체였습니다(요한복음14:9) "아우토바실레이아" 즉, 구체적으로 인격화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마태복음19:29,마가복음10:29,누가복음18:29)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와 기본적으로 성격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대제국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유형과 살육과 정복의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5) 개요

I.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18)

II. 하나님 아들의 증거(1:19~4:54)

① 세례요한(1:19~34), ② 요한의 제자(1:35~51), ③ 가나의 혼인잔치(2:1~11), ④ 예루살렘성전(2:12~25), ⑤ 니고데모(3:1~21), ⑥ 세례요한(3:22~36), ⑦ 사마리아 여자(4:1~42), ⑧ 가버나움의 신하(4:43~54)

III. 하나님 아들과의 대면(5:1~12:50)

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5:1~47) : 베데스다연못(1~9), 유대반발(10~18), 자신의 신성(19~47),

② 유월절 갈릴리에서(6:1~71) : 오병이어기적(1~21), 생명의 떡(22~40), 유대와 제자반응(41~71),

③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변론과 분쟁(7:1~10:21)

④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와 유대인 배척(10:22~42)

⑤ 베다니에서(11:1~12:11) : 죽은 나사로 살림(11:1~44), 예수에 대한 음모(11:45~57),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12:1~8), 예수와 나사로에 대한 음모(12:9~11)

⑥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과 부활에 대한 설교(12:12~50)

IV.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13:1~16:33)

① 사죄(13:1~20), ② 배신당함과 떠나심(13:21~38), ③ 하늘(14:1~14), ④ 성령(14:15~26),

⑤ 평안과 성실(14:27~15:17), ⑥ 세상(15:18~16:6), ⑦ 성령과 재림(16:7~33)

V. 하나님 아들의 중보기도(17:1~26)

VI.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형(18:1~19:42)

① 체포(18:1~11),

② 시련(18:12~19:16) : 안나스(18:12~23), 가야바(18:24~27), 빌라도(18:28~19:16),

③ 십자가에 못박힘(19:17~37), ④ 장사되심(19:38~42)

VII. 하나님 아들의 부활(20:1~21:25)

① 빈무덤(20:1~10)

② 부활하신 주의 나타나심(20:11~21:25) : 막달라마리아(20:11~18), 제자들(20:19~25),

도마가 참석한 제자들(20:26~31), 일곱제자(21:1~14), 베드로와 제자(21:15~25)

14. 사도행전(使徒行傳, Acts of the Apostles)

(1) 제목과 기록목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두 권으로 편집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반부의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이 없이 누가복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AD. 2세기, 두 권이 분리되어 독립된 책으로 구성되면서 후반부의 책은 헬라어로 "행전"이라는 의미의 "프락세이스"로 불리워 졌습니다. 프락세이스는 탁월한 인물의 업적을 사용할 때 쓰는 명칭이었으며 다른 책과는 달리 내용중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AD. 61~62년, 28장 1,007절로 편집하였습니다. 바울의 2~3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로마의 재판에 동행하였던 누가는 자신의 여행기를 토대로 하여 로마재판 기간중에 팔레스타인 또는 가이사라 등지에서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사후, 10여년이 경과한 후 AD. 80~85년경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재판결과에 대한 기록과 네로황제의 극심한 박해(64년), 바울의 죽음(68년), 예루살렘 멸망(70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 전파과정을 밝힘으로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배운바의 확실함(누가복음1:4)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결과적인 논리는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되었지만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교회와 애굽과 로마에서의 전도사업에 대하여 누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12사도들 중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 행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2~12장)와 사도바울(8~15장)의 행적을 따라 잡기에도 힘에 겨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도 완성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에 관한 남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승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장로의 기원(11:30)과 예루살렘교회에서의 야고보의 위상(15:13), 바울이 다소에서 한 일(9:30,11:25)에 관해서는 생략하는 수준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교회확장에 관하여 역사(History)가 아닌 이야기(Story)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과 지방관리들과 로마관리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의 열매와 과실에 대하여 그 과정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 성령운동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저자(누가, AD. 61~62년)

바울의 동역자이며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는 AD. 51년경, 바울이 그리스와 빌립보, 마게도냐지역을 순회 전도여행을 다닐 때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58년경,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전도여행을 동행하였으며, 바울이 체포된 후 가이사랴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행전20:5~21:15). AD. 60년경,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 그 여정을 함께 하였으며(사도행전27:1~28:15), AD. 66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에도 함께 하였을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디모데후서4:11). 바울은 누가를 향하여 "사랑받는 의원"(골로새서4:14, 빌레몬서24)이라고 지칭하였고 자신이 두번째 로마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디모데후서4:11)이라고 세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AD. 61~62년경, 바울의 순교를 예감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령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로서 사도행전과 그 유사성을 가지며 두개의 문서를 모두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모두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문체, 그리스도의 인성,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 당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두 문서가 갖고 있는 계획된 통일성을 보여 줍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하였던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개종자였습니다(사도행전11:25~26).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명한 그림자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후대인들은 매우 둔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책명과 달리 사도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영적 사도로 대표되는 바울의 행로를 따라 두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주제

"성령에 의한 복음의 세계화"(1:8)(성령행전)를 주제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불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의 지상사역을 다루는 누가복음과 성령을 통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로 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예고 받았습니다(1:5). 그와 함께 위로부터 오는 이의 능력을 받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1:8). 그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때 성

령이 마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제자들 위에 강림하여 제자들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2장)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으며 빌립을 사막으로 인도하여 에디오피아왕궁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디옥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이방교회들에게 성령과 우리는(125:28) 전원일치로 그들을 교회공동체요 영적 관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마태복음16:16) 제자들은 그 터전위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사도행전1:8) 오순절이 교회설립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중요한 날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4) 내용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1:8) 그리고 사도행전을 뒤덮고 있는 두명의 위대한 인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교회의 확장은 거세당하고 모든 제자들은 또다시 흩어지고 숨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위기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후에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 오신 성령은 그들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의 역사로 안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앓은뱅이를 일으키고(3:1~26) 수천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의 설교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2:1~47) 그러나 초대교회의 시작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이 발견되었고, 외적으로는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첫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6:8~8:3)

"케리그마"(kerygma)는 사도들의 설교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이땅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산다는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환기는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집사의 사마리아 전도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8:4~25),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방인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을 이어왔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의 추종세력을 추적하던 사울이라는 한 이방인 청년의 회심과 그의 등장되었습니다(9:1~31).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교회에 추천하고 보증한 것은 누가의 삼촌,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역사속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며 역사의 중심반열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여 세계복음화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예루살렘교회의 큰 별 야고보가 헤롯왕에 의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12:1~2).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충이 그를 집어 삼켜 그 또한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12:23).

사도바울은 수리아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AD. 47~48년에 이루어진 1차 전도여행에서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아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갈라디아 성읍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협력하였습니다. AD. 50~52년, 2차전도여행에서는 마게도냐와 헬라지역을 거점으로 전도활동을 강화하여 복음전파속도를 거세게 휘몰아 쳤습니다. AD. 53~58년,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에 장기 체류하며 마게도냐와 헬라지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방문하였습니다. 그후 바울은 유대지도자들의 고소로 체포되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유로 가이사라 주재 베릭스총독에게 압송된 후 2년만인 AD. 59년경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I.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사건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으며 복음의 확장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연속되는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택한자에 대한 구속사역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 준비되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며 성령에 의해 적용된다고 볼때 성령강림은 매우 중요한 구속 사역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오순절 이전의 성령 하나님과 약간의 구별이 요구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제3위로서 동일하지만 그 기능과 사역의 성격상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과 성육신후의 예수님의

차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야만 강림할 수 있고(요한복음16:7),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워졌습니다(요한복음14:16) 즉,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사건은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점으로 인류역사에 직접 강림한 성령의 활동은 세상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연속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공식적인 강림사건으로 유일하고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단회적인 것처럼 성령충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II.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에스겔서36:26과 요엘2:28~32에 이미 예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사도행전2:1~13). 이것을 누가복음3:16에서는 불세례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세례요한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대조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태복음3:11).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무형의 것이며, 중생과 회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성령세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고린도전서3:16)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요한복음14:6, 고린도후서1:22).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성령세례를 이미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세례의 외적 변화로 극적인 감정적 황홀경, 방언, 신체의 진동 등과 동일시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체험은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일뿐 지금은 그러한 징후와 외적변화 보다는 내적 변화를 더욱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타락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16:16~17, 고린도전서12:3, 요한일서4:15).

성령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행되며(고린도전서6:11) 여타의 어떤 인위적인 의식과 형태로도 대체되거나 시행될 수 없습니다. 물세례(사도행전19:1~7)가 상징적 의식인 반면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비적 연합에 있습니다(로마서6:3~4, 골로새서2:12).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이며(고린도후서1:22, 에베소서4:30),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고린도전서12:26~27).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요한복음7:37~39, 사도행전10:44, 15:7~9).

Ⅲ. 로마의 행정과 군대제도

① 행정제도

500년 전통의 원로원제도, 집정관제도, 민회제도, 지방총독제도는 BC. 23년 아구스도에 의해 제국시대 이후에도 존립되었습니다. 원로원 제도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황제는 최고 집정관, 최고 원로원, 최고 호민관의 직위를 겸직하였습니다. 로마시는 황제직할시로 되어 있으며 기타 속주(Province)들에는 총독파견 또는 자치제를 인정하되 황제직할 통치구역도 있었습니다. 총독은 임기만료된 집정관들로 구성되며 원로원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② 군사제도

로마군에는 상비군제도가 없었으며 필요시 모병제로 모집하였으나 마리우스 황제(bc.157~86)가 즉위하면서 극빈자층을 직업군인으로 편입하여 상비군제도가 정착하였습니다. 로마군대는 기본적으로 용병제적 성격을 가지며 부대에 따라 근무기간도 16~26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군대는 황제의 휘하에 소속되었으며, 황제 친위대와 로마시 주둔군 외 군단들, 보조부대들, 민병대, 함대(Fleet) 등 5개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제 친위대와 로마시 주둔군 외에는 속주(Province) 소속의 국경지역 수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군단병사는 입대와 함께 로마시민권을 취득하고 보조부대는 제대시 로마시민권을 부여받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정도로 구성된 백인대의 지휘관을 가르키며 하나의 보병대는 1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한 군단에는 6명의 천부장이 군단사령관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부장은 말단에서 지휘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이며 이사람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 군대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IV. 사도시대역사(AD. 37~100년)

① 조직기(AD.30년)(디베료 가이사 황제(AD.12~37년))

- 성령강림(사도행전2:1~13)
- 사도들에 대한 박해 시작(사도행전2:14~42)
-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사도행전5:1~11)
- 스테반과 빌립 등 7집사 피택(사도행전7:1~60)

② 변혁기(AD.34~45년)(갈리굴라 황제(37~41년), 글라우디오 황제(41~54년))

- AD. 34년
- 빌립의 전도(8:5~13)

-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전도(8:14~25)
- 구스 왕궁 내시의 개종(8:26~40)
- 사울의 다메섹 회심(9:1~19)
-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9:36~43)
- AD. 37년
- 바울의 예루살렘1차방문(9:26)
- AD. 44년
-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12:1~12)
- AD. 45년
- 대기근
- 바울의 예루살렘2차방문(11:30)

③ 확장기(AD. 47~63년)(네로황제(54~68년))

- AD. 47~49년
- 바울의 1차전도여행(13:2~14:28)
- AD. 49년
- 사도회의(예루살렘 공회)(갈라디아2:1,사도행전15장)
- AD. 50~52년
- 바울의 2차전도여행(15:36~18:22)
- AD. 53~58년
- 바울의 3차전도여행(18:23~21:17)
- AD. 58년
- 바울 체포(21:30~26:32)
- AD. 59년
- 베스도가 유다총독이 됨
- 바울의 로마여행
- AD. 61년
- 바울의 로마투옥(28:16)
- AD. 62년
-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 AD. 63년
- 바울 석방

④ 환난기(AD. 64~100년)

- AD. 64년
- 로마 대화재
- 네로의 1차박해

- AD. 66년
- 유대의 반란
- AD. 67년
- 바울의 순교
- AD. 68년(갈바,오도,비델리오 황제(68~69))
- 베드로의 순교
- 수리아 총독의 예루살렘 침입
- AD. 69년(베스파시안 황제(69~79))
- 로마장군 베스파시안의 예루살렘 침입
- AD. 70년
- 예루살렘 함락
- 산헤드린 공회 폐지
- AD. 79~81년 : 디도 황제
- AD. 81~96년 : 도미티아누스 황제(81~96)
- 도미티아누스의 2차박해
- AD. 95년
- 요한 밧모섬에 유배
- AD. 96년(네르바 황제(96~98))
- 도미티아누스의 죽음
- 트라야누스의 3차박해
- AD. 98~117년 : 트라야누스황제(98~117)
- AD. 100~118년
- 암니아 회의(구약정경결정)
- AD. 100년
- 사도요한의 사망

(5) 개요

I.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교(1:1~8:3)

- ① 부활하신 주님(1:1~26) : 성령의 약속(1~5), 승천하시는 주님명령(6~11), 사도의 보충(12~26),
- ② 오순절 : 교회의 기원(2:1~47), ③ 앓은뱅이를 고침(3:1~26), ④ 박해의 시작(4:1~37),
- ⑤ 교회내외에서의 평화와 박해(5:1~42), ⑥ 집사임명(6:1~7), ⑦ 스테반의 첫번째 순교(6:8~8:3)

II. 팔레스틴과 수리아에서의 그리스도교(8:4~12:25)

- ① 사마리아와 가사에서 복음전파하는 성도들(8:4~40), ② 바울의 회심(9:1~31),
- ③ 베드로설교와 이방인들의 개종(9:32~11:30),
- ④ 헤롯에 의한 그리스도교 박해(12:1~25) : 야고보의 죽음(12:1~2), 구출된 베드로(12:3~19), 헤롯의 죽음(12:20~23), 널리 전파되는 말씀(12:24~25)

Ⅲ.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13:1~28:31)

- ① 제1차 전도여행(13:1~14:28) : 안디옥(13:1~3), 구브로(13:4~12), 갈라디아(13:13~14:20), 안디옥복귀(14:21~28)
- ② 예루살렘 공의회(15:1~35) : 할레논쟁(15:1~5), 예루살렘 회의(15:6~18), 결론과 안디옥편지(15:19~35)
- ③ 제2차 전도여행(15:36~18:22) : 동역자선택(15:36~40), 교회재방문(15:41~16:5), 유럽(16:6~10),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사역과 목회(16~11~18:17)
- ④ 제3차 전도여행(18:23~21:26) : 에베소 : 말씀의 능력(18:23~19:41), 그리스(20:1~5), 소아시아 : 드로아와 에베소장로들(20:6~38),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21:1~14), 예루살렘교회와 바울(21:15~26)
- ⑤ 로마여행(21:27~28:31) : 바울의 체포와 변호(21:27~22:29), 산헤드린공회앞에 선 바울(22:30~23:10), 가이사랴로 호송됨(23:11~35), 벨릭스앞에 선 바울(24:1~27), 베스도앞에 선 바울(25:1~27), 아그립바앞에 선 바울(26:1~32), 바울의 항해와 난파된 배(27:1~44), 멜리데에서 로마까지(28:1~16), 바울의 로마생활(28:17~31)

15. 로마서(Letter of Paul to the Romans)

(1) 제목과 기록목적

로마서는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1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로마교회와 로마인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 43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7년경(55~56년)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무렵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도행전20:3~6) 스페인 선교를 위한 바울의 로마교회 방문을 준비하게 하며(1:10~15, 15:22~29), 사도들로 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적인 신

양을 교정해 주기위해 로마서는 기록되었습니다(14:1~6) 바울은 스페인 전도를 위해 로마교회의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로마교회는 사도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는 중에 로마교회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고린도에 체제중이던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부제(Diakonos,집사)였던 뵤뵤가 로마로 가는 길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2) 저자(바울, AD. 57년)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선언할 그 어떤 신학자와 역사가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로마서는 분명한 신학적 캐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상 사도바울의 음성을 듣고 더디오가 대필하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16:22) 이것은 당시 로마와 유대적 관습에 따른 것으로 특별하거나 편집 교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데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관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관점을 로마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이 아

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칭의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당시 기독교 사회 전체를 혼돈으로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소명召命)으로 부터 거듭남(중생重生)-회심(回心)-칭의(稱義)-양자(養子)-성화(聖化)-성도의 견인(堅忍)-영화(榮華)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8단계(The order of salvation)를 설명하며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교리로 등장시켰습니다

I. 바울의 연대기 추정(AD)

- 5년경 : 길리기아 다소 출생(로마시민권자)
- 32~33년 : 스데반집사 순교, 바울의 회심
- 33~39년 : 요단강 동부지역 거주
- 39년 : 예루살렘 방문
- 39~43년 : 시리아와 길리기아 거주
- 43~44년 : 안디옥교회설립하고 바나바와 공동목회 시작
- 44~49년 : 제1차 전도여행
- 49년 : 예루살렘 공의회
- 50~52년 : 제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기록
- 53~58년 : 제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기록, 감옥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기록,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기록, 고린도에서 로마서 기록
- 58년 : 예루살렘에서 체포, 로마로 이송중, 로마전도
- 62~63년 : 석방후 스페인 선교, 고린도교회, 마게도냐교회, 로마교회 방문
- 64~68년 : 로마에서 순교

(3) 주제

"위대한 서신, 기독교의 핵심교리"(1:16~17)(신구약성경의 핵심)를 주제로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방문길을 열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15:14~17) 사도 바울은 이방교회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리스를 떠나 팔레스틴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과 이방교회의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의 극빈층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직접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교회들의 팔레스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교회의 일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을 가진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의의 교리를 조직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義)(1:16~17)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연계시(1:19), 죄의 보편성(3:9~20), 칭의(3:24), 화목제물(3:25), 믿음(4장), 원죄(5:12), 그리스도와의 연합(6장), 이스라엘의 선택과 유기(9~11장), 영적 은사(12:3~8), 권위에 대한 복종(13:1~7) 등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義, Righteousnes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1:18~8:39) 바울은 인간의 불의(不義)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앞에서 어떻게 의로울수 있는가? 하나님앞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 속에는 의에 이르는 길이 생략되어 있지만 로마서에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두 계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9:1~11:36) 바울은 교회생활윤리(12:1~15:13)를 명시함으로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과 그리스도적 사관을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그곳에 방문하기 위한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15:14~16:27)

(4) 내용

로마서는 "바울복음"이라고 불리워 질 정도로 기독교 교리와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주지되는 단어는 "의"(義,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정 반대되는 개념 가운데 기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로마서에는 교리적 차원에서 명료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16절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답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구원"을 중앙에 놓고 왼편에는 "복음을 믿는자"와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① 의의 필요성 : 정죄와 죄(1:1~3:20)

"의"(義, Righteousness)는 왜 필요한가? 이방인(1:18~32)과 유대인(2:17~3:8) 등 온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3:10) 불의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그것은 잠시 잠간의 향락과 희락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은 이와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인 효과를 가지고 도래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란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정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은 다른 모든것은 옳지 않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② 의의 근거와 수여 : 칭의와 구원, 성화와 성별(3:21~8:39)

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일 뿐, 그것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20) 로마서는 의에 대하여 "율법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그 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중요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신분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3:21~31)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4:1~25)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현되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5:1~21)

성화의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6:1~23) 우리가 죄에 속하여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참여하려는가? 하는 문제에서 의의 소속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제에 있어서는 율법의 문제와 또다시 충돌을 빚습니다(7:1~25)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자들인가? 율법이 죄이며 사망의 원인인가? 율법은 단지 깨달음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와 의의 구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표면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별합니다 성화의 능력은 생활의 문제에서 또다시 한계를 맞이합니다(8:1~39) 죄에서 해방된 생활은 이제 가능해 졌는가? 승화된 생활과 기대와 승리의 성화된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은 영육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성령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경계하여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로 인하여 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1:18~3:20),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과(3:21~5:21),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

며(3:21~24),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속죄이며(3:25~26), 구원의 조건이 믿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3:27~31) 칭의의 대표적인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이 거명되고(4장), 칭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밝히고 있습니다(5장) 의에 이르는 길(6~8장)과 성화에 대하여 죄(6:1~23)와 율법(7:1~25)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8:1~39)

③ 의의 변호 : 섭리와 주권(9:1~11:36)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서 야기된 심판에 대하여 경고의 메세지만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남은 자를 두시며 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등 그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들이 백성들에 의해 무시되어 갔습니다(10:1~21)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닫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은 실재로 곧 가시화 할 것입니다

④ 의의 실천 : 적용과 봉사(12:1~16:27)

바울은 성도의 생활이 믿음에 기초하여야 하고, 또한 의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는 교회생활(12:3~8)과 사회생활(12:9~21)과 세상의 권세(13:1~7), 그리고 이웃관계(13:8~14)에 대하여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함을 윤리적인 의무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변화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중지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15:14~33)

I. 구원의 서정 8단계(The order of salvation)

부르심(소명召命)은 거듭남(중생重生)-회심(回心)-칭의(稱義)-양자(養子)-성화(聖化)-성도의 견인(堅忍)-영화(榮華)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8단계(The order of salvation) 가운데 첫번째 과정입니다 구원은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하여 미래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가운데 존재하는 신(GOD)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증명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서정인 부르심, 즉 소명은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하여 증명이 된 구원을 신앙하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Calling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말씀소명(Verbal Calling)과 내적 소명(內的召命, Internal Calling)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정인 거듭남(Regeneration), 즉 중생(重生)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존재하여 있습니다(에베소서2:1)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구원에도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요한복음3:3)

세번째 서정인 회심(回心)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회개(Repentance)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Conversion)은 거듭남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최악된 삶으로 점철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그 삶들을 주 여호와 앞에서 고백함으로서 또 다시 반회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되돌릴수 없는 단회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서정인 칭의(稱義)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Justification)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상태의 모든 사람이 지닌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낸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번째 서정인 양자(養子)는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중요한 법적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Adoption)는 아담의 범죄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양자는 사람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주는 은혜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번째 서정인 성화(聖化)는 중생과 칭의와 양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죄의 오염을 제거하여 성결한 상태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Sanctification)는 성령의 내주 하심과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영혼의 성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서정인 견인(堅忍)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총을 거두거나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성도로서 타락하거나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고의로 일으키지 않는 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견인(Perseveranc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서정인 영화(榮華)는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이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변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Glorification)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으며 이 땅의 고단한 여정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성도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II. 율법과 복음의 관계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섭리가운데 율법은 구약시대 계시의 형태이고 복음은 신약시대의 계시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율법의 피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것으로서 율법의 예고는 모두 복음속에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전후의 발전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 신약으로 대치되었고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로마서10:4) 율법은 문자 그대로 법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죄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밝혀 주었고 형벌을 요구함으로써 구원의 필요성까지는 제공하였으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경고 하였지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 몽학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율법과 복음은 인간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보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율법에는 복음이 소개하는 구원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복음의 희생과 사랑에는 그 복음을 불신하는자를 향한 율법의 경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Ⅲ.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와 그 예배속에서 존재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있습니다(로마서12:1~2) 복음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 그리스도교적 공동생활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로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밝힌바 있습니다(고린도전서12:12) 바울은 성도는 전체의 선을 위하여 상호의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삶을 수행할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로마서12:3~8)

성령의 생명은 그리스도안에서 형제된 동역자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은 초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교회에 잘 알려져 있으며 바울이 적용한 그리스도의 법(갈라디아서6:2)의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13:1~7)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적대국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로마제국을 승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도행전에 반영되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한 정부는 성도의 복종과 협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때 성도는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사도행전4:19) 성도들이 정당한 정부권력에 순응해야 하지만 정부권력도 선을 위해 세움을 받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백성들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정의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위에 있는 권세(13:1)를 천사의 주권과 권세를 지칭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보편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 죽은자라고 할수 있으나 모든 율법은 사랑의 새계명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마가복음12:29~31)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사랑의 법에서 열외되지 아니하고 비교하여 관계할수 없는 것입니다(로마서13:8~10)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암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복음전파에는 로마제국 보다도 유대인의 음모와 계략이 더 매서운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투쟁을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서 준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유지하려고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 가운데 대립되는 요구가 존재한다

고 말하였습니다(로마서14:1~15:6)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내에는 사도 바울처럼 음식과 종교적 절기와 같은 중립적인 문제에 관하여 그 양심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 절제된 음식과 절기엄수와 같은 규정들을 함께 공유할 필요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심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죄해서는 안되며 공동체의 상호존중과 상호격려를 강조하였습니다

(5) 개요

I. 인사(1:1~17)

II. 의의 필요성 : 정죄와 죄(1:18~3:20)

- ① 이방인의 정죄(1:18~32), ② 도덕주의자의 죄(2:1~16), ③ 유대인의 죄(2:17~3:8), ④ 전 인류의 죄(3:9~20)

III. 의의 근거 : 칭의와 구원(3:21~5:21)

- ① 의의 정의(3:21~31), ② 의의 실례(4:1~25), ③ 의의 결과 : 확실한 구원(5:1~11), ④ 의의 가능성(5:12~21)

IV. 의의 수여 : 성화와 성별(6:1~8:39)

- ① 성화의 원리 : 전속의 문제(6:1~23), ② 성화의 실제 : 율법의 문제(7:1~25), ③ 성화의 능력 : 생활의 문제(8:1~39)

V. 의의 변호 : 섭리와 주권(9:1~11:36)

- ① 이스라엘의 과거 : 선택(9:1~29), ② 이스라엘의 현재 : 유기(9:30~10:21), ③ 이스라엘의 미래 : 구원(11:1~36)

VI. 의의 실천 : 적용과 봉사(12:1~15:13)

- ① 본인(12:1~2), ② 교회(12:3~8), ③ 사회(12:9~21), ④ 정부(13:1~14), ⑤ 성도관계(14:1~15:13)

VII. 개인적 메세지와 축복(15:14~16:27)

- ① 바울의 계획(15:14~33), ② 바울의 인사말(16:1~16), ③ 교훈과 축복(16:17~27)

16. 고린도전서(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2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코린디우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 43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 중(AD. 53~58)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도행전19:8~10) 로마서가 가장 이성적인 편지라면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기록한 가장 감성적인 편지라고 할수 있을만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구절이 편지의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소아시아 에베소교회에서 고린도교회가 베드로파와 아볼로파로 분열되어 서로 다툼과 분쟁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였던 바울의 심경이 나타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개의 서신 중 첫번째 서신으로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후서는 교리적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달리 교회생활의 내부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서 초대교회 역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회와 교회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고 처리하였는지를 잘 나타냄으로서 교회의 치리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전도를 위하여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은 어지러운 교회소식을 접하고, 현재 전해지지 않는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5:5)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서둘러 교회를 방문하여 엄격한 치리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고린도후서2:4) 이 세번째 편지도 현재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에 잠긴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떠난 사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적접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그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사도행전20:1~4)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또 다시 들렸습니다(고린도전서1:11,16:17)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고린도전서1:12,9:1)

(2) 저자(바울, AD. 55년)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선언할 그 어떤 신학자와 역사가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고린도전서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 때 바울과 고린도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네개의 서신을 고린도에 전달하였으며 그 가운데 두 통의 서신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된 세번째 서신을 받은 고린도교회는 크게 자성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 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 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 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십자가의 도, 사랑"(15:58)을 주제로 고린도전서는 교회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해석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생활상과 교회내외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세

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 고린도지역의 타락한 분위기와 정서가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과 믿음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사도권을 통하여 분쟁, 음행, 소송사건, 혼인문제, 상찬예식과 은혜의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답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 내용

① 고린도

고린도(Corinth)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도시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협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선박들은 헬라의 남단을 우회하는 위험을 피하려고 이곳을 가로질러 항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중요거점으로서 고린도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집중화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2만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야외극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펼쳐지는 운동경기는 그리스, 로마, 동양인들까지 참석하는 등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고린도의 명물은 역시 1천명의 매춘부들이 성행하는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여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도덕적 타락상은 "코린티아조마이"(헬리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단어가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의미로 퇴색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북쪽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 신전이 있었고 도시의 중심부에는 아폴로 신전이 자리잡고 있는 등 12개 이상의 대형 신전들이 고린도 사회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상권의 남쪽지역에는 술집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수많은 술단지들이 술 창고들로 부터 끊임 없이 옮겨졌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도 타락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서 성화의 서신인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AD.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이웃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점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총독 갈리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등 강한대처로 이어갔지만 그들의 소송전은 번번히 기각되었습니다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도"(고린도전서2:3)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백성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사도행전18:1~17,고린도전서2:3) 그리고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지금은 유실되고 현존하지 않는

한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고린도전서5:9,7:1) 힘들게 설립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상호간에 불만이 커져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회내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분열된 파당문제(고린도전서 1:11), 계모와의 간통사건(5장), 도덕적 타락(고린도전서6:9~20), 그리고 결혼, 음식, 예배, 부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탈선적인 신앙과 풍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루며 세속화의 잔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③ 내용개관

AD. 51년 가을, 바울이 고린도지역을 떠나자 고린도교회는 도시의 타락한 분위기와 그들의 미약한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도권으로 엄격한 교훈을 전달하였으며 논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에게 당면한 교회생활과 교회 내외적인 여러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나뉘어 상호 분열과 비난, 정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1장) 이에 격노한 바울은 믿음이 성령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2장) 고린도교회내의 분파주의는 그들의 지식과 의를 드러내기 보다는 지적 교만과 영적 미성숙을 폭로하는 폭로전일 뿐이었습니다(3장) 바울은 성도들은 자신을 가르친 복음사역자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영생에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4장)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두번째 큰 문제는 음행, 즉 계모와의 간통사건이었습니다(5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를 즉각적으로 징계할 것과 그가 회개할 때까지는 아무도 교제해서는 안된다고 사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도들간에 발생한 소송사건을 세상법정으로 물고 가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고린도전서6:1~8) 고린도교회에 만연한 부덕과 무질서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간절한 권면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6:9~20)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7장)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8~11장)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육체적 방종의 기회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그 자유조차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찬예식과 영적은사의 올바른 사용, 공중예배시의 울

바른 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11~14장) 바울은 영적 은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부활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참된 소망을 기원하였습니다(15장)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주장하였습니다

④ 은사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타"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마"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이든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종 재능, 사명, 직무, 역량 등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한편, 은사는 포괄적인 은혜라는 말에 비하여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그 은혜의 내용과 결과, 종류 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통일성입니다 은사가 비록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졌다 할 지라도 그것은 결코 개인의 교만이나 자랑의 방편이 아니라 지체의식을 갖고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기능을 충실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은사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성장이라는 목적하에서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은사의 개념을 바로 깨닫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실천적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이지적인 은사로 교사직분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로마서8:17) 병고치는 은사는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났던 은사입니다(사도행전3:1~11) 능력 행함은 사도된 증거의 하나로 병고침외에 여러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 능력입니다(고린도후서12:12,사도행전5:1~11,13:8~12) 예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으로 지식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앞일에 대한 예고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사도행전19:6,20:23) 영 분별은 숨은 죄악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사도행전5:1~11)와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요한일서4:1)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은 오순절에 있었던 이방언어(사도행전2:1~4)로 개인적인 영의 교제 또는 기도의 차원(고린도전서14:14~15)으로 나타납니다 방언통역은 방언은사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공중예배시 방언은사의 내용을 밝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입니다(고린도전서14:6) 실천적 은사는 고린도전서12:7~11에 언급된 9가지 은사와는 달리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면에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사로 섬김, 교육, 권유, 구제, 다스림, 긍휼(로마서12:7~8) 등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의 실천입니다(고린도전서12:31,13장)

(5) 개요

I. 인사말(1:1~9)

II. 교회의 분열(1:10~4:21)

① 분열의 상황(1:10~17), ② 분열의 원인 : 십자가의 도, 성령의 계시(1:18~2:16),

③ 분열의 결과(3:1~4:5) : 영적성장의 중지, 상을 잃어버림

III. 교회의 도덕적 혼란(5:1~6:20)

① 근친상간(5:1~13), ② 믿지않는 자들 앞에서의 송사(6:1~8), ③ 도덕적 태만에 관한 경고(6:9~20)

IV. 결혼(7:1~7:40) : 독신생활(7:1~9), 이혼(7:10~24), 성도의 봉사(7:25~38), 재혼(7:39~40)

V. 우상에 바쳤던 음식(8:1~11:1)

VI. 공중예배(11:2~14:40)

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11:2~16), ② 성찬예식(11:17~34), ③ 영적은사활용(12:1~14:40)

VII. 부활의 교리(15:1~58)

VIII . 실무와 개인적 메시지(16:1~24)

17. 고린도후서(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고린도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3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코린디우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 25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 중(AD. 53~58)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도행전19:8~10)

고린도후서는 고린도교회의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며(4~6장,10~13장) 교회내의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함(8~9장)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첫번째 서신을 보낸후 몇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 잡고 예루살렘의 극빈층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바울은 조급한 마음에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드로아를 방문하였으나 찾지 못한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린도로 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나 기쁜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소식과 함께 들은 고린도교회의 또다른 암울한 소식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2) 저자(바울, AD. 55년경)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선언할 그 어떤 신학자와 역사가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성의 정당성과 함께 고린도교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고린도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네개의 서신을 고린도에 전달하였으며 그 가운데 두 통의 서신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된 세번째 서신을 받은 고린도교회는 크게 자성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제3차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즐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

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

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시련과 위로"(12:9)를 주제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듣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힘쓰는 바울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 약속한 헌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부분을 자신의 방어와 변호에 사용하였습니다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와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나타내주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설명과 함께 나열됨으로서 사도의 정당성을 각인시켜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고린도후서4:8~18,11:22~33) 또한 신약성경 가운데 헌금에 관하여 8~9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공동체로서의 나눔을 위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여러지역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분쟁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나약함속에서 스스로의 문제보다 각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주었던 바울의 지속적인 교회사랑과 교회교육으로 그가 지나갔던 교회들은 점점더 자라가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진리와 치리의 문제를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함으로서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한편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적 사명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4) 내용

바울의 자서전으로 통하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사도의 생애와 인간적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서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을때 바울을 부정하는 일부 거짓교사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바울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양측간의 대립은 첨예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소명과 신적 기원을 변호함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허구를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며 자신의 방문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하여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고린도후서1:12~2:4). 또한 교회의 징계결정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것을 권면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2:5~13).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복음의 정당성, 사도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고린도후서2:14~6:10), 고린도교회안에 존재하는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단절할것을 권면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6:11~7:16). 그것은 단지 그들이 바울의 반대파들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폄하하며 사적인 파벌을 조성하여 교회공동체를 헤치는 작용을 빈번하게 일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들의 궁핍함 중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힘을 다한 노력을 예로 들어(고린도후서8:1~6)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줄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8:7~9:15). 이러한 모금활동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마무리 되어 준비되어 질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교회 내에 있던 적대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신적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적대자들 앞에서 나약하고 논리적으로 부

죽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육체와 영적능력이 그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참된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시다(고린도후서10장)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증명을 위해 지식과 성실성, 복음전파를 위한 고난과 업적, 환상과 이적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11:1~12:13) 사도 바울은 세번째 고린도 방문계획을 밝히며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I. 죽음과 죽음에 대한 태도

① 육체적 죽음

인간의 생리적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보편적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전도서12:7,마태복음27:50,사도행전7:59) 육체적 죽음은 죄에서 기원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로마서6:23,히브리서9:27)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적인 경로입니다

②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죽음도 이와 같이 분리 곧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죄로 인하여 분리된 것이며 육체적인 죽음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사야59:2)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는 않았으나 죄와 사망과 질병과 육체적 노동의 고통에 직면하고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③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마지막 단계로서 타락한 인간의 최후 결과이며,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죄인들의 최후 심판을 받아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되어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20:13~15)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요한계시록20:6,요한복음5:24)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15:54~57) 성도들은 인간위에 군림하며 왕노릇 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의 단계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을 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20:6, 요한복음5:24). 죽음은 영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모든 생애를 주께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I. 은혜의 정의와 특징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의의 의미로는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무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극적 의미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부활 등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① 은혜의 특징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에베소서2:8)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정하신 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에베소서1:3~5) 멸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토록 하여 멸망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로마서9:17~18).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은혜의 종류

㉞ 특별은혜(구원은혜) : 특별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자만을 부르사 중생하게 하시는 선택적 은혜를 의미합니다(에베소서2:8~10).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디모데후서1:9~10)과 새로운 책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10:31).

㉟ 일반은혜(보통은혜) :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의미합니다(마태복음5:43~48).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베드로전서3:20)과 인간의 안녕을 위해 악의 팽창을 제어하심(욥기2:6), 질서 유지를 위해 가정, 국가 등과 같은 제반제도를 주심(창세기3:19~21, 로마서13:1~4)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차별적인 자연적 축복(시편145:9,15), 사람에게 따라 나타나는 재능(고린도전서12:4~10)과 우주와 자연이 충돌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연질서(욥기31:26)를 말하

는 것입니다

(5) 개요

I. 인사말(1:1~11)

II.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중재(1:12~2:13)

III. 사도로서 행한 바울의 사역(2:14~6:10)

① 사역에 대한 확신 : 율법주의에 대한 승리(2:14~17), ② 바울을 위한 천거 : 변화된 성도(3:1~3),

③ 사역을 위한 언약 : 새언약(3:4~18), ④ 사역의 특성 : 초자연적 사역(4:1~7),

⑤ 사역의 상황(4:8~18), ⑥ 사역의 중한 책임(5:1~21), ⑦ 사역의 실행(6:1~10)

IV.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교훈(6:11~7:16)

① 마음을 열라(6:11~13), ② 악을 떠나라(6:14~7:1), ③ 회개로 인한 기쁨(7:2~16)

V.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8:1~9:15)

① 헌금의 원리(8:1~6), ② 헌금의 목적(8:7~15), ③ 헌금의 방법(8:16~9:5), ④ 헌금 축복(9:6~15)

VI. 사도권에 관한 바울의 변호(10:1~12:18)

① 바울의 사도적 권위(10:1~18), ② 사도권에 대한 증거(11:1~12:18)

VII. 끝맺는 말(12:19~13:14)

① 회개의 촉구(12:19~21), ② 바울의 계획(13:1~10), ③ 작별인사와 축복(13:11~14)

18. 갈라디아서(Epistle to the Galat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4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칼라타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6년경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 중(AD. 53~58)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로 불리워 지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준 책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란 소아시아 중앙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도시들의 북쪽지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BC. 25년, 로마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소아시아 중앙의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갈라디아 지방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서신의 수신자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대립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남갈라디아설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사도행전16:6,18:23,고린도전서16:1,16:5)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이신득의 사상을 증거하며 유대주의의 모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2) 저자(바울, AD. 56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사도행전18:11~12)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의(以信得義)(2:16)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개종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모세율법과 할례를 강요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갈라디아서1:7,4:14) 바울은 갈라디아교회가 유대교화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

과 갈라디아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제3차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

도나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 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 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 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 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 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 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 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 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 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 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 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 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 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이신득의"(以信得義)(2:16)를 주제로 바울은 오직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받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메세지의 무오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의 메세지인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일으킬 뿐이며 인간은 이 율법의 저주로 부터 구원 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촉구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5~6장)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보다 십자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더욱 절

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본질상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유효하게 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 얻어지는 공적구원은 잊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하여 스스로 구원과 성화를 이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행위가 필요하며 바울은 틀렸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을 주장하며 성령을 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의 이신득의 사상은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교리가 되었으며, 이것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쇠퇴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4) 내용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 옹호론에 미혹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義)롭다 함을 받을수 있다는 복음의 원리를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선포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되는 의(義)나 자유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바울은(1:1~5) 거짓교사들에 의한 왜곡된 진리를 정립하기 위하여(1:6~10) 믿음으로 의(義)에 이룬다는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인 체험에 비추어 변론하였습니다(1:11~24) 또한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근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2:1~10) 베드로에 의해서도 인정과 증명이 된 진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2:11~21) 그러나 바울 역시 율법으로 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以信得義)사상(2:16)은 첫째,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장 역시 믿음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3:1~5) 둘째, 아브라함의 사례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원리는 항상 적용된다는 것입니다(3:6~9) 셋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율법의 저주는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3:10~14) 넷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율법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3:15~18) 다섯째,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3:19~22) 여섯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며 율법에서 해방시킵니다(3:23~4:7) 일곱째, 그리스도안에 존재하는 본

래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4:8~20) 여덟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4:21~31)

율법주의와 은혜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율법을 강조하는 측면(5:1~12)을 은혜가 제동을 걸어 통제하듯이 또한 지나친 자유만을 강조하는 측면을(5:13~6:10) 율법이 제동을 걸어 방종이 되지 않게 함으로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의에 이르게 하는 상호필요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I. 이신득의(以信得義)사상

행함과 믿음, 율법과 복음, 사람들은 이 두가지 문제를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속성상 인간의 자기 의(義)의 행함을 요구하고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속사의 전개에 따른 계시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 발전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신구약의 시대변화와 무관하게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 율법은 복음으로 대체된 것이지만 행함과 믿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신앙규범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한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망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복음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을 불신한 연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신득의(以信得義)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과 품성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음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앞에서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무엇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의로운자 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신득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행위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과 그 해결방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로마서3:9~18) 이신득의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가르쳐 주시며 행위의 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이룰수 있다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신득의 사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외적 업적주의와 형식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내면과 인격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업적과 공로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헌신이 무시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이 행위의 댓가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사상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를 높이 들고 로마카톨릭의 "면죄부"에 대하여 대항함으로써 기독교 태동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대강령이 되었습니다. 이신득의의 근본정신은 구약성경의 하박국에서 바울과 루터와 기독교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II.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옛언약(율법)과 새언약(복음)의 비유(4:21~31)

4장24절 : 하갈과 사라 : 율법의 기원은 종의 위치에 있는 모세이나 복음은 사라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합니다

4장22절 :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 하갈이 사라에게 속한 것처럼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4장28절 : 이스마엘과 이삭 : 율법은 율법에 종속된 자를 생산하며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지만 복음은 자유한 자를 열매로 맺습니다

4장23절 : 종과 약속의 자녀 : 복음은 언약의 본질이나 율법은 복음을 섬기는 위치에 머무는 것입니다

4장25~26절 : 구속과 자유 : 율법은 인간을 영원히 속박하며 행위를 촉구하지만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4장29절 : 육체와 성령 : 율법은 인간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지만 복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인합니다

4장30절 : 추방과 유업상속 : 결정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나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5) 개요

I. 서론 :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1:1~10)

II. 이신득의의 변호 : 바울의 권위(1:11~2:21)

III. 이신득의에 관한 설명 : 바울이 전한 복음(3:1~4:31)

IV. 이신득의의 적용 : 바울의 윤리(5:1~6:10)

V. 결론 : 바울 교훈의 요점(6:11~18)

19. 에베소서(Epistle to the Ephes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에베소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5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에페시우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에베소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첫번째 투옥된 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권의 서신을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3:1,빌립보서1:7,골로새서4:10,빌레몬서9)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표현과 어휘, 용어, 구조, 사상에 비추어 쌍둥이서신 또는 자매서신이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 AD. 61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감옥에 두차례에 걸쳐 투옥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 인근 빈집에 자비로 감금된 채 2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사도행전28:30) 이 서신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맡겨져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차 투옥기간중 석방을 기대하여 AD. 63년경 잠시 나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후 로마대화재 방화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투옥된후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베소는 BC. 11세기경 건설된 소아시아의 정치,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의 대신전이 있어서 에베소는 이상숭배가 절정에 이른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였으나(사도행전18:19), 전도에 심혈을 기울인것은 제3차 전도여행시기였습니다 3년간 정성을 기울인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근 지방까지 전도를 하였으며 이곳에서 복음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후에는 디모데와 사도요한이 차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번영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안에서 통일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교회중심의 생활을 할 것을 주장하며 교회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저자(바울, AD. 62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에베소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제1차 투옥중에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 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생활"(3:10~11)을 주제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완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정과(1:3~14)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1:22~23,4:15~16),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2:21~22), 그리스도의 비밀(3:1~21), 영적인 은사(4:7~16),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등의 문제를 다루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성도는 누구이며(1~3장), 그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바울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4~6장)

(4) 내용

죄로 인한 만물의 부정과 단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는 궁극적 일치와 통일을 보여주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하는 통일"이었습니다(1:10,2:13~16,4:4~6)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총을 교회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1:3~6),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1:7~12), 성령의 인치심(1:13~14)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1:15~23)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과 죄악 가운데 거하던 과거의 삶을 조명해 봄으로서 성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한 것임을 밝혀 주었습니다(2:1~10) 그리스도의 구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에 불과하였던(2:12) 이방인들에게 까지 적용되며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복음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몸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3:6)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하여 바울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안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처럼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생활지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5:22~6:9) 사도 바울은 사단과 성도간에 존재하는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전하며 축복의 메세시로 마감하였습니다(6:10~24)

I. 에베소서의 3대 사상

성경학자들에 의해 가장 심오한 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에베소서는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이

전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펼쳐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장벽을 부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계속 주를 닮아감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에베소서4:13). 우리는 한분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통하여 서로 화평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① 하나님의 선택(Election)

논쟁의 포커스가 되는 이 교리가 1장4절에 확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중요한 진리적 사실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이 선택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② 화해(Reconciliation)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인간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 흐르는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단절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의 교각을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새 인류로 자신의 몸(교회)안으로 함께 초청함으로써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인습을 깨뜨렸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남여는 물론 노소와 빈부격차 등 모두 평등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③ 교회(Church)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충격적인 사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육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위하여 주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5장)라고 지칭함으로써 신랑되시는 주께 순종을 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몸의 여러 지체로 표현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단결과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란 일차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유형적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의미의 교회는 제도적 실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실체로 완성과 내세를 향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

되신 자격으로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기관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모든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3대사역에는 예배, 전도, 교육의 "말씀선포"를 의미하는 "케리그마"와 구제와 건덕과 사회개발의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와 성도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 의식의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3대요소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건강성을 가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5) 개요

- I. 인사말(1:1~2)
- II. 성도의 지위(1:3~3:21) : 택함(1:3~23), 은혜구원(2:1~10), 화목(2:11~22)
- III. 성도의 생활(4:1~6:9) : 옛사람을 버리라(4:17~32), 가정생활(5:22~6:4)
- IV. 성도의 전투(6:10~20) : 전신갑주(6:13~20)
- V. 결론(6:21~24)

20. 빌립보서(The Epistle of St. Paul to the Philipp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빌립보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6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필립페시우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 10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첫번째 투옥된 후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23~24)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권의 서신을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3:1,빌립보서1:7,골로새서4:10,빌레몬서9) AD. 61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감옥에 두차례에 걸쳐 투옥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 인근 빈집에 자비로 감금된 채 2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사도행전28:30) 이 서신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맡겨져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차 투옥기간중 석방을 기대하여 AD. 63년경 잠시 나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후 로마 대화재 방화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투옥된후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인사로 빌립보서를 시작하였습니다(4:10~18)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사실이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척시키는 것임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1:12~26) 바울은 빌립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열의 위험성에 대하여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2:1~11), 율법주의가 복음에 미치는 해악들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생활에 대한 비관론과 함께 유대주의자들의 분쟁과 분열이 한꺼번에 빌립보 교회를 휘몰아 칠때 바울의 서신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 야망과 경쟁구도(2:3~4),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들(3:1~3), 완전주의(3:12~14), 반율법주의적 자유 사상가들의 영향(3:18~19) 등 교회내적인 문제들을 방치하고 외면할 경우 초창기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미래는 암울해 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교훈하고 진리수호를 촉구하였습니다

(2) 저자(바울, AD. 62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빌립보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며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심경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제1차 투옥중에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정형화된 논리와 형식보다는 내면적 신앙의 간증과 사랑의 편지, 그리고 기쁨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위험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영적 최상의 단계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진리안에 거함으로서 담대함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

카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도의 평화"(3:10)를 주제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련과 고통, 원수들의 적대적 행위 등 그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원수들에 의해 당하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기쁨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교회도 분쟁과 분열을 중단하고 유대주의의 편협한 사고를 개혁하여 교회공동체를 세워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신학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에 대한 실제적인 강조를 위해 심오한 신학적 중요성을 지닌 구절을 소개하였습니다(2:5~1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바울교리의 "로커스 클라씨커스"(Locus classicus)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교리에 근본적인 것으로 주님의 선재하심과 성육신의 높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2:7)라는 언급은 "신성을 버리는 일"이라는 "케노시스"(Kenosis)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4) 내용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제의 부왕인 마게도냐의 빌립왕에 의해 창건된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축도라고 불려질 만큼 번영을 누렸으며 BC. 42년경 빌립보 근처에서 브루투스(Brutus), 카시우스(Cassius)의 연합군과 안토니(Anthony), 옥타비안(Octavian) 연합군의 격전지로 유명하였습니다. 빌립보는 지주 장사 루디아와 한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서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중에 설립된 교회로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하였습니다. 빌립보 서신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 바울의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 하였으며(4:16), 바울이 로마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한번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안 병약하여졌으나 회복된 후 빌립보로 돌려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기쁨과 함께 빌립보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1:3~11). 바울은 로마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전파에 유익을 주었다며 감금생활을 염려하는 빌립보의 불안한 심리를 위로하고 안정시켰습니다(1:12~26).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증진할 것을 촉구

구하였습니다(1:27~30)

바울은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1~4)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로커스 클라씨커스"(Locus classicus)를 사례로 들며(2:5~11)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2:12~18)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2:19~30)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보다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순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3장)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함으로서 교회내의 분쟁을 해결하되 확산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소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4:1~9)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교회내의 작은 파열음과 유대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며 믿음을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뢰도를 폄하하는 영적 일탈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I.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성경 66권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축복의 구원을 주제로 성경 66권은 40명의 저자가 1,000년에 걸쳐서 완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법, 제사, 시, 서신 등 다양한 글들이 시대와 배경을 달리한 채 이어져 왔으나 그것이 가르키는 방향은 오직 한 곳, 메시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직접적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의 그림자가 길게 느껴져 있습니다 신구약성경 66권의 주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약성경

- ▶ 창세기 : 창조주 하나님 ▶ 출애굽기 : 유월절 어린양 ▶ 레위기 : 속죄제물 ▶ 민수기 : 인도의 주
- ▶ 신명기 : 참 선지자 ▶ 여호수아 : 구원의 주 ▶ 사사기 : 우리의 심판자 ▶ 룻기 : 우리의 친족

- ▶ 사무엘상~역대하 : 우리의 왕 ▶ 에스라, 느헤미야 : 우리의 구속자 ▶ 에스더 : 우리의 대변자
- ▶ 욥기 : 나의 구속자 ▶ 시편 : 우리의 전부 ▶ 잠언 : 우리의 지혜 ▶ 전도서 : 행복의 전제
- ▶ 아가서 : 우리 영혼의 연인 ▶ 이사야 : 메시아 ▶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 의로운 가지
- ▶ 에스겔 : 인자 ▶ 다니엘 : 부숴뜨리는 돌 ▶ 호세아 : 죄된 우리의 치유자 ▶ 요엘 : 회복자
- ▶ 아모스 : 하늘의 군대장관 ▶ 오바다 : 우리의 구주 ▶ 요나 : 우리의 부활 ▶ 미가 : 온세상의 주관자 ▶ 나훔 : 환난날의 산성 ▶ 하박국 : 구원의 하나님 ▶ 스바냐 : 질투의 하나님 ▶ 학개 : 열방의 소망
- ▶ 스가랴 : 의로우 가지 ▶ 말라기 : 의로운 태양

② 신약성경

- ▶ 마태복음 : 약속된 메시아 ▶ 마가복음 : 하나님의 종 ▶ 누가복음 : 인자 ▶ 요한복음 : 하나님 아들 ▶ 사도행전 : 살아계신 주 ▶ 로마서 : 우리의 의(義) ▶ 고린도전서 : 우리의 주
- ▶ 고린도후서 : 우리의 총족자 ▶ 갈라디아서 : 우리의 자유 ▶ 에베소서 : 우리의 전부
- ▶ 빌립보서 : 우리의 기쁨 ▶ 골로새서 : 우리의 생명 ▶ 데살로니가전서 : 오실 분
- ▶ 데살로니가후서 : 우리의 재림주 ▶ 디모데전서 : 우리의 교사 ▶ 디모데후서 : 우리의 모범
- ▶ 디도서 : 우리의 모범 ▶ 빌레몬서 : 우리의 주시며 상전 ▶ 히브리서 : 우리의 증보자
- ▶ 야고보서 : 우리의 모범 ▶ 베드로전서 : 모퉁이 돌 ▶ 베드로후서 : 우리의 힘
- ▶ 요한일서 : 사랑의 원동력 ▶ 요한이서 : 진리 ▶ 요한삼서 : 길 ▶ 유다서 : 보호자
- ▶ 요한계시록 : 개선하시는 주

(5) 개요

- I. 인사와 감사의 말(1:1~11)
- II. 투옥된 바울의 간증 : 더욱 전파되는 그리스도(1:12~30)
- III. 성도의 생활양식 : 겸손하신 그리스도(2:1~30)
- IV. 성도의 삶에 따른 상급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3:1~21)
- V. 성도들의 평화 :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4:1~23)

21. 골로새서(Epistle to the Colossians)

(1) 제목과 기록목적

골로새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7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콜라사에이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골로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 9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첫번째 투옥된 후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23~24)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권의 서신을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3:1,빌립보서1:7,골로새서4:10,빌레몬서9)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표현과 어휘, 용어, 구조, 사상에 비추어 "쌍둥이서신" 또는 "자매서신"이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 AD. 61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감옥에 두차례에 걸쳐 투옥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 인근 빈집에 자비로 감금된 채 2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사도행전28:30) 이 서신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맡겨져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차 투옥기간중 석방을 기대하여 AD. 63년경 잠시 나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후 로마 대화재 방화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투옥된후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 부터 교회내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단을 배격하며 바른 기독교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들의 관습이 무척 거슬렸습니다 갈라디아와 인접한 골로새에 대두되기 시작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와 이방인들의 혼합종교들은 필연적으로 충돌위기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사도행전19:14~18) 이곳에서도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유대주의 또는 헬라 철학과 혼합할 위험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2) 저자(바울, AD. 62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

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 때 바울과 골로새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내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잦은 충돌, 그리고 헬라적 문화와 혼합주의 등을 해결하고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제1차 투옥중에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골로새서의 바울 저자문제는 지속적인 의구심속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 일부가 에베소에서도 발견된 점은 하나의 사도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기록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정형화된 논리와 형식보다는 내면적 신앙의 간증과 사랑의 편지, 그리고 기쁨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위험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영적 최상의 단계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진리안에 거함으로서 담대함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 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 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ἀ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

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소명"(1:18)을 주제로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교리를 설명한 후 행동의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와 오랜 관행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그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며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에서 심리적 공황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멀리 온 인생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교회공동체를 헤치는 분쟁을 가속화하였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아울러 헬라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 물결이 골로새를 요동치며 위협하는 상황속에서 바울의 엄격한 치리와 단호함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교회의 길이었습니

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론적 교리와 실천적 윤리가 연결되는 특유의 구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로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고 교회의 머리와 화해자(Reconciler)가 되시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 관계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원론에 입각한 신비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영지주의자(Gnosticism)자들을 반박하고 예수를 유일한 주시며 구속자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내용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 160km지점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인근지역으로 쇠퇴과정을 걷고 있는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라디아교회로 부터 복음이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최초의 선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시기와 동일한 시점이었습니다(AD. 53~56년, 사도행전19:10) 그후 에바브라가 이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을 담당하며 사실상 설립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2:1)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방문하였거나 그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을때(빌레몬서23) 미혹의 영들에 관한 소식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 유대의 율법주의, 헬라의 철학, 동방의 신비주의를 융합시킨 신비주의였습니다. 음식규정, 안식일 준수, 할례의식(2:11~16), 중보자로서의 천사송배(2:18)는 유대교와 혼합된 잔재들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강조, 육체를 악하게 보는 금욕주의(2:21~23), 우주적 신성의 플레로마(Pleroma)(영지주의, 충만한 상태) 등은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이단사상은 왜곡된 유대주의와 이방사상의 혼합주의를 갖고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혼합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바울은 거짓교사들의 용어를 역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일한 중보자(Mediator)이신 그리스도께만 오직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는 우주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자신에게 복종시켰습니다(2:3,9,10,15). 바울은 창조의 주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중심성으로부터 이탈하면 그 어떤 가르침과 행위와 중재라도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내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 유대적 율법주의와 의식주의, 천사송배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영적,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므로 이러한 이단사상이 전혀 무가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주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대상이 된다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1~2장).

사도바울은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1:3~8).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1:9~14). 그리스도는 창조(1:15~18)와 구속(1:19~23)에 있어서 머리가 되므로 마땅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1:24~2:3). 이러한 창조주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2:4~23). 이것은 당시 거짓교사들이 유포하던 이성주의(2:4~7), 거짓 철학(2:8~10), 형식주의(2:11~17), 신비주의(2:18~19), 금욕주의(2:20~23)에 대하여 배타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차원이 다른 복음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권능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행위적 실천에 있어서도 확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된 성도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죄악된 행위로 부터 자유하며(3:5~11),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3:12~17). 이러한 원리가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외적 생활로 적용될때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3:18~4:6).

I. 계시의 점진성

계시(Revelatio)란 감취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계시의 점진성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비밀을 점차적으로 공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역사를 말하는 성경신학에서는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원시시대(창세기1~3장), 노아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왕국시대, 초림, 성령강림 등 7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원시시대의 계시(창세기1~3장)

에덴동산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계시 형태로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며 여기에는 생명나무(생명원리 상징), 선악과나무(죄와 시련의 원리), 뱀(시험), 욱신의 죽음(영적 사망의 상징) 등 4대 상징 계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15절에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밝혀주는 최초의 구속계시가 등장합니다.

② 노아시대의 계시(창세기4~9장)

노아 홍수를 전후해 주어진 계시들은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어 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③ 족장시대의 계시(창세기12~50장)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시대의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상(창세기15:1,17:1,20:6), 하나님의 현현(창세기16:7,22:11), 꿈(창세기15:12~16,28:12,35:9) 등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계시의 내용도 메시아가 통치하실 미래적 왕국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창세기12:2,17:5)

④ 모세시대의 계시(출애굽기1~신명기34장)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사건과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제사법규들은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⑤ 왕국시대(예언시대)의 계시(사무엘상~말라기)

사무엘로 시작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신정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계시가 구약성경 전반에 걸집되었고 메시아의 초림을 구체적으로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⑥ 그리스도의 초림(4복음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Self Revelation)는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계시의 중심인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19:30)

⑦ 성령강림(사도행전~요한계시록)

오순절 보혜사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구속사역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는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완성되면서 계시의 발전은 최종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는 형태로는 씨앗에서 성장한 나무로 발전되고, 대상으로는 개인에서 가족과 민족과 온 인류로 확산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에덴동산 원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II. 그리스도의 본성

①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로마서9:14, 빌립보서2:6, 디도서2:13)이며, 하나님의 아들(마태복음16:16)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한계시록19:16)로, 전능(마태복음28:18)하고, 전지(요한복음1:48)하며, 무소부재의 신적속성(마태복음18:20)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요한복음1:3)와 보존(골로새서1:17), 죄의 용서(누가복음7:48)와 심판(5:27)주로서의 신적사역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시고(요한복음15:26),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요한복음5:25) 완전한 신(God)임을 보여 주십니다

㉞ 구약의 예언 : 전능하신 하나님(이사야9:6), 여호와와 의(예레미야23:5~6),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다니엘7:13), 언약의 사자(말라기3:1~2)

㉟ 예수의 자의식 :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마태복음11:27, 요한복음17:1)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심(요한복음5:18)

㊱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 마태(마태복음1:23), 누가(누가복음1:31), 사도요한(요한복음1:1), 세례요한(요한복음1:34), 베드로(마태복음16:16), 도마(요한복음20:28), 바울(로마서1:4, 사도행전9:19~20, 골로새서1:15)

㊲ 예수의 선재 :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요한복음1:1, 골로새서1:15~17, 마가서5:2)

② 그리스도의 인성

㉞ 완전한 인성에 대한 증거 : 구약의 증언으로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며(창세기3:15), 아브라함의 씨로 오며(창세기22:15~18), 다윗의 혈통을 이어 받으며(사무엘하7:12~13),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이사야7:14, 9:6) 예수는 스스로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요한복음8:39~40) 신약의 저자들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하였습니다(로마서5:15, 고린도전서15:21, 디모데전서2:5) 예수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요한복음1:14, 디모데전서3:16, 요한일서4:2~3)

영혼을 가지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마태복음27:50,누가복음23:46) 예수는 보통의 인간과 동일한 성장과정을 거쳤습니다(누가복음2:40,52,히브리서5:8) 인간이 가지는 배고픔과(마태복음4:2) 피곤함과(마태복음8:24) 희노애락의 감정(마가복음3:5,요한복음11:35,누가복음22:44)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마태복음24:36,누가복음7:9)

㉔ 무죄한 인성에 대한 증명 :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하였으므로 인간의 유전적 부패로 부터 자유하였습니다(누가복음1:35) 죄의식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추궁당하거나 책임을 당한 바가 없습니다(요한복음8:46) 다른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누가복음23:34,요한복음3:3~5)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무죄함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고린도후서5:21,히브리서4:15,베드로전서2:22,요한일서3:5)

(5) 개요

- I. 머리말(1:1~14)
- II. 뛰어나신 그리스도(1:15~29)
- III. 뛰어난 그리스도교(2:1~23)
- IV. 뛰어난 소명(3:1~4:6)
- V. 결론(4:7~18)

22. 데살로니가전서(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ca)

(1) 제목과 기록목적

데살로니가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8 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8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0년경(51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중(AD.50~52년) 갈리오가 고린도총독으로 부임(AD. 51년 여름)하기 전(사도행전18:11~12)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열한 방해를 극복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설립한 그들은 베뢰아를 경유하여 아덴지역까지 갔습니다(사도행전17:10~15) 아덴에서 바울은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3:1~5)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데살로니가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전하였습니다(3:6)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부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기간이 한달도 않된다고 주장합니다(사도행전17:2)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그의 사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1:9) 데살로니가전서는 안심하고 기뻐하는 목자가 그의 성장하는 양무리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3:3~5)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며(4:1~8) 일상생활중에 충실할 것과(4:11~12) 죽은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2) 저자(바울, AD. 50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골로새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사도행전17:1~9)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석방된 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상업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침묵한 박해속에서도 유럽지역 두번째 교회를 끝내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묘한 방해공작과 박해와 계략에 의해(사도행전17:10~15) 바울

은 아텐으로 가야만 했고, 그는 그곳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환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믿음에 정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 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

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예수, 우리의 소망"(4:16~17)을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유대교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며 소용돌이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인들은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원리를 정립시켜 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줄 목적으로 서신을 기록하

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과 기구없이 성도들 전체가 하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교회들은 여전히 사도들의 지도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바울은 특별한 주제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전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바울은 강하나 겸손하고 징계하면서도 사랑하고 불굴의 용기와 순수한 정열을 가진 인간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림을 전후로 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때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축복과 인내를 믿음으로서 이겨 낼 것을 응원하는 바울의 심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4) 내용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제2차 전도여행중 빌립보에서 석방된 직후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무역과 상업중심의 항구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향하였습니다(사도행전17:1~9) 데살로니가는 BC. 315년, 카산더(BC.358~297)가 창설한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란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자매인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이어 유럽에 두번째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회당소속의 상류층 인사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의 행적이 묘연해 지자 바울의 숙소를 마련하였던 야손에게 가이사(市)의 반역자를 숨겨주었다는 죄목을 씌워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市) 당국자들은 야손에게 질서유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였으며 바울 일행은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당의 훼방속에서 어렵게 설립된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운 바울은 베뢰아를 경유하여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내어 그곳 소식을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의연하게 대처하며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3:6)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룩한 믿음의 진보에 대한 칭찬과 역경중에 굳게 서며 행위에 있어서도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권면, 순교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

여 언급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4:13~5:11)

바울은 헬라인에게 은혜와 히브리인들에게는 평강의 인사를 드리며, 이방종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초기시절을 회상하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론을 상기하였습니다(2:1~16).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파견한 디모데로 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강건하다는 보고를 받고(2:17~3:10)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도록 기원하였습니다(3:11~13).

바울은 신앙적인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서 믿음은 단지 그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열매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4:1~12).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4:13~18)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자들이 부활할것을 밝힘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5:1~11). 그러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또한 철저해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4:1~18)과 재림론(5:1~28)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말세적 사관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녔던 소극적인 재림관, 곧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관을 지양해야 하고, 보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전도서9:10,에베소서4:28,데살로니가후서3:12).

바울은 재림관과 함께 언제 어떤방식으로 임하게 될지 알수 없는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섯가지를 교훈하였습니다. 첫째, 항상 깨어 근신하여야 하며, 둘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셋째, 권면과 화목과 위로와 인내와 선행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넷째,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다섯째, 성령과 예언을 보전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I. 데살로니가교회의 문제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재적 생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성도덕의 문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4:1~8) 성생활에 있어서 순결성은 중요한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4:7)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되신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사회적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별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4:9~12)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로부터 이탈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별성은 그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중단하거나 별도의 사회를 조직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4:13~18)는 더욱더 어려운 논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상적이고 세상비관적인 관습에 젖은 데살로니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활의 속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은 또한 휴거와의 밀접한 연관관계속에서 중요한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 또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5:16~18)

II. 휴거(Rapture)(데살로니가전서4:14~17)

① 정의 : 휴거, 즉 공중들림은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라피오"(Rapio)에서 유래한 단어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에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그 현상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휴거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때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4:16~17)

② 고전적 사례 : 이러한 휴거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창세기5:24, 열왕기하2:11)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전도자 빌립과(사도행전8:39~40) 사도 바울(고린도후서12:1~4)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형태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누가복음24:50~51, 사도행전1:9~11)

③ 시기 : 휴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구절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및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발생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세가지의 견해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환난전 휴거설(Pre tribulation view)은 휴거와 재림 사이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으며 휴거는 대환란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 휴거설(Mid tribulation view)은 7년 대환란을 3년6개월씩 양분하여 전3년반이 종료되는 중간 시점에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환난후 휴거설(Post tribulation view)은 7년 환난후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각각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학설들입니다.

휴거의 시기와 도래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여 기름등불을 확인하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5) 개요

I.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1:1~3:13)

II. 실생활에 대한 교훈(4:1~5:28)

23. 데살로니가후서(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ca)

(1) 제목과 기록목적

데살로니가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9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 4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50년경(51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중(AD.50~52년) 갈리오가 고린도총독으로 부임(AD. 51년 여름)하기 전(사도행전18:11~12)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지 몇달만에 다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와 비교해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시한번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1:5~10), 재림에 대한 불식되지 않은 오해를 시정하며(2:1~12), 생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2:13~3:15) 권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 파장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 종말이 임하였다고 믿는 교인들이 일하기를 멈추고 생계수단의 생활들을 정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3:6~11)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고 바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2) 저자(바울, AD. 50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골로새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사도행전17:1~9)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석방된 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상업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침묵한 박해속에서도 유럽지역 두번째 교회를 끝내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묘한 방해공작과 박해와 계략에 의해(사도행전17:10~15) 바울은 아텐으로 가야만 했고, 그는 그곳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환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믿음에 정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신자에 불과하였던 그들은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였던 종말과 재림과 휴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시 어느 교회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판된 세력이 교회를 주도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을때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하는 내부의 성도들이 내부의 적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지속적으로 변론해야 하는 난감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1세기 내내 문제로 지적되며 바울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였으며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의 승인 또한 재차 밝혀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심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그 생활을 유지하며 정결하게 기다릴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ἀ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울

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

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인내로 굳게 서라"(2:15)(주의 재림과 교회)는 주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내의 거짓교리를 전파하는자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심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잊지 말아라고 시작하며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으로 변할 것이므로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이어 거짓교사들이 전파하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류와 사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임한다고 하였으며 재림에 대한 강한 기대속에 살되 주어진 현실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4) 내용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와 같은 장소에서 몇개월이 지난 시기에 연이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로 부터 첫번째 편지의 답장을 받은 사도는 재림에 관한 그의 가르침(데살로니가전서5:1~11)에 관하여 다소 오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2:2)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재림과 심판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가 가져온 파장은 의외로 크게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3:6~11) 바울은 재림의 탈선적 현상을 엄히 경고하고 건전한 재림신앙을 교육하고자 두번째 서신을 급히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어 고난과 핍박속에서도 인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위로로 시작된 데살로니가후서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한 후에 미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연단을 받는데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박해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고난받은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세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억측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2장) 그보다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입니다(다니엘9:27,마태복음24 | 25,요한계시록11:7,13:1~10)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2:4) 미혹된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고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날은 왕성하지도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

의 날에는 모든 어둠은 빛에 의해 부서지고 망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더욱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3:1~5) 예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진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며 아울러 이들과 같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속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3:6~15) 교인들에대한 축복을 베풀었습니다(3:16~18)

I.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1) 재림의 징조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24:30,25:19,요한복음14:3) 승천할 때 천사도 재림을 예고 하였습니다(사도행전1:11)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사도행전3:20~21, 빌립보서3:20, 데살로니가전서4:15, 데살로니가후서 1:7~10, 디도서2:13, 히브리서9:28)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마태 복음24:43, 베드로후서3:10) 그러나 재림의 징조는 보여 주셨습니다

① 복음의 세계적 전파 :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기회가 보편적,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마태복음24:14, 로마서11:25)

② 이스라엘의 회심 : 이스라엘 민족중 많은 사람이 대각성회개를 일으키며 돌아오게 됩니다(스가랴12:10, 로마서11:25~26)

③ 적그리스도의 출현 :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히며 복음전파를 더디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절될 것입니다(데살로니가후서2:3~10)

④ 대배교와 대환난 : 거짓 선지자(마태복음24:11,24)와 거짓 그리스도(마태복음 24:5,23)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절하게 만들며 성도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마태복음24:7~9,21)

(2) 재림의 양식

① 인격적 재림 : 재림의 기사는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우신 그대로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사도행전1:11)

② 형태적 재림 : 오순절에 영으로 임한 것과는 달리 육신을 입은 몸으로 오십니다(사도행전1:11,3:20~21, 히브리서9:28, 요한계시록1:7)

- ③ 가시적 재림 :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루어 지는 재림입니다(요한계시록 1:7)
- ④ 돌발적 재림 : 몇가지 징조가 선행할 것이나 그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
니다(마태복음24:44,마가복음13:33)
- ⑤ 영광과 승리의 재림 : 초림과는 대조적으로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마태복음24:30~31,데살로니가전서4:16,데살로니가후서1:7~8)
- ⑥ 완성적 재림 :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며 악인의 최후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마태
복음25:31~33,사도행전1:11,데살로니가전서4:16~17)

(3) 재림의 목적

죽은 성도의 부활(요한복음5:28~29,고린도전서15:23,데살로니가전서4:16), 생존한 성
도의 변화(고린도전서15:51~52,데살로니가전서4:16~17), 어린양의 혼인잔치(마태복
음25:1~13), 성도의 상급(디모데후서4:8), 악한세력의 파멸(데살로니가후서2:8,요한계
시록19:19~21,20:1~2)을 위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4) 심판의 성격

이 세상에 있는 궁극적인 심판이며(사도행전24:25,히브리서9:27), 단회적이며 유형적
으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요한복음5:28~29,요한계시록20:12~15)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마태복음5:45,13:29)

(5) 심판자와 심판의 대상

- ① 심판자 :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지만(로마서14:10~12,히브리서
12:23~24)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십니다(마태복음7:23,고린도후서5:10,요한계시록19:11~16) 즉, 하
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요한복음5:22,로마서2:16)
- ② 심판의 수종자 : 천사들(마태복음13:41~42)
- ③ 심판의 협조자 : 성도들(고린도전서6:2~3,요한계시록20:3)
- ④ 심판의 대상자 : 사단(요한계시록20:7~10), 사단의 사자들(마태복음25:41,누가복음
8:30~31), 불신자들(전도서12:14,마태복음13:36)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지는 것입
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상급에 대한 생명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3:11~15,디모데후서4:7~8,요한계시록22:12)

(5) 개요

- I. 인사말(1:1~2)
- II. 환난을 이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1:3~12)
- III. 주의 재림에 관한 바른 견해(2:1~17)
- IV. 기도와 규율에 관한 교훈(3:1~15)
- V. 결론과 축복(3:16~18)

24. 디모데전서(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imothy)

(1) 제목과 기록목적

디모데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10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디모데온 알파"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 에베소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기록한 서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석방되어 동방을 여행하는중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세력에 대한 경고와 에베소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여 교회조직의 효과적인 운용과 바른 목회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인 부친과 경건한 유대인 모친 유니게 사이에서 출생한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부터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디모데후서1:5,사도행전16:1~3)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할때 그는 니고볼리로 가는 길에 있었으나 디모데는 에베소와 소아시아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으나(3:14,4:13) 그동안 이 서신을 보내어 디모데가 목회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 저자(바울, AD. 63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디모데전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바울의 저자설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구심과 반박논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여전히 바울의 저자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에베소로 귀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3:14~15) 디모데에게 목회서신형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교회를 뒤엎고 있는 영지주의와 거짓교리를 배격하고(1:3~7,4:1~8),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질서와 행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회서신에 기록된 주요사건들은 일곱가지 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자기가 살던 셋집에서 체포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자들이 로마황제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의 감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북부지역의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디모데전서1:3) 또한 바울은 그레데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디도를 역시 남겨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의 니고볼리로 향하여 갔습니다(디도서3:12) 마게도냐 또는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방문하고(디모데후서4:13) 그곳에서 갑자기 체포된 후 로마로 이송되어 구금되었다가 디모데후서를 남긴채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ἀ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울

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

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선한 길로 행하라"(6:11)는 주제로 에베소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책망, 그리고 치리의 명확성을 밝혀주는 바울의 목회서신은 그의 친밀한 동역자 디모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단경계가 서신의 주류를 이루며 그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닌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며 교회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며 바르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작용이지만 성도가 잘못할 때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잠언3:11~12, 히브리서12:7~9, 고린도전서11:32).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며(신명기8:5~6),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하고(히브리서12:9),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며(히브리서12:10),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히브리서12:11)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잠언3:11)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욥기5:17) 낙심하지 말고(히브리서15:7) 인내로서(히브리서12:11~13) 징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4) 내용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는 초대교회 설립과 확장에 큰 공헌을 끼친 인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더베에서 출생하였으며(사도행전16:1)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계였습니다(사도행전16:3).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계가 가지고 있던 경건한 신앙의 교훈으로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디모데후서1:5).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회심을 한 것은 바울의 제1차전도여행중 더베에 도착하였을 때였습니다(사도행전14:6~7). 또한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은 실라와 함께 간 2차 전도여행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그를 의지하고 도왔으며,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사도행전19:22, 데살로니가전서3:1~2). 디모데는 인간성이 충성되고 성실한 반면(고린도전서4:17, 빌립보서2:19~23), 소심한 성격에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디모데전서5:23).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도미티안 황제(AD.81~96)

또는 네르바 황제(AD.96~97)에게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석방된 후 자신의 생애 말기에 기록한 세 편의 편지는 그를 대신하여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에서 복음전파 사역과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격의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에 대한 윤리적 권면 등 구체적인 목회계획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심한 성격으로 에베소교회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한 교회조직 및 목회원리를 설명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로 강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을 교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도록 권면함으로써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교회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와 거짓교사들의 심각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1:3~11).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복음전도 사역에 힘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디모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음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즉 디모데가 교리와 행실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완성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1:18~20).

바울은 교회내의 공중예배와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기술하였습니다. 공중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은(2:1~8) 교회내의 여자들의 역할과 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2:9~15).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질과 임무에 대하여 교회의 건덕을 세울것을 전달하였습니다(3:1~13). 아울러 에베소 교회내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교사들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를 소중하게 간직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4장).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되 장로의 역할과 가난한 과부들에 대하여 교회의 태도와 목적을 주지하였습니다(5장).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된 물질관과 축복관을 반박하면서 물질을 개인적 사리사욕에 이용하지 말고 사랑과 교회의 건덕과 구제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6:1~10).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서 복음사역이 전파될 것을 염원하였습니다(6장).

I.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① 초대교회 당시 일반여성의 사회적 지위

유대와 헬라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릴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남편의 소유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억압상태에서 여자들의 탈출구는 걸치레와 귀금속, 비생산적인 관념들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② 초대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수적 일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고린도전서11:1~6). 그러나 엄격한 가부장제도 아래서의 예배와 활동은 여전히 심한 제약속에 있었고, 바울도 여자들의 적극적 활동에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14:34).

③ 바람직한 현대여성도의 역할

하나님께서 남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기본적 원리를 먼저 이해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여간에 분명한 질서와 기능분배와 함께 역할 또한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11:1~16, 14:34~36). 마틴루터는 남여관계를 성삼위하나님과 비교하여 각각 동등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름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여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당시의 관습과 규율적 문제로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여성의 활동보다 남여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순위나 지배구조가 아닌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있음을 각각이 서로 존중하는 범위를 잃지 않으면 대립과 갈등구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5) 개요

I. 인사말(1:1~20)

II. 목회에 대한 여러 교훈(2:1~6:2)

① 예배(2:1~15), ② 지도자(3:1~16), ③ 이단(4:1~16), ④ 노년과 청년과 과부와 장로와 종(5:1~6:21)

III. 결론과 인사(6:3~21)

① 거짓교사(6:3~5), ② 돈과 경건(6:6~19), ③ 사람의 신용(6:20~21)

25. 디모데후서(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imothy)

(1) 제목과 기록목적

디모데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10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디모데온 베타"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는 에베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기록한 서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 8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6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며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1차투옥후 잠시 석방되어 있던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레데,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며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각각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두번째 투옥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직시하였습니다(1:8,16,4:6~8)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서부의 오스티안 웨이(Ostian Way)에서 참수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인 부친과 경건한 유대인 모친 유니게 사이에서 출생한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부터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디모데후서1:5,사도행전16:1~3)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할때 그는 니고볼리로 가는 길에 있었으나 디모데는 에베소와 소아시아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으나(3:14,4:13) 그동안 이 서신을 보내어 디모데가 목회의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주제로 말세의 배교(3:1~9), 성경의 영감(3:16), 의의 면류관(4:8)을 설명하며 복음을 성도들에게 맡겨진 위탁물(Trust)로 표현하였습니다(1:14) 바울 자신의 최후를 절감하면서 복음의 남은 고난을 잘 짊어져 줄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 저자(바울, AD. 66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디모데전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바울의 저자설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구심과 반박논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여전히 바울의 저자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로 귀환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3:14~15) 디모데에게 목회서신 형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교회를 뒤덮고 있는 영지주의와 거짓교리를 배격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없는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복음에 매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에 기록된 주요사건들은 일곱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자기가 살던 셋집에서 체포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자들이 로마황제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의 감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북부지역의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디모데전서1:3). 또한 바울은 그레데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디도를 역시 남겨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의 니고볼리로 향하여 갔습니다(디도서3:12). 마게도냐 또는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방문하고(디모데후서4:13) 그곳에서 갑자기 체포된 후 로마로 이송되어 구금되었다가 디모데후서를 남긴채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

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

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용기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 군병"(2:2)을 주제로 바울은 죽음의 목전에서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목회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필요성을 직시한 바울은 거짓사도들의 사상에 휘말리지 말고 진리의 터위에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염려하며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자신있게 불렀습니다(2:3)

바울은 로마감옥에서 누가와 함께 있습니다(1:15,4:10~12) 바울은 고독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면회를 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훼방으로 인하여 교회의 안녕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하였습니다(1:14,3:14,4:2)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게 공적으로 반포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4) 내용

디모데전서와 함께 디모데후서 또한 그 수신자가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는 초대교회 설립과 확장에 큰 공헌을 끼친 인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더베에서 출생하였으며(사도행전16:1)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계였습니다(사도행전16:3)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계가 가지고 있던 경건한 신앙의 교훈으로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디모데후서

1:5)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회심을 한 것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중 더베에 도착하였을때 였습니다(사도행전14:6~7) 또한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은 실라와 함께 간 2차 전도여행부터 였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그를 의지하고 도왔으며,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사도행전19:22,데살로니가전서3:1~2) 디모데는 인간성이 충성되고 성실한 반면(고린도전서4:17,빌립보서2:19~23), 소심한 성격에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디모데전서5:23)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도미티안 황제(AD.81~96) 또는 네르바 황제(AD.96~97)에게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짐작한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힘겨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내로서 잘 감당해 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좋은 군사"(2:3)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며 그 전투에서 매번 승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하여 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며,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부터 이어온 신앙의 사람 디모데에 대하여 감사를 써 내려간 바울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실천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군사와 경기하는자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 주의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평과 의와 사랑을 해치는 것으로 교회공동체의 해악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의 이단과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안에 굳게 서서 잘못된 교리와 도덕적 타락에 맞서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3:1~14) 또한, 성경말씀의 영감성과 구원의 효용성을 밝힘으로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3:15~17)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것을 부탁하며(4:1~5) 바울의 펜은 내려놓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I . 자녀교육의 중요성

- ① 자녀들과 충돌하는 9가지 내외적 구조
- ㉓ 빈번한 공간이동으로 인한 안정감 결여, ㉔ 기술발전으로 인한 비인간화,
- ㉕ 마약과 술, 성적 타락, ㉖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㉗ 이혼, 별거, 불화등의 가정파괴와 핵가족화,
- ㉘ 인간에 대한 신뢰결핍, ㉙ 상호헌신의 결핍, ㉚ 반권위주의적 경향, ㉛ 자아도취

② 자녀교육과 가정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차적인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교회의 원형(Prototype)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책임이 가정에 있으며, 교회교육과 학교와 세속 사회속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기반이 가정에서 이루어 집니다 자녀를 신앙인으로 세우고 바르게 교육하며 복음전파 사역의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선한 영향력입니다(신명기6:4~9)

③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 ㉓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자신의 혈통적인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소중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㉔ 바람직한 자녀교육은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 욕구등을 자녀를 통하여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진리와 인격에 겸손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 ㉕ 부모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전격적인 책임자로 나설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카테고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요한복음1:35~37,3:30)
- ㉖ 부모는 무엇보다도 언행일치의 삶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생활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디모데후서3:10~12)
- ㉗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은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요한복음6:60~71)

II. 성경 영감론

① 영감에 대한 성경의 언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비로소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디모데후서3:16)이며, 성령이 가르치신 것(고린도전서2:13)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고린도후서13:3)이며, 하나님의 말씀(데살로니가전서2:13)입니다(이사야30:1,예레미야36:27,에스겔21:8,호세아2:21,아모스6:8)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출애굽기17:14,민수기33:2,이사야30:8,예레미야30:2,에스겔24:2) 이것은 절대 신빙성이 있고,

인간의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베드로후서1:20~21)

② 영감의 성질

㉞ 기계적 영감설 : 정신활동이 중단된 성경의 기자가 성령이 불러주시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주장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기자들에 따라 독특한 문체, 개인적 경험등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열왕기상11:41,14:29,역대상29:29,누가복음1:1~4) 이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㉟ 동력적 영감설 : 하나님께서 성경기자에 대하여 영감하셨으나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한 간접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특별영감의 영역이 없어지므로 허구입니다

㊱ 유기적 영감설 : 성경기자는 성령의 유기적 영감으로 각 개인의 성격, 교육, 문체의 손상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기록 당시 성령께서는 항상 기자를 감동시켜서 그들의 능력이 죄의 영향에 의해 손상되거나 훼손됨이 없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③ 영감의 범위

㉞ 사상영감설 :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언어는 기자의 선택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사상과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따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㉟ 부분영감설 : 성경 가운데 교리적 문서, 도덕적 문서, 신약성경은 영감된 반면 역사적, 과학적, 연대적부분과 구약성경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부분영감설은 성경영감설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㊱ 완전영감설 :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주장은 바울의 주장(디모데후서3:16)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용어, 문체, 표현에 대하여도 영감하셨으므로(축자영감설) 성경 각 부분들과 단어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23:43~45,요한복음10:35,갈라디아서3:16)

(5) 개요

I. 인사와 서론(1:1~18) : 그리스도의 군사의 소명(1:8~18)

II. 복음, 성도가 맡은 위탁물(2:1~3:17) : 군사의 성품(2:1~16)

III. 결론과 작별인사(4:1~22) : 그리스도 군사의 직무(4:1~5), 그리스도 군사의 위로(4:6~18)

26. 디도서(Letter of Paul to Titus)

(1) 제목과 기록목적

디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 11권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티톤"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는 그레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디도를 위하여 기록한 서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3장 46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6년경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으로 디도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1차투옥후 잠시 석방되어 있던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레데,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며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각각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두번째 투옥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직시하였습니다(1:8,16,4:6~8)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서부의 오스티안 웨이(Ostian Way)에서 참수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디도서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고 혼란스러운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자(1:10~13,2:1~10) 함이며, 아울러 디도를 격려하며 율법학자 세나(Zena)와 아볼로를 통해 영적양식을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근본교리들, 영생(1:2), 그리스도의 신성(2:13), 구원의 보편성(2:11)이 나타나 있습니다

(2) 저자(바울, AD. 66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디모데전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와 디도로 하여금 에베소교회와 그레데교회를 각각 돌아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신앙적, 윤리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율

법학자 세나(Zena)와 아볼로의 도움으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해소하려 하였으며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도는 최선을 다하려 하였습니다

목회서신에 기록된 주요사건들은 일곱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자기가 살던 셋집에서 체포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자들이 로마황제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의 감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북부지역의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디모데전서1:3) 또한 바울은 그레데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디도를 역시 남겨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 그리스 남부지역 아가야의 니고볼리로 향하여 갔습니다(디도서3:12) 마게도냐 또는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방문하고(디모데후서4:13) 그곳에서 갑자기 체포된 후 로마로 이송되어 구금되었다가 디모데후서를 남긴채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 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

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데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

는 것입니다

(3) 주제

"건강한 교회"(2:1)를 주제로 디도서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교리를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을 연결하여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제 1원칙인 은혜(Grace)가 성도의 선행(Good works)과 균형을 이루면서 양자는 모두 구원의 소망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며 그레데 교회가 주안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어 나갈 것을 염원하였습니다.

(4) 내용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Titus)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친구이자 믿음의 아들이자 그의 이름은 고린도후서(4:13,7:5~7), 갈라디아서(2:1~3), 디모데후서(4:10)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의 출신지역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방인이었으며 디모데와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갈라디아서2:3). 바울의 유능한 제자로서 노후에는 그레데섬에서 생애를 마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일컬어 "형제"(고린도후서2:13), "동무요 동역자"(고린도후서8:23), "아들"(1:4)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네번째로 큰 섬으로 1세기말 이곳은 거짓과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1:12~13).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으며 디도를 파송하여 자신의 남은 사역을 맡아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1:5).

디도서는 다른 목회서신과 함께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기록되었으 며 그레데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내어진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도덕적 부패가 만연하고 거짓교사 들로 인하여 교리적, 생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그레데교회의 무질서한 상황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디도서는 거짓교 사들에 대한 경계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1~2). 바울은 이어 장로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디도에게 전하였습니다(1:5~9).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임을 설명하며 목회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두를 중요시하며 교회의 순결성 유지를 위해 직분제도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장로되려는 자에게 성숙한 신앙인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유대주의 거짓교사들의 미혹과 진리에 대한 왜곡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의 방탕한 기질로 인하여 도덕적 타락이 중첩된 상황속에서 교회지도자의 올바른 선택은 지극히 중요해졌습니다(1:10~16). 디도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교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에 대해 디도가 취해야 할 태도와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2:2~10).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들의 삶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디도의 책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2:11~14).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 구별된 모범이 있어야 하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5) 개요

- I. 인사(1:1~4)
- II. 교회안에서의 장로(1:5~9)
- III. 교회안에서의 이단자(1:10~16)
- IV. 교회의 역할(2:1~3:11)
- V. 개인적 메세지와 작별인사(3:12~15)

27. 빌레몬서(The Letter of Paul to Philemon)

(1) 제목과 기록목적

빌레몬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필레모나"란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에게"라는 의미로 이 책의 수신자는 골로새에 사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며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기록한 서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 2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1차투옥된 로마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권의 서신을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3:1,빌립보서1:7,골로새서4:10,빌레몬서9) 로마에서 1차 투옥된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것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후 잠시 석방되어 있던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레데,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며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각각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두번째 투옥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직시하였습니다(1:8,16,4:6~8)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서부의 오스티안 웨이(Ostian Way)에서 참수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수백만명에 달하는 노예들 가운데 하나인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도주과정에서 로마에 갔을때 우연한 기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10절) 오네시모는 삶을 돌이켜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는 길에서고, 정상적으로는 사형에 처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교회 안에는 빌레몬과 같이 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즉,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노예가 그리스도안에서는 한 형제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종에 대한 빌레몬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상황에 그리스도인의 형제관계의 권리를 적용시켜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16절) 동시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재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제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과 종이 그 악한 조직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형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바울에게 되돌려 보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절).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후일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바울, AD. 62년)

1장1절과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바울 서신과의 동일한 문체와 교리상 유사점과 남다른 바울의 깊은 애정이 바울이 저자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외적인 증거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는 특징적 문체와 어휘 등 내적 증거를 고려할때 바울과 디모데전서에 관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에 비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의 서신으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안에서 개종시킨 후 그를 그리스도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과 아울러 복음전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 소아시아의 길리기아(터키)의 중심도시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שאול)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명과 그리스명을 동시에 사용한 연유였으며 바울은 사울의 그리스명이었을뿐 회심의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바울은 고전 교육과 유대교적 율법교육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서인 구약성서와 "미드라시"로 불리우는 율법해석, 그리고 수사학을 공부하며 탁월한 신학자적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때 그는 바리새파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2~33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앙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적대관계를 맺으며 고소와 고발건으로 얼룩진 청년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죽음에 바울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바울의 회심후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나바의 천거로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전파를 기울였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며 바나바와 함께 공동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힘에 지쳤을까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쟁이 발생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과 실패와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 바울에게서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전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나바와의 "파록쉬스모스"(παροξυσμός paroxusmos), 즉, 돌이킬수 없는 격한 논쟁으로 헤어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중심으로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가는 곳과 머무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으며 이들과 함께 천막업을 하며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야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를 주요 근거지로 복음을 상당수준까지 활성화 시켰으며 마게도냐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제국의 칼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제국의 새로운 지도자 네로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점을 이루며 극에 달하였고 그 희생양으로 사도바울을 지목하였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대형화재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인을 지정하고 그 주동자로서 바울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한 줄기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소수민족종교인 기독교를 세계보편종교의 최정상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능가하는 복음의 질과 내용과 양적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초기 사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le)란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의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바울을 지지할 경우 또다른 환상을 본 자들이 나타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기 내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추천을 승인하여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독특성은 예루살렘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과도 잦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등의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미세한 충돌도 이와같은 견해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반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부제, Diakonos)들 또한 모두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으므로 이들과 유대기독교인들의 신학적 갈등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형제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기독교인들 또한 바울을 유대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결정문이 공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교회는 빈곤계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분모속에서 협력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지도자들과 달리 직업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가공업 또는 천막제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교회의 집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계유지형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에베소서3:3).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3:15). 사도바울은 그가 전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의 견해를 각각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25절과 같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내 판단을 기록"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로마서1:16,15:9). 성경은 사사로운 책이거나 읽고 해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 행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3:4).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해석이 성경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학자용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자에게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개발한 논리, 사상, 철학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여(에베소서2:20)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 구별없이 세계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소수민족의 선민적 사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지혜의 책인 성경을 믿는 보편적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3) 주제

"형제와 용서"(1:16)라는 주제로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이면서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도주한 오네시모가 골로새교회에서 한 형제가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빌레몬서의 중재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당시 사회의 가장 미천한 계급인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실천적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소중한 물건을 도둑질하여 도주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을 구명하고 더 나아가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허락하고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준 빌레몬의 믿음과 순종역시 위대한 그리스도인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 내용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인으로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빌레몬은 함께 언급된 압비아와 아킵보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골로새교회의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네로황제의 박해를 받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노예신분으로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날 노예이면서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만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로 부터 복음을 전해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골로새로 돌아갈 경우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되돌아 갔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은 압비아의 아내이며 아킵보의 아버지로서 골로새교회의 영향력있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골로새 교회내에는 많은 성도들이 노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또한 어렵지 않은 상황속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진 한 노예 청년의 장래를 염려하여 빌레몬에게 이와같은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문안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1~7) 이 서신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노예를 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공적인 성향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여 줄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지심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용서란 중요한 생활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8~16)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부채를 대신 배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형제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책임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회개함으로써 변화되었고 바울과 빌레몬에게 필요한 교회의 일군이 되었음을 고하며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17~25)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이 되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서 주안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사도행전13:13, 디모데후서 4:11) 훌륭한 목회자는 신자의 곤경과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8~22)

빌레몬서를 덮고 있는 주제는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며 처형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의 길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였다면 더이상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세한 죄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였는데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신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사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의 서신 한통이 없었더라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형하고 그의 남은 가족까지도 몰살시켰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차로에 나타난 십자가라는 교차지점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형제가 되었고 그들은 골로새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I. 그리스도의 직분

(1) 선지자직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하며(예레미야1:5) 계시를 받은 것만 전달해

야 하는(신명기18:20) 수동적인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능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예레미야20:8~9)

- ㉠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특징
- ㉡ 구약적인 선지자(신명기18:15,요한복음1:19~21,사도행전3:22~23)
- ㉢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있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대변하는 창조적 선지자(이사야61:1)
- ㉣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신 선지자(마태복음21:31)
- ㉤ 다른 선지자는 부분적, 점진적 계시를 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계시를 통하여 완성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유일한 선지자(마태복음23:8~10)
- ㉥ 선지자직 수행단계
- ㉦ 성육신 이전 : 로고스로 존재하였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로(창세기31:11~13,사사기13:18,이사야9:6), 계시의 영으로(베드로전서1:10~11) 나타나심
- ㉧ 지상생애(누가복음6:19,요한복음8:38)
- ㉨ 승천후 : 지상교회가 선지사명을 수행할수 있도록 역사하심
- ㉩ 천국 :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요한복음16:25,17:24,고린도전서13:12)

(2) 제사장직

하나님앞에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출애굽기28:9~10) 인간중에서 선출되며(히브리서5:1),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히브리서5:4),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도록 성별된 제사장(레위기21:4~6)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히브리서5:1)

- ㉠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특징
- ㉡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히브리서8:4), 유일한 중보자(디모데전서2:5), 참제사장
- ㉢ 무죄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앞에 나아감(로마서3:23)
- ㉣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죄를 제거하는 지속적인 효력을 가짐(히브리서10:11~14)
- ㉤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음(로마서5:10~11)
- ㉥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 됨(로마서5:8)
- ㉦ 그리스도의 헌제사역
- ㉧ 구약에서 각종 제사와 제물(히브리서10:8~12), 유월절 희생양(출애굽기12:1~4)으로 예표
- ㉨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심(이사야53:5`6,로마서3:25,에베소서5:2)
- ㉩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구약시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번제, 충성과 감사를 의미하는 소제, 친교를 의미하는 화목제, 하나님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인간에게 지은 죄와 관계된 속건제 등 5대제사의 의미가 모두 포함됨

- ㉔ 한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는 제사
- ③ 그리스도의 중재대언 사역(히브리서6:20,7:21)

(3) 왕직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 그가 다스릴 나라를 왕국으로 예언함(사무엘하7:16, 이사야9:6,시편2:6,다니엘7:13~14,미가5:2,스가랴9:9)

① 영적 왕권 :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사하시는 통치권을 의미하며 그 영역을 영적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은 현세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건설되었고(마태복음12:28,누가복음17:20~21,골로새서1:13~14),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에는 완전히 완성됨(마태복음7:21,19:23,고린도전서6:9,15:20,디모데후서4:18,베드로후서1:11)

② 우주적 왕권 :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마태복음28:18,에베소서1:20~22,빌립보서2:9`10) 영적 왕국의 기초를 놓으심

(5) 개요

- I. 인사(1~3)
- II. 빌레몬에 대한 칭찬(4~7)
- III. 빌레몬을 향한 부탁(8~17)
- IV. 빌레몬에게 하는 서약(18~21)
- V. 사적인 문안과 축복(22~25)

28. 히브리서(Epistle to the Hebrews)

(1) 제목과 기록목적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책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민족인가? 히브리서의 표제는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팔레스틴과 이탈리아설 두가지가 맞서지만 이탈리아설을 유력한 수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성도들과 같이 빈곤에 처하여 있지 않았으며(6:10,10:34,로마서15:26), 구약성경을 인용할때 70인역(LXX)을 본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3장24절과 같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떠나온 자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동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모든 교회와 같이 이탈리아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1) 저자는 이 편지를 어떤이들이 유대주의로 복귀하려는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권면의 말(13:22)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들은 순교는 아니지만 핍박이 진행중에 있었고 배교행위와 같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장직과 제사로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 303절로,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바울 또는 익명의 기독교변증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모세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신(3:12), 공중예배(Public Worship)의 태만(10:25), 기도의 소홀함(12:12), 불건전한 교리(13:9), 교육의 부재(5:12), 성경을 소홀히 함(2:1)등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동족의 박해를 극복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을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권면(13:22)과 경고(2:1~4,3:7~19,6:4~12,10:26~31,12:15~17), 위로와 보증을 통하여 배교의 경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신자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유대교를 신봉할 경우에는 아무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를 떠나지 않겠는가? 유대교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변증서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2) 저자(바울 또는 미상, AD. 60년대 후반)

히브리서는 과연 누가 기록하였을까? 그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바울을 비롯하여 아볼로, 바나바, 누가,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빌립 집사, 로마의 클레멘트 등 다양한 사람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과 유사점이 발견되는가 하면 전혀 다른 움직임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달리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주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46은 AD. 220년경의 것으로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인 로마서 다음에 배치시켰습니다. 2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AD. 150~215)와 오리겐(185~253)은 사도바울을 히브리서의 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동방교회도 바울의 저자설을 인정하였으나 서방교회는 4세기 후반까지 바울의 저자설을 거부하였습니다. AD. 419년, 제6차 카르타고 공회에서 바울서신을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로 서방교회도 바울의 저자설을 수용하고 인정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바나바를 저자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와 누가를 저자로 보았으며, 루터와 다수학자들은 아볼로를 인정하고, 마틴루터는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를 정경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11장). 유대교인들을 겨냥한 믿음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집결지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관점이었음을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3) 주제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길"(1:1~3)을 주제로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 한계성과 그 한계성이 목표로 삼는 믿음에의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3:1,12:3). 그리스도를 대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난을 참고 이기신 믿음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세지입니다.

천사나 모세, 아론과 멜기세덱, 레위지파의 제사제도, 구약에 기록된 그 어떤 믿음의 소유자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제시하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서 그

리스도는 이제 지성소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간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4:14~16)

히브리서는 "기독교 변증서"와 함께 "권면의 편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깊이 생각하고 이 권면의 말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당면하였던 박해와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낙심한 성도들에게 근본 진리를 상기시키고 격려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실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7장)

(4) 내용

히브리서의 관점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우월성과 그들이 가지는 지향점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품성에 있어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게 우월하고,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권면과 경고와 위로와 보증을 통해 복음의 진리위에 흔들림없이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을 생략한 채 본문으로 이어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첫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1:3~3). 그리스도는 선지자, 천사,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며 그리스도교는 최상의 신적 현현 곧 모든 구약적 언약의 최종이자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근본으로 설립한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지위, 천사들의 한결같은 경배, 성육신에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드러났습니다.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광의 기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2:10). 따라서 배교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길에 서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믿음을 굳게 지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3:7~4:13).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보다 우월한 것입니다(4:14~7:28). 예수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4:15). 이와같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앙의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성장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5:11~6:20).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림으로서(9:1~10:18) 친히 언약의 중보자가 되

셨으며 이로서 옛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8:6~13)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10:19~39)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 중요한 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11:1)는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던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을 정면에 배열하였습니다(11:4~40) 성도들은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본받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약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없이 이땅에 오셔서 아끼는 제자에 의해 고발당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 의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냥 안타까운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였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단을 받아야 할 때가 도래할 것인데(12:1~29)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3:1~9) 나아가 교회공동체 속에서 상호관심과 순결, 사랑과 순종과 덕을 강조한 후 축복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I.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론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과 인본주의적 사관으로 자가당착의 늪에 빠져버린 부당성에 대하여 신학적 논리로 반박하는 성경의 정석이라 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구약의 종교, 기독교를 신약의 종교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유대교의 교훈은 구약성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점차적으로 형성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완성이자 성취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로서 신구약성경 전체를 유기적 총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① 신론 : 유대교는 일원론적 신관으로 여호와 하나님 단일신론을 주장하며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등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 ② 인간론 : 유대교는 인간의 타락을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은 치명적이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 ③ 성경관 :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시대의

유대문학에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절마다 영감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성경 66권으로 완결되었으며 더 이상 특별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④ 속죄관 : 유대교는 인본주의 속죄관으로서 중보자가 필요없으며 자력과 선행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⑤ 메시아관 :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그 분이 오시면 이땅에서 이상향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 정치적 인류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과 부활로 인간들을 죄중에서 구원하셨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⑥ 내세관 : 유대교는 악을 행한자는 게헨나에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한자는 천국에서 복된 생활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여부로 결정되며 오직 주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5) 개요

- I.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1:1~4:16)
- II.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5:1~10:39)
- III.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11:1~13:19)
- IV. 축복과 끝맺음(13:20~25)

29. 야고보서(Epistle of James)

(1) 제목과 기록목적

야고보서는 본서 1장1절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 야고보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야코부 에피스톨레"로 "야고보의 서신"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정경성(Canon)은 저자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지기 까지 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경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바울서신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책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반면 이신득의사상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108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 직전인 AD. 62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라는 말은 유대민족의 전체성(Entirety)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으나 유대민족이 디아스포라(Diaspora) 당시 아무리 멀리 흩어졌다고 해도 팔레스틴 밖에서 함께 모여 선명한 민족적 존재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2지파에게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새 이스라엘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유대교인들과 로마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의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대화형식이 많고 교리보다 신앙실천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윤리적 교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자(예수의 형제 야고보, AD. 62년)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네 명, 그 중에서 이 서신의 저자로는 요한의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예수의 젖동생 야고보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저자는 아니었습니다(사도행전12:2) 이 서신의 권위로 보아 작은 야고보와 누가복음의 야고보(6:16)를 저자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유력하고 합당한

저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사도행전12:17,15:13,21:18).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행한 연설문에서도 그 유사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1:1,사도행전15:23).

(3) 주제

"행동하는 믿음"(2:26)(산 믿음)을 주제로 야고보서는 흠어져 살아가고 있는 열두지파,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외곽지역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이들은 팔레스틴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생활의 고초가 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도전받고 있었고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지도자로서 로마 각지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접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회람서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것이었습니다.

(4) 내용

야고보는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동생으로서 형을 주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서신으로 특정인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목적은 구체적인 윤리적 교훈을 주는데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과 비교하여 볼때 비록 이서신에 신학적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제들을 담으면서 짧은 격언들의 종합서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의 중심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행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22). 야고보서의 108절 가운데 구약성경 23권으로 부터 인용을 하고 있으며 산상수훈에 표현된 구체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15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신득의 사상을 강조하는 다른 서신과 달리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윤리적 교훈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약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안에서 발행하는 불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신약의 아모스"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지역에 걸쳐 흠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작성되어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

내와 신앙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연단의 계기가 되는 외적 시련과(1:2~12),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간의 죄성과 관련된 내적 시련(1:13~15)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은혜와 축복의 참된 근원으로 밝혀 줌으로서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양자의 무게중심을 행함으로 향하였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준하는 실천에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1:19~2:26). 이로 인하여 기독교사상의 핵심이 되는 이신득의 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말을 절제하고 참된 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에 따라 마음속의 정욕을 제거하고 사랑과 화평을 쫓을 것을 촉구함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의 높은 가치를 주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3:1~5:6).

참된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동반하고 살아있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교리를 인정하지만 진정한 생활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과, 중심으로 믿고 중생함으로서 그리스도와 영적 일체가 되어 지식과 양심, 지적 신앙과 실천적 신앙이 일체가 된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2:1~13)과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2:14~26) 두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5:7~12). 비록 흠어져 살며 디아스포라의 나그네와 같은 고독한 인생길 위에서 있지만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며 지금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고, 이방풍습과 절제되지 못한 생활로 인하여 타락한 성도들을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5:13~20).

I. 행함과 믿음

로마서1:17, 갈라디아서2:16과 야고보서2:17~26의 관계는 상호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 승인과 의지적 행위적 순종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위상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마가복음1:23~24).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신앙의 외형적 명목만 유지하는 무효한 믿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명분있는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들의 영

혼, 자아의 선택행위로서 자아에는 의지적, 비의지적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자아는 인식적 믿음과 윤리적 행위의 조화로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 비의지적 자아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로마서7:15~1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적 자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의지적 자아는 믿음의 인식과 동시에 실천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의지적 자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결정권자이거나 무조건적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하고 유일한 근거로 구원을 이룰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은자가 삶은 자기 주관대로 방종의 삶을 살겠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내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으로 믿는 대상의 의미를 선하게 여기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로서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이 있는 곳에 그와 수반되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지적 자아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비의지적 자아는 죄성을 고집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범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야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투쟁을 가속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개요

- I. 인사말(1:1)
- II. 여러가지 시험(1:2~18)
- III. 도를 행하는 자(1:19~27)
- IV. 공평무사(2:1~13)
- V. 믿음과 행함(2:14~26)
- VI. 허의 죄(3:1~12)
- VII. 참지혜(3:13~18)
- VIII. 세상의 정욕(4:1~17)
- IX. 신앙의 적용(5:1~20)

30. 베드로전서(First Epistle of Peter)

(1) 제목과 기록목적

베드로전서는 본서 1장1절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 베드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페트루 알파"로 "베드로전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본격화하던 AD. 64년경, 바벨론으로 비유하던(5:13)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13절의 바벨론으로 인하여 베드로전서의 기록장소에 대한 바벨론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앗시리아인 정착촌인 바벨론에는 당시 군사요충지에 불과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브라데의 바벨론 역시 AD. 36년경에는 유대인집성촌이 있었으나 칼리굴라(Caligula, AD.41년사망) 통치시절 대학살사건으로 유대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곳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베드로는 노년시절 로마에서 대부분 생활하였다는 초대교회의 전승과 함께 요한계시록17:18의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곳은 로마가 정설인 것입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가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이산된 체류자" 등 유대인이 포함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1:14,2:9~10,4:3~4). 흩어진 나그네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회람서신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다섯지방,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탈출한 후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12:17).

베드로전서는 환난중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압박해 있는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격려의 서신"(Epistle Courage),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진 베드로전서는 교리적인 서신으로 창조론(4:19), 그리스도론(1:20), 종말론(5:1,10) 등 다양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등과 문체와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저자(베드로, AD. 64년)

1장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저자의 실명을 밝혔으며 이레니우스(140~203), 터툴리안(150~22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15)와 오리겐(185~253) 등 초대 교부들이 베드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여러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와도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 수난의 목격자(5:1)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라(Silvanus)의 도움을 받아 이 서신을 작성하였고 요한 마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5:12~13)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1:17)의 언급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 예언된 모퉁이돌로 선포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앞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베드로전서2:7~8,사도행전4:11) 베드로는 네로(AD.54~68), 도미티안(AD.81~96), 트라얀(AD.98~117) 등 3대 로마황제에 이어지는 주요박해사건을 제시하며 점차 심각해져 오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에 대하여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연구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훔지역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보통의 사람보다도 낮은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베드로 또는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AD~64년)는 사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형제 관계로서,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Simon)이라 하며(마태복음 4:18, 요한복음 1:40),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 준 새로운 이름으로서, 그 뜻은 바위라는 의미의 아람어 케파(kefa)를 고대 그리스어로 Κηφας(kephas)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후, 낱말 뜻을 고대 그리스어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라틴어 Petrus)로 풀이한 것입니다(요한복음 1:41).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였을까요? 관상을 보고 선택하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학벌과 문벌,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고 그랬을까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당시 어떤 괄목할 만한 학력과 지식을 섭렵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선택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지역의 벳새다에서 성장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친구 빌립 등과 함께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때 밤새도록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못한 베드로가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누가복음5:1~2)

복음에 무관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보통의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 주시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만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한복음1:35~42)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가 되어 그의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며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앞에서는 모든 사람앞에서 세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생각과 행동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과 죽은자를 살려내었으며 예수님을 따라 물위를 걸어간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회의 모교회로 등장할 때, 베드로는 항상 지도적 입장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이사랴와 안디옥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다녔으며(갈라디아서2:11~14), 전설에 의하면 주후 67년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고 순교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43년에 유대왕인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주후 49년에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여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교의 강제 규정에 따른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안디옥으로 가서 스스로 최초의 사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 시절의 서술가들은 그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 순교했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64년경 로마황제인 네로의 치세에 처형되었다고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로마 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에 베드로의 로마선교 여행은 아주 미미했거나 실제로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운 첫 감독으로 보는 견해 또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로마 선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예언된 베드로의 순교 기사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 처형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의 설교에 감동된 청중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기적같은 일들이 4대복음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64년~66년경, 로마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전후서는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환란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격려의 서신"(Epistle of Courage)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박해에 대하여 거짓교사와 방종한 생활 등 교회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과 경고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때 갈릴리 한 지방의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기독교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교회가 서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과 가정에서 그의 행적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위대하고 광대한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어둠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주제

"순례자의 인생"(4:13)(산 소망)을 주제로 베드로전서는 다가올 대환난의 시대, 곧 네로황제(Nero, AD.54~68년)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함으로서 임박한 핍박을 승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가혹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때, 진정한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뿐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회 언급될 정도로 박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은 고통과 상처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내용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의 5개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를 위한 회람형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며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2:10). 베드로는 그들이 인간의 악한 정욕대로 생활하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4:3~4). 또한,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하며 내양을 먹고, 주를 더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22:32, 요한복음21:15~17).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혼돈상태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마태복음16:22).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헤롯에 의해 처형직전의 위기까지 체험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담대할 것을 위로하였습니다. 네로황제의 대박해에 연루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는 믿는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5:12). 이것은 결국 참된 위로와 평강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치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종말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외적으로 다가올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한 산소망을 소유할 때 현재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스테반과 같이 기쁨으로 정면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1:6~9). 또한 베드로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유로 성도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장하며(1:10~12) 성도들의 생활의 성결을 촉구하며 육체의 정욕을 자제하고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1:13~2:12)

베드로는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통치자(2:13~17)와 사회적 관계(2:18~25)가 조화롭고 정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표상이며 모범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인내의 결말이 아름다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을 대비하는 것은 역시 성도들의 굳건한 반석같은 믿음과 올바른 행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가운데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합니다(3:13~22).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함과 함께 성도들의 고난에 적극적인 의미와 영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영적 은사로서 봉사하는 가운데 사랑을 깊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말세말에 깨어 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단의 술수로 부터 보호하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19~20절의 기록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베드로전서 3:19~20). 이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로마 카톨릭은 연옥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선포하는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글개역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가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기는 "포류데이스"로 22절에서 승천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며, "전파하시니라"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유앙게리쵸"가 아닌 단순한 전파를 의미하는 헬라어 "케루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구원론

구원의 성격은 부패와 불결함, 쇠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흥왕된 기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적 거룩으로 영혼의 거룩함과(21:13~21) 사회적으로 형제우애(1:22~25), 교회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2:1~10).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는 세상에 대하여 선한 행실과(2:11~12),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된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2:18~3:7).

핍박을 받을 경우 상대와 맞서거나 변명과 변호에 시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

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3:13~22) 행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4:1~6)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4:7~11) 구원의 확신은 인내로 무너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는가? 돌을 든자들 앞에서 말문이 막혀 있었는가? 얼굴은 상기되고 입술은 얼어버렸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담대함으로서 날아오는 돌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불시험이 임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4:12~19)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대적앞에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취해야 할 것입니다(5:1~11)

II. 계시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으로 완전하게 전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연계시와 자연현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특별하고 의도적인 출현과 자연질서와 자연현상을 초월한 이적을 통하여 계시가 주어지는 초자연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분류가 됩니다

(1) 일반계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에게 자연법칙, 인간의 정신, 역사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시편19:1~2, 로마서 1:20)

- ① 일반계시의 불충족성 : 펠라기우스파, 자연신론자, 합리주의자 등은 일반계시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영적갈증을 해소시키거나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 ②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은 일반계시의 방편인 창조세계의 미(美)를 파괴시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로마서8:22)
- ④ 인간은 타락하여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수용할 인간의 자체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에베소서4:18)

- ㉔ 일반계시는 자연현상과 인간역사 뒤에 숨은 하나님의 영적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불가능함으로서 영원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에는 불충분합니다
- ㉕ 일반계시는 과학탐구의 대상은 되지만 종교적 진리를 제공하는데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일반계시에 기초한 그 어떤 종교체제나 철학도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요한복음14:6)

② 일반계시의 의의 :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일반계시의 질적 저하와 영향력 축소가 일어났으나 하나님이 본래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원시계시로서 오늘날에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㉖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냅니다(로마서1:19~20)
- ㉗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 율법이 명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로마서2:14)
- ㉘ 일반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사도행전17:27~28)
- ㉙ 자연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진리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 ㉚ 불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도와 불신자간의 전도의 접촉점이 됩니다
- ㉛ 인간의 양심에 작용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합니다

(2) 특별계시

구원진리에 관한 일반계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자연질서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의 완성이며 유형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인류의 역사와 믿음의 공동체들의 발자취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성령에 대하여 한권의 책에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향력있는 특별계시 가운데 유일한 현존의 증거입니다

- ① 특별계시의 필요성 : 일반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계시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특별계시의 동기와 수행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필요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 ㉜ 일반계시의 중요한 점을 해석하거나 인간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해 줍니다
- ㉝ 자연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 ㉞ 인간구원을 위한 구원의 진리를 밝혀 줍니다
- ㉟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 ② 특별계시의 방법 :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신인, 이적 등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영구히 보존 전달하는 특별계시의 총

체를 영감으로 보존시킨 것이 성경입니다

(5) 개요

- I. 인사말(1:1~2)
- II. 보호의 은혜(1:3~12)
- III. 성실의 은혜(1:13~2:10)
- IV. 순종의 은혜(2:11~3:12)
- V. 고난의 은혜(3:13~4:19)
- VI. 봉사의 은혜(5:1~11)
- VII. 결어(5:12~14)

31. 베드로후서(Second Epistle of Peter)

(1) 제목과 기록목적

베드로후서는 본서 1장1절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 베드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페트루 베타"로 "베드로후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 6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집권말기인 AD. 66년경,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가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로서 베드로전서와 함께 유대인이 포함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회람서신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여러 각지에 있는 교회들로서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탈출한 후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12:17).

베드로전서는 환란중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압박해 있는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격려의 서신"(Epistle Courage),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진 베드로전서와 달리 베드로후서는 교회안에서 발생한 배교와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위에 굳게 서서 부도덕한 쾌락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궤변과 얕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저자(베드로, AD. 66년)

1장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저자의 실명을 밝혔으며 이레니우스(140~203), 터툴리안(150~22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15)와 오리겐(185~253) 등 초대 교부들이 베드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여러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와도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 수난의 목격자(베드로전서5:1)이며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

의 직접적인 목격자(1:16~18)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라(Silvanus)의 도움을 받아 이 서신을 작성하였고 요한 마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5:12~13)

두번째 서신의 기록 필요성을 느낀 베드로는 거짓교사들에 대하여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확산시키고 있는 영지주의와 헛된 교리들은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무질서를 방치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널리 확산되어 가는 안티노미안리즘(Antinomianism), 즉, 도덕무용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윤리적일 필요가 전혀없다는 주장으로 이미 동시대에 이단으로 규정된 궤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내의 독소에 대한 베드로의 처방은 성도의 덕행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1장) 또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에 회의적인 태도를 확산하는 교만한 조롱군을 질책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끝까지 겸손함으로서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릴 것을 기원하였습니다(3장)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움지역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보통의 사람보다도 낮은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베드로 또는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AD~64년)는 사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형제 관계로서,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Simon)이라 하며(마태복음 4:18, 요한복음 1:40),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 준 새로운 이름으로서, 그 뜻은 바위라는 의미의 아람어 케파(kefa)를 고대 그리스어로 Κηφας(kephas)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후, 낱말 뜻을 고대 그리스어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라틴어 Petrus)로 풀이한 것입니다(요한복음 1:41).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였을까요? 관상을 보고 선택하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학벌과 문벌,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고 그랬을까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당시 어떤 괄목할 만한 학력과 지식을 섭렵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선택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지역의 벳새다에서 성장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친구 빌립 등과 함께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때 밤새도록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못한 베드로가 실

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누가복음5:1~2)

복음에 무관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보통의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 주시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만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한복음1:35~42)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가 되어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며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앞에서는 모든 사람앞에서 세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생각과 행동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과 죽은자를 살려내었으며 예수님을 따라 물위를 걸어간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회의 모교회로 등장할 때, 베드로는 항상 지도적 입장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이사랴와 안디옥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다녔으며(갈라디아서2:11~14), 전설에 의하면 주후 67년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고 순교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43년에 유대왕인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주후 49년에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여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교의 강제 규정에 따른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안디옥으로 가서 스스로 최초의 사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초대 교회 시절의 서술가들은 그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 순교했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64년경 로마황제인 네로의 치세에 처형되었다고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로마 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에 베드로의 로마선교 여행은 아주 미미했거나 실제로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운 첫 감독으로 보는 견해

또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로마 선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예언된 베드로의 순교 기사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 처형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의 설교에 감동된 청중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기적같은 일들이 4대복음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64년~66년경, 로마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전후서는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환란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격려의 서신"(Epistle of Courage)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박해에 대하여 거짓교사와 방종한 생활 등 교회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과 경고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때 갈릴리 한 지방의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기독교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교회가 서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과 가정에서 그의 행적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위대하고 광대한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어둠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주제

믿음의 발전(1:12)(참진리,참지식)을 주제로 베드로후서는 무엇보다 종말에 관한 확실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하여 조롱하다가 심판을 당하였으며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주의 재림의 임박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조바심은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항상 실현되어 왔으며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번째 서신에서 자신과 동일한 견해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3:15)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의 핍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자라나는 영지주의와 "도덕무용론"으로 불리우는 안티노미

안티즘(Antinomianism)의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발생하여 성도들을 교리적 오류와 도덕적 방종으로 몰고 갔으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때 만이 거짓교사들의 배교행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내용

베드로후서는 외부로 부터 적지않은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교회내부의 적들로 부터도 혼란에 빠진 사면초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리가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온 영지주의자들과 안티노미안리즘(Antinomianism,도덕무용론)으로 인하여 교회는 교리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 방종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핍박받는자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복음진리에 대한 이해가 선결될 때 거짓교사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과 회개의 초보단계에 더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 가운데서 신앙적 성숙을 이룰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지식과 품성이 성장하여 주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 기원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1장).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대조시킴으로서 당시 교회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교사들의 비리와 진리에 대한 왜곡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자신을 공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내에서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여 종국적으로는 교회를 분열과 파멸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앞에서 단죄의 칼을 들었습니다. 거짓교사들의 특성과 타락한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기만과 거짓술책을 폭로하며 징계하였습니다(2장).

베드로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함과 동시에 핍박을 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3:1~5). 베드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핍박과 미혹앞에서 담대하여 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지 말고 믿음을 굳게하여

적그리스도와 맞서라고 하였습니다(3:6~13) 베드로는 흩어진 여호와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주를 끝까지 신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 지식론

참지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약속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성장하며(1:5~11) 지식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의 개인적 증거와 성령이 직접 주시는 성경의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1:12~21)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단이 교회로 침입할때(2:1~2)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도덕적 기반까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적들을 다스렸고(2:4~10) 이러한 이단이 다시 힘을 가진채로 활동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최종적 패배를 알고 있습니다(2:10~21)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참 지식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희망으로 자라날 것이며 기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3:8~13)

I.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반대"의 뜻인 "안티"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로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경계강화의 신호를 최고조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① 적그리스도의 정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 또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24:23~24,요한일서2:22~23) 적그리스도는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곧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로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을 일삼는 것입니다(마태복음13:21~23,누가복음2:16~17,요한계시록20:10) 나아가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하여 경배받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적하여 핍박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에스겔38~39장,다니엘7:7~27)

② 성경에 언급된 적그리스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었습니다(창세기3:1~15) 구약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사야14:12), "리워야단", "용"(이사야27:1), "곡"(에스겔38:1~39:16), "작은 뿔"(다니엘7:8) 등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세에 많은 거짓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마태복음24:24, 마가복음13:21~22) 또한 사도 바울등은 적그리스도를 "벨리알"(고린도후서6:15),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요한이서2:3)로 칭하고 있으며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화신인 용과 짐승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③ 결론

적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나는 많은 반신적인 사람과 운동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말세적 특징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위치에 두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겸하여 분쟁과 시비에 휘말리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온 세계를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수, 또는 복수로 사단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서 치명상을 입은 상태이며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 패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지지말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개요

- I. 기독교인의 성숙(1:1~21) :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장(1:1~14), 믿음의 근거(1:15~21)
- II. 거짓교사에 대한 경고(2:1~22)
- III.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신(3:1~18)

32. 요한일서(First Epistle of John)

(1) 제목과 기록목적

요한일서는 본서의 발신자이며 저자 사도 요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오니누 에피스톨레 알파"로 "요한일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 10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 AD. 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리워지는 요한1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감동적인 글로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내에서 발흥하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정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입니다. 본서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이단에 대한 단호한 성격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설(先在說, Pre-existentialism)과 신인양성론(神人兩性論) 등 정통적 그리스도론을 확립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논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간결하고 함축성을 가진 문장과 반복적인 말씀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단의 술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저자(사도요한, AD.90년)

초대교부들이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1,2,3서와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에베소교회 장로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데서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책의 저자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과 에베소교회의 장로 요한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말년

을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요한에 의해 요한1,2,3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마태복음10:2)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어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티스마 요한에 의해 예수께 소개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인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마가복음1:20).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마가복음15:40~41),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정규 랍비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께로 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마가복음3:17,누가복음9:54,요한복음21:20).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1,2,3서를 기록하였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요한복음3:16)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경멸하고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요한일서1:6,2:4).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상종조차 거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요한이서10). 디오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만천하에 공개할 정도로 그의 신념은 단호하였습니다(요한삼서9:10).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황제에 의해 추방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1:9). 요한은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증거로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의 장래에 대하여 선명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글들로 눈으로 목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트라얀(Trajan) 황제, 즉위 후 사도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소아시아지역의

복음사역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두리속에서 간헐하며 은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주제

"코이노니아"(Koinonia)(1:3)(영생의 확신)를 주제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하여 그의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1:6~7, 2:8~11),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3:4~10), 하나님의 영광과 적그리스도의 영(4:1~3), 사랑과 미움(4:7~12, 16~21) 등 대조되는 비유를 내세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연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4) 내용

영지주의(Gnosticism)는 요한의 시대에 교회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이단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은 덕보다 우위에 있고, 성경의 진리는 비문자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단지 소수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적인 것과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도세티즘(Docetism)) 성육신을 불신하며 육체의 부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실상 영지주의자들은 저급한 수준의 사상과 궤변으로 일관한 거짓작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궤변이 당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교회내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요한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거짓교리를 반박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에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동시에 윤리적 의무와 사랑의 실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신앙체험을 직접 증거함으로서 요한1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혔습니다(1:1~4). 그러나 요한은 이 글의 수신자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회람형식으로 소아시아지역에 보냈습니다. 요한1서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며"(1:5~7), "죄를 자백하며"(1:8~2:2), "계명을 지키며"(2:3~6), "서로 사랑하도록

"(2:7~14)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기본교리, 즉, 그리스도를 구주 믿는 자들은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악한 대적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2:12~14)

요한1서의 중심주제인 "주 안에 거하라"(2:28)는 참된 신앙의 특징으로 삶의 성결화(3:1~3), 의의 실천(3:4~12), 참된 형제애의 실천(3:13~24), 거짓 영들의 분별(4:1~6),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의무(4:7~5:3)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기한 규범들을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들은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며(5:4~5),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며(5:6~13), 습관적인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5:18~21)

결국, 죄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세상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진리이며 이를 부인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로서 단호하고 엄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자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또한, 그들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I. 사도요한의 사랑의 속성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참으로 어렵고 정의하기 힘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조차 사랑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섞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존재욕구,소유욕구, 행복욕구, 발전욕구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헌신하거나 노력하는 의지 또는 그를 기뻐하는 감정 및 기분, 강렬한 애정의 느낌, 애착 또는 자비심"으로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아헨", 신약성경에서는 "팔레오",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정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사랑의 기원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요한일서 4:19) 그 안에는 순수성과 무조건성과 무전제성이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부터 기원하였다는 것은 사랑이 영원성,신뢰성, 자비성, 목적성,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마태복음19:19)과 의무(요한일서4:20)이며 실천적 결과(로마서1:14)로 행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요한복음3:16) 구원의 동기로써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한없는 자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회복과 은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동기적 사랑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공동체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되어야 할 표현의 가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복음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 생명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5) 개요

- I. 편지의 목적(1:1~4)
- II. 교제의 조건(1:5~2:2)
- III. 교제안에서의 행동(2:3~27)
- IV. 교제의 특징(2:28~3:24)
- V. 교제를 위한 주의(4:1~21)
- VI. 교제의 결과(5:1~21)

33. 요한이서(Second Epistle of John)

(1) 제목과 기록목적

요한이서는 본서의 발신자이며 저자 사도 요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오니누 에피스톨레 베타"로 "요한이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1장 1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85년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 AD. 90년경, 요한1서를 기록한 다음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리워지는 요한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행할 것과 영지주의 거짓교사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요한일서의 축소판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교회내의 분열에 이러한 이단사상들이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달리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으며 지극히 사적인 편지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elect lady)(1:1)라는 말이 교회 전체 또는 교회내의 특정집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진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는 요한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미스(Smith)박사는 이 정도로 짧고 단순한 편지에 복잡한 알레고리(Allegory)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사적인 편지로 보고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에 사는 기리아(Kyria)라는 이름의 한 부녀와 그녀의 가정에 보낸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베드로전서1:1,요한삼서1:1)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던 AD. 1~2세기 동안에는 순회전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였고 그들이 떠날때에는 여비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영지주의 교사들에게 까지 관례화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경계하고 이단전파에 기여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저자(사도요한, AD.90년)

파피아스,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등 초대교부들이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1,2,3서와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에베소교회 장로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데서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책의 저자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과 에베소교회의 장로 요한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말년을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요한에 의해 요한1,2,3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마태복음10:2)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어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티스마 요한에 의해 예수께 소개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인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마가복음1:20).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마가복음15:40~41),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정규 랍비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께로 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마가복음3:17, 누가복음9:54, 요한복음21:20).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1,2,3서를 기록하였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요한복음3:16)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경멸하고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요한일서1:6,2:4).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상종조차 거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요한이서10). 디오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만천하에 공개할 정도로 그의 신념은 단호하였습니다(요한삼서9:10).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황제에 의해 추방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1:9) 요한은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증거로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의 장래에 대하여 선명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글들로 눈으로 목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트라얀(Trajan) 황제, 즉위 후 사도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소아시아지역의 복음사역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두리속에서 갇혀살며 은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주제

"진리안에서 서로 사랑하라"(1:8)는 주제로 이 짧은 서신의 근본 메세지는 "처음부터 들은"(6절)사도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상종 관계를 유지하지 말것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7~11절)

(4) 내용

1장 13절에 남겨진 서신에는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사랑안에 거하라는 권면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권면하는 사랑은 무분별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수반된 것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진리안에 거하라는 요한은 수신자들이 진리안에서 순종할 것을 권면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관계속의 성도들간에도 참된교제로 이어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복병은 영지주의, 이단, 거짓교사들의 활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파주의자들이 교회안에서 활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로마로부터 핍박

을 견뎌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부의 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만 자비를 베풀기에는 너무 많은 미혹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교사들의 가르침 자체를 허용하지 말고 그들과의 상종도 거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한의 이들에 대한 대립은 교회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단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I. 장로와 집사의 덕목

① 장로

- ㉠ 절제와 나그네를 대접함(디모데전서3:2, 디도서1:8)
- ㉡ 가르치기를 잘함(디모데전서3:2,5:17, 디도서1:9)
- ㉢ 온유함(디모데전서3:3, 디도서1:8)
- ㉣ 다투지 아니함(디모데전서3:3, 디도서1:7)
- ㉤ 돈을 사랑하지 않음(디모데전서3:3)
- ㉥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님(디모데전서3:6)
- ㉦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디모데전서3:7)
- ㉧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음(디도서1:7)
- ㉨ 선을 좋아하고 의로우며 거룩함(디도서1:8)
- ㉩ 근신함(디모데전서3:2, 디도서1:8)
- ㉪ 책망할 것이 없음(디모데전서3:2,8, 디도서1:6~7)
- ㉫ 일부일처제 유지(디모데전서3:2,12, 디도서1:6)
- ㉬ 아담하고 존경받음(디모데전서3:2,8, 디도서1:7)
- ㉭ 술취하지 않음(디모데전서3:3,8, 디도서1:7)
- ㉮ 자기 집을 잘 다스림(디모데전서3:4,12)
- ㉯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함(디모데전서3:4,12, 디도서1:6)
- ㉺ 더러운 이를 취하지 않음(디모데전서3:8, 디도서1:7)
- ㉻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디모데전서3:9, 디도서1:9)

② 집사

- ㉠ 깨끗한 양심(디모데전서3:9)
- ㉡ 일부일처제 유지(디모데전서3:2,12, 디도서1:6)
- ㉢ 아담하고 존경받음(디모데전서3:2,8, 디도서1:7)
- ㉣ 술취하지 않음(디모데전서3:3,8, 디도서1:7)
- ㉤ 자기 집을 잘 다스림(디모데전서3:4,12)
- ㉥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함(디모데전서3:4,12, 디도서1:6)
- ㉦ 더러운 이를 취하지 않음(디모데전서3:8, 디도서1:7)
- ㉧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디모데전서3:9, 디도서1:9)

- ㉔ 신실함(디모데전서3:8)
- ㉕ 먼저 시험하여야 함(디모데전서3:10)

II. 영지주의(Gnosticism)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이 교회안팎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AD. 2세기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였으며 3세기 초에는 로마제국 대부분의 교회가 영지주의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① 정의 :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지식"의 의미를 가진 "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며 모든 인류는 영적 계급, 정신적 계급, 물질적 계급으로 삼분되는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최고 신의 영계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신화와 철학, 신지학에서 도래한 것으로 혼합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며 영지주의 제도 역시 절충한 것이었습니다

② 사상 :

- ㉖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 ㉗ 지식은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덕보다 우월하다
- ㉘ 신적 세계는 우열에 의한 등급을 갖는 30개의 아이온(Aeo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 우주를 포함하는 최고의 존재 곧 절대자는 설명,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신적 충만, 신령한 빛 가운데 거하는 "부토스"다.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대인의 하나님은 최고 존재가 아니라 30개의 신적 아이온 중 최하위의 아이온인 "데미우르고스"(Demiurgos)라고 부르는 매우 열등한 존재다
- ㉙ 역사적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 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는 가장 밝은 아이온인 천상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 활동한 것이며, 천상의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에 다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갔다
- ㉚ 부활은 없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육신으로 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성경을 마음대로 곡해하고 오염시키는 이단의 정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유사 기독교도 아닌 철저한 이방종교의 연합적 성격을 가진 궤변이요 사단의 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교회안팎에서 고개를 들며 혼돈의 세계로 몰고 갔으며 150년간 교회를 위협에 빠뜨린 주범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5) 개요

- I. 인사말(1~3)
- II. 진리안에서 행함을 칭찬(4)
- III. 서로 사랑하라(5~6)
- IV.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7~11)
- V. 결론(12~13)

34. 요한삼서(Third Epistle of John)

(1) 제목과 기록목적

요한삼서는 본서의 발신자이며 저자 사도 요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오니누 에피스톨레 감마"로 "요한삼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는 1장 1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85년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 AD. 90년경, 요한1서를 기록한 다음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리워지는 요한1서와 요한1서의 축소판으로 불리우는 요한2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3서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급으로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순회교사들에게 대접함으로써 영적, 육적 축복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던 AD. 1~2세기 동안에는 순회전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였고, 그들이 떠날때에는 여비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례로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와같은 접대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진실된 순회 교사들에게는 별다른 대접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요한삼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요한3서는 가이오(Gaius)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인 편지로 각지로 여행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던 순회교사들과 관련된 교회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교사들을 영접하였지만 자만심이 강한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10절). 이 서신은 순회교사인 데메드리오가 가이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로마시대에는 흔하였던 이름으로서 요한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으로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마게도냐인 가이오(사도행전19:29)와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더베인 가이오(사도행전20:4)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로마서16:23, 고린도전서1:14) 등 이 세사람은 각각 다른 인물들로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사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2) 저자(사도요한, AD.90년)

파피아스,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등 초대교부들이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1,2,3서와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에베소교회 장로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데서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책의 저자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과 에베소교회의 장로 요한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말년을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요한에 의해 요한1,2,3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마태복음10:2)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어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티스마 요한에 의해 예수께 소개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인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마가복음1:20).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마가복음15:40~41),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정규 랍비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께로 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마가복음3:17, 누가복음9:54, 요한복음21:20).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1,2,3서를 기록하였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요한복음3:16)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경멸하고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요한일서1:6,2:4).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상종조차 거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요한이서10). 디오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만천하에 공개할 정도로 그의 신념은 단호하였습니다(요한삼서9:10).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황제에 의해 추방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1:9). 요한은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증거로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의 장래에 대하여 선명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글들로 눈으로 목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트라얀(Trajan) 황제, 즉위 후 사도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지역의 복음사역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두리속에서 간혀살며 은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주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1:8)를 주제로 거짓교사들을 배척하라는 교훈으로 시작하는 이 서신은 아시아 지방의 교회에서 독단적인 지도자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순회전도자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요한이 파견한 전도자를 대접한 교인들까지 교회에서 출교를 강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사도권으로 디오드레베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가이오에게는 무급으로 섬기는 순회전도자들에게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 내용

요한3서는 분량면에서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전파의 선봉에 서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여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급봉사직으로 흠어진 교회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은 가이오의 충성되고 정성스러운 대접과 순회교사들에 대한 디오드레베의 적대적 배척을 구체적으로 대조시킴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충성되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예우할 것과 진리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파송한 순회전도자들로 부터 가이오의 선행과 환대의 소식을 접하고

서신을 통하여 그의 신실함과 사랑, 진리안에 거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욱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의 사역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의무에 대하여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요한의 권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1~8절)

가이오의 선행과 달리 디오드레베의 불성실과 패역에 대하여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파송한 순회 교사들을 거부하고 이들을 지원한 성도들까지 출교시키는 패악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비록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됨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은 신행일치의 삶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며 자신의 방문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13~14절)

I. 교회론

(1) 교회의 명칭

- ① 카할 :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의미로 집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중(출애굽기16:3,레위기17:17,민수기14:5,역대상29:1), 집회(창세기49:6,시26:5), 이스라엘의 총회(신명기31:30), 여호와의 총회(민수기16:3,20:4), 하나님의 회(느헤미야13:1)
- ② 에다 : 집회의 대상을 중심으로 회중(출애굽기12:3,레위기8:3,민수기3:7,여호수아9:19,사사기21:13), 집회(시7:7)
- ③ 수나고게 :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과 모임이 이루어진 건물로서 회당(마태복음6:2,10:17,마가복음1:21,누가복음7:4)
- ④ 에클레시아 :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지교회(사도행전5:10~11,11:25~26,고린도전서11:18,갈라디아서1:2~3), 가정교회(로마서16:5,고린도전서16:19,골로새서4:15,빌레몬서1:2), 지교회의 총칭(사도행전9:31), 유형교회(고린도전서10:32,11:22,12:28), 무형교회(에베소서1:22~23,3:10)
- ⑤ 그리스도의 몸 : 교회의 유기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교회(고린도전서12:27,에베소서1:22~23,골로새서1:18)
- ⑥ 하나님의 성전 :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교회(고린도전서3:16), = "하나님의 처소"(에베소서2:21~22), "신령한 집"(베드로전서2:5), "예루살렘"(갈라디아서4:26,히브리서12:22,요한계시록21:2)
- ⑦ 진리의 기둥과 터 : 진리의 수호자임을 강조하는 교회(디모데전서3:15)

(2) 교회의 기원과 본질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적 단일체인 "무형교회"와 구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적 단일체인 "유형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안에 이미 창세전 부터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조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근원적 기원"(에베소서1:3~6)과 그리스도의 예언(마태복음16:18)대로 오순절 기원 성령강림사건으로 신약교회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사도행전2:2~4,47,4:32) 로마카톨릭은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지만 기독교는 성도의 무형적, 영적 교류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3) 교회의 구별

로마카톨릭은 성직자로 구성된 "가르치는 교회", 성도로 이루어진 "듣는 교회", 영세 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루어진 "혼으로서의 교회", 외형적인 교인으로서 구성된 "몸으로의 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 흑암의 세력과 영적투쟁을 하는 전투적 교회(에베소서6:12)
- ②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 신앙고백, 조직, 행정, 복음사역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교회요소를 갖춘 "가시적 교회"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
- ③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 : '유기적 교회'는 성령의 유대로 인하여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연합된 성도들의 집단, "조직적 교회"는 교회의 직분, 성례, 말씀선포, 정치 등 교회행정 조직과 관련된 조직체로서 모두 가시적교회의 구분에 속합니다

(4)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지상에 실체적으로 임재한 것, 성도의 심령(누가복음17:20~21)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마태복음 13:31,33,44,47),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왕국(사무엘하7:10~16,시 89:3~4,20~37), 신천 신지(요한계시록21:1~4)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영적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볼때 지상의 교회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하늘에 있는 승리적 교회와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5) 여러시대의 교회형태

- ① 가정교회 : 아담이후 모세전까지 족장시대 교회는 경건한 가정과 제사장적 가장

에 의해 보존

② 국가교회 :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형성했고 국가단위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상세한 의식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의 집전으로 수행된 이스라엘 종교는 국가로 부터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③ 신약교회 : 오순절 이후 교회는 국가와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범세계적으로 선교하였으며 의식적 예배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6) 교회의 속성

① 통일성 : 로마카톨릭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조직체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는 각기 지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② 거룩성 : 로마카톨릭은 교리, 교훈, 예배, 권징 등과 같은 교회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으나, 기독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새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원리면에서 거룩성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③ 보편성 : 로마카톨릭은 유형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무형교회를 보편교회로 지칭합니다

④ 사도성 : 로마카톨릭은 교황권이 베드로 사도로 부터 기원하였으며 베드로만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으로 주장하지만(마태복음16:18~19), 기독교는 교회 설립이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공헌으로 하여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실함으로서 사도권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⑤ 생명성 : 교회는 생명이신(요한복음5:26,11:25,14:6) 그리스도의 몸이며(에베소서1:23),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요한복음10:10)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요한복음3:16,6:39~40),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요한복음5:24,에베소서2:1,요한일서5:12) 교회는 생명성을 지닌 것입니다

⑥ 무오성 : 로마카톨릭은 교황무오설을 주장하고 교회의 무오성을 공유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에 기초함으로서 무오한 일면을 갖는 것입니다

(5) 개요

I. 인사말(1)

II. 가이오의 덕망(2~8)

III. 디오드레베를 책망함(9~11)

IV. 더메드리오 소개(12)

V. 축복(13~15)

35. 유다서(Letter of Jude)

(1) 제목과 기록목적

유다서는 본서의 발신자이며 저자인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인 예수의 형제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오우다"로 "유다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 등 7편의 편지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동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편적"(Universal) 또는 "일반적"(General)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2서와 요한3서를 제외하고 모두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1장 2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D. 70~80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형제, 유다는 원래 구원론에 대하여 기록하려 하였으나 영지주의의 만연으로 성도들이 타락하자 영지주의 이단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서서 이들과 대적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물질(악)과 영혼(선)의 이원론에 입각한 영지주의 이단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유다는 성경의 근본원리인 유일신 여호와와 창조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인간에게는 도덕이 필요없다는 도덕폐기론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체를학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는 두가지 모순된 결과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영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방치하는 심각한 오류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오염들이 교회안에서 활황하였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 저자(유다, AD. 70~80년)

유다는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이며(사도행전15장),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의 동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마태복음13:55,마가복음6:3) 고린도전서 9:5에는 유다를 복음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로서 유다는 스스로를 밝혀 주고 있고, 초대교부들도 유다의 저자설을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유다서의 기록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1:1)이라고 부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와의 관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악용할 것을 고려한 조심성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3) 주제

"배교에 대한 경고"(1:3)를 주제로 유다서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안에서 확고

하게 세우기 위하여 목회서신을 기록할 예정이었으나 이단 거짓교사들의 횡포에 관한 소문에 성령의 인도하에 원래 계획을 전환하여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신앙을 담대히 옹호하라는 권면을 급하게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후서와 연관되며 베드로후서보다 늦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내용

신약성경중 많은 서신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발생한 거짓 교사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서는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에 대해 가장 통렬하고 준엄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문안 인사(1~2절), 마지막 찬양(24~25절)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논박과 정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교사들에 대한 맹렬한 경고를 보내는 유다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세가지를 설명하며 거짓교사들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유다는 배교자들을 가인(창세기4:1~15), 발람(민수기22:22~24), 고라(민수기16:25~35)에 비유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확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지주의 교사들의 거짓됨을 폭로한 유다는 유다의 수신자들에게 배교자들을 출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짓교사들에 대한 사도들의 경고를 상기치킨후 신앙안에 굳건히 서서 이들의 가르침에 결코 미혹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거짓교사들을 경계하고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개요

- I. 인사(1~2절)
- II. 편지를 쓰게 된 배경(3~4절)
- III.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고(5~16절)
- IV. 신자들에 대한 권면(17~23절)
- V. 결론적 찬미(24~25절)

I. 사단

세상 창조이전에 피조된 천사(욥기38:6~7,골로새서1:16)의 일부가 타락했는데(베드로후서2:4,유다서1:6,이사야14:12~20) 사단은 그 무리의 두목이었습니다(마태복음 25:41,9:34)

(1) 성경을 지칭하는 용어들 :

- ① 직접용어 : 사단(마태복음4:10,요한계시록12:9,욥기1:6), 마귀(베드로전서5:8,요한계시록12:9), 바알세불(마태복음12:24), 벨리알(고린도후서6:15),
- ② 간접용어 : 악한자(요한일서5:19), 시험하는 자(데살로니가전서3:50, 이세상 임금(요한복음12:31), 이 세상 신(고린도후서4:4), 공중권세 잡은자(에베소서2:2), 형제들을 침소하던 자(요한계시록12:10), 미혹하는자(요한계시록20:10), 대적(베드로전서5:8),
- ③ 상징용어 : 뱀(요한계시록12:9), 용(요한계시록12:3), 광명의 천사(고린도후서11:14)

(2) 사단의 속성

- ① 사단은 영적인(에베소서6:11~12) 피조물(에스겔28:14)이며 원래는 천사로서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서열에 속한 천사중 뛰어난 존재(에스겔28:12)
- ② 사단은 지(고린도후서11:3), 정(요한계시록12:17), 의(디모데후서2:26) 및 도덕적인 책임성을 가진 인격체(마태복음25:41)로서 인칭대명사로 그를 지칭(욥기1장)
- ③ 사단의 인격적 특성은 살인자(요한복음8:44), 거짓말쟁이(요한복음8:44), 상습적인 죄인(요한일서3:8), 침소자(요한계시록12:10), 대적(베드로전서5:8),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한복음10:10), 미혹하는 자(요한계시록20:10),
- ④ 사단은 유한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욥기1:12), 예수께 패배당하여(요한일서3:8,요한복음12:31), 결박되고 능탈당하였으므로(마태복음12:29)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며(요한일서5:18), 성도들이 대적하면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야고보서4:7,요한일서2:13)

(3) 사단의 타락

교만한 천사(에스겔28:11~15,이사야14:13)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다가(디모데전서3:6,에스겔28:11~15,이사야14:13)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에스겔28:17~19)

- ① 사단의 죄(이사야14:12~20) : 사단의 타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융통성있게 해석하면 사단이 하늘에 올라 다른 천사위에 보좌를 만들고 천사 혹은 메시아 왕국위에 좌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여 천지의 소유자가 되라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디모데전서3:6)
- ② 사단에게 내린 심판 : 하늘에서의 본래 지위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스겔28:16) 에덴에서 심판이 선고되었고(창세기3:14~15)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성취되었으며(요한복음12:31) 내쫓김을 당하여(요한계시록12:13) 무저갱에 감금되고(요한계시록20:2) 장차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20:10)

(4) 사단의 사역

- ① 그리스도에 대하여 :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구속사역을 방해하리라는 예언(창세기

3:15)대로 직접 그리스도를 시험했을뿐만 아니라(마태복음4:4~11) 간접적으로 그의 사역을 훼방했고(마태복음2:16,16:23,요한복음8:44) 유다를 충동하여 못박는 일을 도모하였습니다(요한복음13:27)

② 열방들에 대하여 ; 열왕들을 충동하여(요한계시록20:3),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16:14~16)

③ 성도에 대하여 : 거짓말하도록 유혹하며(사도행전5:3), 성도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며(요한계시록12:10) 일을 방해하며(데살로니가전서2:18), 귀신을 고용해 성도들을 패배시키려고 시도하며(에베소서6:11~12), 부도덕에 빠지도록 유혹하며(고린도전서7:5),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씨를 뿌리며(마태복음13:38~39), 박해를 야기 시킵니다

④ 불신자에 대하여 : 불신자를 지배하여(요한일서5:19,요한복음12:31) 마음을 어둡게 하며(고린도후서4:4),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에베소서2:2) 말씀을 제거하며(누가복음8:12), 하나님을 대항하게(요한계시록2:13) 미혹합니다(요한계시록13:14,18:23)

⑤ 사단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 사단을 경계하며(베드로전서5:8)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에베소서6:11~18) 말씀으로(에베소서6:17,마태복음4:4~11) 사단을 대적하며(야고보서4:7),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단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인실하여(고린도후서12:7)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인하여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II. 귀신

헬라인들은 귀신을 죽은 악인의 영으로 보았고 혹자는 아담 이전의 종족의 육을 떠난 영으로 이해하며 세대주의자들은 홍수 이전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으로 보기도 합니다(창세기6:1~4) 그러나 사단이 천사이며 귀신의 왕으로 불리운 점을 상기한다면 귀신 역시 천사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귀신의 속성

① 영적 존재 : 더러운 영(마태복음17:18,마가복음9:25)

② 지적 존재 : 예수 자신의 운명(마태복음8:28)과 구원의 계획(야고보서2:19)을 알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발달된 지적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디모데전서4:1~3)

③ 부도덕한 존재 : 더러운 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초래합니다(디모데전서4:1~2)

(2) 귀신의 활동

귀신은 불화하게 하며(사사기9:23)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야고보3:13~15) 번뇌케 하며(사무엘상16:14) 거짓말하게 하며(열왕기상22:21~23) 점쟁이가 되게 하며(마가복음9:25) 이간질하게 합니다(마태복음17:15~18)

- ① 일반적인 활동 :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 하며(다니엘10:10~14,요한계시록 16:13~16), 사단의 명령을 행함으로서 사단의 권위를 확장하려 합니다(에베소서 6:11~12)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활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수행에 역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사무엘상16:14,고린도후12:7)
- ② 특별한 활동 : 인간(마태복음4:24)과 동물(마가복음5:13)을 사로잡아 병들게 하며(마태복음9:33,누가복음13:11~16)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에베소서6:12) 그릇된 교리를 유포합니다(디모데전서4:1)

36. 요한계시록(ἀποκάλυψις ἀπο, Revelation to John)

(1) 제목과 기록목적

요한계시록 본서의 발신자이며 저자 사도 요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로 "요한계시록"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1절에서 이 책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한1,2,3서를 기록한 후 AD. 95~96년경(81~96년), 밧모섬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연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간인 AD. 81~96년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 중에서 기간을 조금 더 좁혀 본다면 요한1,2,3서를 기록한 AD. 90년경 이후 밧모섬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계시문학을 배경으로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신약 유일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즉, 사단의 모든 위협과 협박과 공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종료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로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의 시련은 영원에 비하여 결코 긴 세월이 아니고 죽음이 라는 공포도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테반의 마지막을 기억해 볼때 담대함과 용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을 급박하거나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경고와 사단에 주는 최후통첩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글을 읽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4대쟁점이 점화되었습니다 ① 이 책의 예언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과거 해석법과 ② 이 책의 예언을 요한의 시기로 부터 종말에 이르기 까지 계속 전개될 교회사의 파노라마로 이해하는 전 역사 해석법, 그리고 ③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미래 해석법과 마지막으로 ④ 실제사건과는 무관한 영적 원리들이 이 세상과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주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미래해석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책은 분명 계시록(Revelation), 묵시록(Apocalypse)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극히 일부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상징들은 해석이 가능하지만(1:20,17:1,15) 대부분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다 일례로 "같은"(like), "비슷한"(as)이라는 단어는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장차 분명하게 이루어 질 묵시적 계시의 예언을 우리 주변의 구체적 상황과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영적 한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도 재림과 심판이 언제 도래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작은 테두리안에 있는 작은 퍼즐조각들을 읽어 보려는 것입니다

(2) 저자(사도요한, AD.95~96년(81~96년))

초대교부들이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1,2,3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도요한의 저자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에베소교회 장로 요한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데서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 책의 저자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과 에베소교회의 장로 요한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말년을 에베소에서 지낸 사도요한에 의해 요한1,2,3서가 기록된 후 밧모섬 유배시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마태복음10:2)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와 어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티스마 요한에 의해 예수께 소개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인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마가복음1:20)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마가복음15:40~41),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정규 랍비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직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인하여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께로 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마가복음3:17,누가복음9:54,요한복음21:20)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복음과 요한1,2,3서를 기록하였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

"(요한복음3:16)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을 경멸하고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요한일서1:6,2:4)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과는 상종조차 거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요한이서10) 디오레베는 교만하여 사악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만천하에 공개할 정도로 그의 신념은 단호하였습니다(요한삼서9:10)

소아시아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시안황제에 의해 추방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1:9) 요한은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증거로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되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세계의 장래에 대하여 선명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글들로 눈으로 목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트라얀(Trajan) 황제, 즉위 후 사도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사역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비겁한 변두리속에서 갇혀 살며 은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주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1:7,11:15)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난해한 질문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핍박을 예고하며 악의 음모가 계속 반복되고 고조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주의 뜻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갈등과 참여한 대립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악의 세력을 영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악과의 오랜 대립구도는 영광의 백보좌 심판과 함께 영원의 시작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1:1) 부활과 영광을 얻으신 주님은 땅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십니다(2~3장) 주는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어린양이었습니다(4~5장) 장차 이 땅위에 임할 7년 대한난의 심판도 어린양의 진노의 표현입니다(6~9장,6:16~17) 주의 재림(19:11~21), 성도와 함께하는 천년간의 통치(20장), 새 하늘과 새 땅(21~22장)의 환상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되고 있습니다

(4) 내용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서로 요한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1:19) 우리는 요한의 시대, 요한의 보편적 지식,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당시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본 미래의 형상과 모양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1장) 예언이 전달되는 경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사도 요한을 경유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읽는 자에게 축복이 예비된 한 권의 책인 반면 예언된 계시를 가감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특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1:3,22:18~19) 종말론적 심판이 강한 성격의 준비과정처럼 느껴지는 1장에서 요한은 계시의 진정성 및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1:1~3) 당시 고난과 핍박을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이 축복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1:9~10) 요한이 본 환상의 배경(1:9~10)과 계시의 대상과 그 내용(1:11,19), 계시의 참된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1:12~18,20)

이제 있는 일로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세지를 담고있는 2~3장은 요한 당시는 물론 초기 기독교 시대로 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모든 교회들의 영적 상황과 이에 대한 주의 증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곱교회의 수신자들은 모두 교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각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칭찬과 책망 및 권면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지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반드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여 성령의 사역을 강조함으로서 그 메세지가 당시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4~22장)을 바라보는 요한은 하늘로 옮겨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24장로와 4생물에 관한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6~16장) 특히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 사이에는 많은 예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12~14장) 그후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등장하고(17~18장), 이린양의 혼인잔치의 준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9장)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영원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 개요

I. 머리말(1:1~8)

II. 과거의 일(1:9~20)

III. 현재의 일 : 일곱 교회에게(2:1~3:22)

IV. 미래의 일(4:1~22:5)

(1) 환란의 시기(4:1~19:21)

① 하늘의 보좌(4:1~11), ② 일곱인 봉한 책(5:1~14), ③ 일곱인의 재앙(6:1~8:6),

④ 일곱 나팔의 재앙(8:7~11:19), ⑤ 전쟁(12:1~17), ⑥ 짐승과 그의 선지자(13:1~18),

⑦ 여러가지 선포(14:1~20), ⑧ 일곱대접의 재앙(15:1~16:21), ⑨ 큰 음녀 바벨론(17:1~18),

⑩ 바벨론의 멸망(18:1~24), ⑪ 그리스도의 재림(19:1~21)

(2) 천년왕국(20:1~15)

(3) 마지막에 있을 일들(21:1~22:5)

V. 결론(22:6~21)

I.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1:12~20)

① 몸 : 발에 끌리는 옷 : 영광과 위엄

② 가슴 : 금 띠를 두름 : 위엄과 신성한 권위

③ 머리 : 흰 양털 같음 : 신성과 순결

④ 털 : 눈(雪) : 존귀와 지혜

⑤ 눈 : 불꽃 : 깊은 통찰력과 격렬한 진노

⑥ 발 : 빛난 주석 :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심판

⑦ 음성 : 맑은 물소리 : 영광과 위엄

⑧ 오른손 : 일곱별 : 권능과 보호

⑨ 입 : 좌우에 날선 검 : 신실한 증거와 심판

⑩ 얼굴 : 밝은 태양 : 승리와 탁월성, 영광

II. 일곱교회에 보내는 메세지(2:1~3:22)

① 에베소교회 : 정통적인 교회(2:1~7) : 선한 행동과 인내와 수고, 악을 미워하며 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2:2~3)지만, 처음 사랑을 버림(2:4)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을 받았으며(2:5), 낙원과 생명나무의 과실(2:7)이 상급으로 주어졌습니다

② 서머나교회 : 궁핍하나 부요한 교회(2:8~11) : 핍박가운데 인내하고 변치않는 영적 풍요로움을 간직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말고 죽도로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았으며(2:10)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을 면제받았습니다(2:10~11)

③ 버가모교회 : 주위환경이 나쁜 교회(2:12~17) : 핍박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2:13)지만 나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있어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2:14~15) 회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2:16)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의 상급이 주어졌습니다(2:17)

④ 두아디라교회 : 악한 여선지자가 활동한 교회(2:18~19) :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더욱 좋아진 교회였지만(2:19),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2:20)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다(2:25) 악한 자들은 큰 환난을 맞고 사망에 이르고, 선한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상급이 주어졌습니다(2:22,26,27)

⑤ 사데교회 : 죽은 교회(3:1~6) : 소수의 순결에 대해서만 칭찬하였으며(3:4),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자와 같고 극도의 형식주의만 남아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3:1~2) 죽게된 것을 다시 일으켜 굳게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3:2~3) 회개하고 순결을 지킨 자들에게는 흰 옷,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3:5)

⑥ 빌라델비아교회 :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3:7~13) : 말씀을 지켜 배반치 않았으며 인내로 이겨내 책망받을 것이 없었습니다(3:8~10)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고 격려했으며(3:2~3) 시험을 면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⑦ 라오디게아교회 : 부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교회(3:14~22) :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었으며 미지근한 믿음과 영적 교만, 세상을 자랑하는 악행이 거듭되었습니다(3:15~18) 차든지 덤든지하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3:15,19) 순종한 자들에게는 주의 보좌에 앉게하고 주와 동거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3:20~21)

III. 일곱 인봉 책과 어린양

- ① 능력 :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의 하나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고린도전서1:24)
- ② 부 :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부를 부여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마가복음10:29~30,고린도후서8:9,에베소서3:8)
- ③ 지혜 : 하늘과 땅의 모든 일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원하며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고린도전서1:24,야고보서1:5)
- ④ 힘 :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누가복음11:22)
- ⑤ 존귀 : 고난과 비천함을 극복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존귀함을 의미합니다(빌립보서2:10~11)
- ⑥ 영광 :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으로 주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요한복음1:14,히브리서2:9)
- ⑦ 찬송 :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성도의 응답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 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선물입니다(사도행전24:15,데살로니가전서4:14,베드로전서1:3)

IV.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과 짐승을경배하는 악한 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의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출발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1) 일곱 인의 재앙(6:1~17)

- ① 흰 말 :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남(6:1~2)
- ② 붉은 말 : 전쟁과 빈번한 내란으로 사람이 죽고 화평이 사라짐(6:3~4)
- ③ 검은 말 : 흉년과 대규모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기아(6:5~6)
- ④ 청황색 말 : 배고픔과 칼에 많은 사람이 죽음(6:7~8)
- ⑤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의 탄원(6:9~11)
- ⑥ 지진과 하늘의 징조, 땅에 속한 자들이 두려워 숨음(6:12~17)
- ⑦ 일곱 나팔의 재앙 시작

(2) 일곱 나팔의 재앙(8:1~9:21)

- ① 땅 : 피섞인 우박, 불 :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의 1/3이 불타(8:1~2,7)
- ② 바다 : 불 붙은 큰 산과 피 : 불 붙은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의 1/3이 소멸됨(8:8~9)

- ③ 강, 샘물 : 큰 별, 즉 솥 : 큰 별, 즉 솥으로 인하여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음(8:10~11)
- ④ 천체(해,달,별) : 흑암 : 천체의 1/3이 어두워 짐(8:12)
- ⑤ 불신자들 : 사단, 황충 : 황충으로 이해 다섯달 동안 고통을 당함(9:1~10)
- ⑥ 큰 강 유브라데 : 네 천사와 마병대 : 네 천사와 마병대가 사람들의 1/3을 죽임(9:13~21)
- ⑦ 하늘 :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 일곱 대접의 재앙 시작

(3) 일곱 대접의 재앙(11:15~16:21)

- ① 땅 : 질병 : 불신자들에게 헌데가 생겨 고통을 당함(11:15~19,16:2)
- ② 바다 : 피 : 바다가 피로 변해 그 가운데 있는 생물이 모두 죽음(16:3)
- ③ 강과 물의 근원 : 피 :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해 불신자들이 피를 마시게 됨(16:4~7)
- ④ 태양 : 불 :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들이 타 죽음(16:8~9)
- ⑤ 짐승의 보좌 : 흑암과 육체적 질병 : 흑암과 육체적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함(16:10~11)
- ⑥ 유브라데강 : 강물마름 :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과의 최후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음(16:12~16)
- ⑦ 공기 :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 번개, 지진, 우박 등으로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됨(16:17~21)

V.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

- ① 1 : 절대수, 영원수, 유일신, 시작(요한계시록1:8,창세기1:5)
- ② 2 : 증인의 수(요한계시록11:3,13:11,신명기17:6,마태복음18:19)
- ③ 3 :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그리스도의 3중직(왕,제사장,선지자)(요한계시록7:4,8:7~12,9:15,이사야6:3,마가복음9:31,14:58)
- ④ 4 : 지상의 수, 동서남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요한계시록4:6,5:8,7:4,창세기2:10,이사야11:2,에스겔7:2)
- ⑤ 6 : 불완전의 수, 인간의 수,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악한 수(요한계시록4:8,13:18,여호수아6:3,욥기5:19)
- ⑥ 7 : 하나님의 수, 승리와 완전의 수, 안식의 수(요한계시록1:11,6:1,8:2,창세기2:3,레위기25:8,이사야30:26)
- ⑦ 10 : 만수, 세상적 완전수(요한계시록12:3,13:1,17:3,12,창세기18:32,다니엘1:20,누가복음19:13)
- ⑧ 12 : 완전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냄(요한계시록21:12,14,22:2,창세기49:28,에스겔43:16)

⑨ 24 : 유대인의 구원수와 이방인의 구원수, 모든 교인의 대표 24장로(요한계시록 4:4)

▶ 24장로 : 하나님과 어린양을 영화롭게 하는 일(요한계시록7:11~12),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역(요한계시록5:8), 하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신실성과 존귀함을 부여 받았습니다(요한계시록2:10,3:5,골로새서1:16)

⑩ 40 : 고통의 수, 모세의 금식, 예수님의 금식기간, 40년 광야생활

⑪ 1,000 : 많은 무리의 수를 상징함(시편84:10)

⑫ 144,000 : 유대인 구원수12×이방인 구원수12×많은 무리의 수1,000=144,000명

▶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 기간 동안 멸망으로 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144,000명의 유대인 성도라는 설

▶ 상징적 해석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설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합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의 이름이 제외된 것은 단지파가 구약성경과 유대 랍비적 상징주의에서 우상숭배를 상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창세기49:17,사사기18:18~19,열왕기상 12:29~30)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우상숭배와 짐승 경배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단 지파는 종말에 올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예레미야 8:16)

▶ 144,000명은 모두 인(印)을 맞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을 맞은 사람은 사단과 추종세력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때 부활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요한계시록 13:7,16:2,20:4)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인은 세레(롬서8:23,야고보서1:18)와 성령의 임재(마태복음3:16,로마서8:11,에베소서1:13)로 상징되었습니다

VI.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의 신천신지 비교

① 천지창조(창세기1~2장) ▷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요한계시록21~22장)

② 땅을 다스리는 첫 아담(1:26) ▷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구적으로 다스림(21:5)

③ 밤과 바다의 창조(1:5,10) ▷ 죄와 암흑과 사단의 상징인 밤과 바다가 소멸됨(21:1,25)

④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남편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듦(2:18~25) ▷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영원한 생명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게 됨(19:7~)

⑤ 생명나무를 잃어버림(2:9,3:22) ▷ 생명나무를 되찾음(22:2)

⑥ 실락원(3:24) ▷ 복락원(21:25~26)

⑦ 죄가 죽음과 저주를 가져 옴(3:14,17~19) ▷ 더 이상 저주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

숨(22:3)

⑧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결이 예언됨(3:15) ▷ 그리스도에 의해 사단이 멸망함(20:10)

⑨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 출입금지(3:22~23) ▷ 구속받은 성도들은 출입의 자유로움(21:25~27)

⑩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3:23,4:16) ▷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광중에 주님의 얼굴을 봄(22:4)

⑪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함(3:1) ▷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함(21:27)

⑫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림(3:18~19) ▷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22:3~5)

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성을 바라 봄(히브리서11:13~16)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됨(21:10)

⑭ 남편과 아내(2:23~24) ▷ 어린양과 신부

VII. 계시신학

요한계시록은 신학 가운데 종말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과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위협앞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의 장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기술한 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절대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보좌의 구심점은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우월성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제국의 위협보다 더 크며 그 능력은 핍박하는 로마제국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인간의 악과 반항에 무관하게 반드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요한계시록4:8,11:17, 15:3,16:7,14,19:6,15,21:22)와 만물의 창조자(요한계시록4:11), 만인의 심판자(20:11~15)로 부르는 것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이제", "전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요한계시록1:4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기독교론적으로 예수의 역사성이 명백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중의 하나요(요한계시록5:5), 12사도를 거느렸고(요한계시록21:14),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혔으며(요한계시록11:8),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1:5,18). 그리스도의 존귀함은(요한계시록3:21) 1장에 예언된 바와 같습니다.

역사의 진행에 대한 예수의 권력(요한계시록5:6~12)은 전 계시록의 움직임에 관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요한계시록5:6) 다윗 왕가의 후계자 유다지파의 사자로(요한계시록5:5) 땅의 추수를 완성키 위해 구름

타고 나타나는 심판의 인자로(요한계시록14:15)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요한계시록19:13)는 요한복음의 기록과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수호자, 책망자(요한계시록1:12~20), 땅의 최후 심판자(요한계시록22:12)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의 완성(요한계시록11:25)이며 예수님은 최후 하나님 도성의 빛이 되십니다(요한계시록21:23)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 일곱 영(요한계시록1:4)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계시록 기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환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1:10,4:2,17:3,21:10).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요한계시록22:17). 요한은 개인적 영적체험과 성령의 위치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이 환상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만큼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요한계시록6:16~17), 마귀의 세력에 쉽게 희생물이 되며(요한계시록9:4,13:3,14,17:8), 자기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요한계시록20:12~13). 구원은 믿는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요한계시록7:3). 신자와 불신자의 가는 곳은 명시되어 있어서 반역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이며(요한계시록21:8) 구원받은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22:14). 아시아의 일곱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의 사랑과 핍박과 충성과 신앙의 인내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관 아래 있는 모든 악의 세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요한계시록9:4~11).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지상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은 수많은 의의 천사에게 추방됩니다(요한계시록12:7).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정복을 당하고(요한계시록12:9) 일정기간동안 결박되어 있다가(요한계시록20:1~3) 최후에 가서는 불못에 던져 집니다(요한계시록20:10).